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4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 417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새벽숲길'을 걷고 싶다

아무 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이
평등하게 맞이하는 새벽

쉬잇, 조용히
가만 있어 봐
누가 오고 있어

박상천 시인은 이렇게 '새벽'을 노래했다.

이런 새벽을 '숲길'에서 맞이한다면, 그것도 산사의 '새벽 숲길'을 걸으며 맞이할 수 있다면.

'새벽 숲길!' 지금 이 글은 보통명사인 '새벽'과 '숲길'을 말하고자 쓰는 게 아니다. 지난 해 4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해남 대흥사에서 마련한 '새벽 숲길'이라는 이름의 산사 체험 프로그램을 말하기 위함이다.

지난 해부터 조계종의 전국 본 · 말사에서는 2002 한 · 일 월드컵과 주5일 근무를 대비한 대사회 기여 차원의 '템플스테이'와 주말 수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대흥사의 '새벽 숲길'은 대표적인 산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2002년 4월 첫선을 보인 '새벽 숲길'은 그해 6월부터 정례화되어 13차례나 진행하면서 매회 25명씩 325명이 참가했다. 특히 '새벽 숲길'은 일반적인 사찰수련회와 달리 다른 종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만큼 사랑을 받았다.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불교가 이렇게 세상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워했고, 직접 참가가 아니어도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벽 숲길'을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 여러 사정을 헤아린 결정이었겠지만,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절집마저 그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줘선 안될 것 같다.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새벽 숲길'을 걷고 싶다.

윤제학(취재1부 부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조계종, 초파일 대사면 단행

62년 통합종단 이후 징계자 … 400명선 예상

삼보정재 탕진 · 속퇴 · 취처자 등은 제외

조계종이 올 부처님 오신날에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를 포함한 모든 징계자를 대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사면을 단행한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사면복권검토위원회(위원장 법등)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을 통해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키로 결의하고 4개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10 · 27 법난으로 국가에 의해 징계받은 스님들(멸빈자)에 대한 84년도 사면조치와 종단 화합을 위해 실시됐던 94, 95년도 사면에 이어 통합종단 이후 네 번째다. 그러나 94, 95년 사면 때는 멸빈자가 제외됐었고, 84년 멸빈자 사면도 국가에 의해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종단 징계 멸빈자를 포함하는 대대적 사면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검토위는 결의사항에서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면을 추진하되, △삼보정재를 탕진했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와 △사실상 속퇴(俗退)했거나 취처(取妻)하여 비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하고 △94년 개혁종단과 98년 종단사태 관련 멸빈자 중 참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의 경우는 교계 신문 지상에 공개적 참회를 해야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대사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올해 초파일에 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 아래 곧바로 대상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종헌 개정 및 임시종회 소집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대상자는 94, 98년 징계자의 경우 멸빈자 20여명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 160여명 및 복권 대상자 200여명 등 360여명과 62년부터 94년 이전 징계자를 포함해 모두 40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면절차는 일단 임시종회가 소집되면 총무원장 발의로 사면안(종헌 개정)을 종회에 상정하고, 종회에서 통과된 안을 종정스님에게 재가를 받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헌 개정은 중앙종회 재적의원(81명)의 3분의2 이상(54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총무원은 15일경 종회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며,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임시종회는 25일경 열리게 된다.

사면 방식은 사면검토위원회 결정대로 종헌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사면을 규정하고 있는 종헌 제128조에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총무원은 이 단서조항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적용하지 않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북녘 동포에게 자비광명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8일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멸공OP에서 봉축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천태종 불자와 군장병 5백여명은 남북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사진= 고영배 기자

조계종 실질신도 7만명 불과

40~60대가 88% … 교구별 등록 큰 편차

조계종에 등록한 신도가 7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이 공개한 '신도등록 현황'에 따르면, 96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조계종의 등록 신도는 263,689명이며, 해가 바뀌어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는 6만4천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법'에 명시된 교무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13.9%에 불과한 셈이다. 20여만 명은 등록했다가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도증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2002년까지 등록한 신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이상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신도의 88%에 달한 반면 40세 미만 신도는 12%에 그쳤다.

교구별 신도등록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할교구(본사 조계사)와 15교구(본사 통도사)가 86,23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23교구(본사 관음사, 651명)와 24교구(본사 선운사, 2,685명), 22교구(본사 대흥사, 3,111명), 3교구(본사 신흥사, 3,266명)는 각각 1% 수준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8면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건설 노선재검토위 구성 결렬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놓고 11일 조계종과 정부관계자가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과 사회부장 미산스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농수산건설심의관, 건교부 도로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과정에서 두 스님은 수락산 · 불암산(5 · 6공구) 공사를 중단하고 현 노선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 노선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스님! 무료로 컴퓨터 배우세요

1차 5월 19~6월 13일, 2차 6월2~28일
해당지역 스님 · 종무원 많은 참여바랍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스님과 종무원들만으로 구성되는 특별반 체제로 운영됩니다. 교육 실시 지역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1차 구리 · 남양주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 상	기 간	장 소
경기	구리 · 남양주시 스님 및 종무원	5월 19일~6월 13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구리 우체국 4층 정보화교육실

제2차 춘천 및 강릉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 상	기 간	장 소
춘 천	춘천 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2일~6월 28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춘천우체국 정보화교육실
강 릉	강릉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9일~6월 27일(3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 30분	강릉우체국 정보화교육실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수강료: 무료(교재비 4천원 본인부담)
▦신청 접수: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국장 임연태 02-722-4162, ytlim@buddhapia.com
▦신청 기간: 5월 4일까지 전화 및 전자우편
▦모집 인원: 각 지역 15명

※3차 이후 교육은 추후 공지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만평' 시사만화가 심민섭 씨가 그립니다 2면



시사만화가 심민섭(사진) 씨는, 한국일보와 세계일보, 국민일보에서 시사만화 <심마니>를 연재, 독자들로부터 사건의 본질을 꼬집어내는 예리한 시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독자들은 심 화백의 붓끝에서 나온 '촌철살인'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민섭 씨는 1948년생으로 84년부터 6년간 주간한국에서 만화칼럼 <가라사대>를 연재한 것을 비롯해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대전일보 등에서 만화와 만평을 실어왔습니다.

이호신 화백의 '인도 그림기행' 새연재 32면



이호신 화백(사진)이 이번 호부터 화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도의 삶과 풍물, 성지순례(불교유적) 예술기행을 연재합니다.

한국화의 기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림과, 현상을 넘어선 생명의 본질을 만끽하게 하는 글에서 독자들은 인도의 역사와 현실을 새롭게 통찰하고 불교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호신 화백은 1957년生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길에서 쓴 그림일기> <숲을 그리는 마음> 등 여러 책을 펴 냈습니다.

클릭하세요! 경품이 와르르 …
www.buddhanews.com 봉축특집 코너

아! 큰스님 북한 만수대창작사 作 '근세 고승진영 자수전'

▶ 개막식
불기 2547(서기2003년). 4. 22(화) 오후2시
법련사 불일미술관(서울 사간동)

▶ 관람안내
• 전시기간 : 4월 22일(화) ~ 4월 28일(월)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 장 료 : 무료
※ 전시기간중 무휴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 후 원 :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핸드코리아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20세기 정신적 師表"

근세 100년 격동의 20세기를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살다간 한국의 큰스님 20분이 자수로 다시 우리곁에 오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20세기 고승 20분의 진영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의 전통 손자수로 한땀한땀 수놓아 창작한 "아! 큰스님-근세고승진영 자수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예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창작성과를 제시하고 불교문화의 새 장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는 관람 그 자체만으로도 신심과 환희심을 내게해 포교에도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행의 궤적이 담긴 큰스님들의 모습이 가는 명주실과 천연염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자수작품은 미술계에 획기적인 전통자수의 창작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는 인물로 본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20세기 근세 한국불교의 큰스님들은 질곡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 우리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온 정신적인 지주이셨습니다. 이들 큰스님들의 수행으로 점철된 모습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대 큰스님들의 지혜과 유훈을 되새기며 본받고 기리는 것입니다.

한편, 예술에서 자수라는 장르는 워낙 공이 많이 들어 현대사회화 되면 될수록 명맥만을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분야로서 다만,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유일하게 번창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작품들은 그 자체로 전통 손자수라는 기법적 특성으로 국보급 현대불교미술품으로 평가받아 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삼청동 경복궁 법련사 불일미술관 한국일보

법련사 불일미술관 교통안내 (02-733-5322)
지하철 안국역에서 하차 1번출구(풍문여고 방향)로 나오셔서 경복궁방향으로 직진(경복궁 동문 맞은편 위치)

현대불교신문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www.buddhanews.com

사 설

탄력받는 조계종 사면

조계종에 사면 훈풍이 불고 있다. 조계종의 사면 논의는 지난 10일 열린 사면복권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정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8일 대사면을 단행한다는 전제 아래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멸빈자도 포함한다고 결의했다.

조계종의 사면 논의에서는 항상 멸빈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멸빈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스님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자로서 본분사를 버리지 않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오고 있다. 이런 스님들이 법적으로 종단의 구성원으로 재합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단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계종 사면의 논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대화합의 원칙 아래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원로회의와 종정 스님의 유시가 간곡했던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사면 논의는 멸빈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어 종단의 원융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주고 있다.

종단의 원융화합을 기치로 내 건 제31대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묵은 숙제를 풀고 화합종단의 면모를 일신하자는 종단 기류가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길 기대한다.

'스님 컴퓨터 교육'에 거는 기대

스님들이 무료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손잡고 스님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스님들이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환경 속에서 스님들은 상당부분 소외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포교 일선에 있는 많은 스님들은 그간 기회를 갖지 못해 인터넷 사회에 뒤쳐져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이 지난해 4월 실시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국내 전체 사찰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서도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상당히 심했다. 또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의사가 있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스님들도 80%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발족된 불교정보화협의회가 5월 경기도 구리 우체국을 필두로 강원 충남 등 전국 지역에서 스님들에게 컴퓨터의 기본과정 및 인터넷 활용의 기초 과정을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인터넷 시대의 불교 발전은 인터넷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포교의 방법이 보다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스님들이 열의를 갖고 동참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체제개혁 본격 착수

종책·조직체계 진단·개편 프로젝트 가동

종책자문위원 월말까지 인선 마무리

총무·교육+포교·복지원 '3원체제' 검토

조계종 총무원이 종책과 조직체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프로젝트를 가동, 본격적인 종단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 속에는 교육원과 포교원 통합, 복지원 신설 등 중앙종무기관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연구 검토도 포함돼 있어 종단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종단 발전방안 수립 및 효율적인 종책 마련을 위해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자문위원 인선에 들어갔다. 종책자문위원은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등 집행부 4명과 중앙종회 7개 상임분과별로 추천하는 각 1명(비구니 1인 포함), 본사주지 6명, 교수급 전문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인선은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을 보장받게 되는 이들 종책자문위원들은 종단발전 청사진 수립 및 종무조직개편,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종책자문위원회 구성과 함께 중앙종무기관 실무자들도 18일 중앙승가대에서 워크숍을 갖고 종단발전 청사진 수립을 위한 종책 기본안 마련에 나선다.

종책자문위원회와 병행해 '종무 체계·인력 진단 개선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총무원은 기획실과 총무부 관계자들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종교학·행정 전문가, 종회의원, 재가자들의 자문을 받아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종무체계 및 인력운용 개선 △직영사찰 인력 실태 점검 및 운용 개선안 검토 △관련 종법령 정비 △관련 예산 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제시한 '신 3원 체제', 즉 '총무원-교육원·포교원(통합)-복지원(신설)'이라는 새로운 종무체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이외에도 총무원은 법장스님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정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정부 관계 및 종단의 사회참여 방안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문화사상저널 2호

원효관련 논문 등 22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문으로 발행되는 국제불교학술지 <국제불교문화사상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연간) 2집이 나왔다.

<불교문화사상>은 지난해 3월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이 창간한 국내 최초의 영문불교학술지로, 2집부터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가 발행을 맡는다.

편집위원장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불교문화사상>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국제불교전문저널"이라며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 벌써 10여 개 대학에서 정기구독을 신청해 왔다"고 말했다.

원효 특집호로 꾸며진 이번 호에는 11편의 원효 관련 논문과 자유주제 논문 11편 등 모두 22편이 실렸다.

권형진 기자

외국인행자 예법·의식 익히기 쉬워져

조계종 교육원, 영문판 '행해예경집' 간행

외국인 출가자들이 한국의 절집 예법과 의식을 익히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조계종 교육원이 최근 사찰 예법 및 의식집인 <행해예경집(行解禮敬集)>을 영문으로 간행했기 때문이다.

<행해예경집>은 외국인 행자들이 한국의 절집에서 한국인 스님이나 신도들과 생활할 때 갖추어야 할 위의를 최대한 쉽게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합장 및 차수, 절하는 법, 대중 생활, 발우공양, 목탁 치는 법 등의 기본 예법과 반야심경, 조석예불 등 주요 의식을 손 모양, 발 모양, 자세까지 사진과 함께 설명해 놓았고, 용어마다 로마자 표기와 영문 설명, 한글 표기를 넣고, 언제, 왜, 어떻게 행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의미 파악은 물론 불교 용어를 한국어로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어권 스님들이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할 때 한국 스님들과 똑같이 발음할 수 있게 표기에 신경을 썼다.

최종 감수에 참여한 미국인 청고 스님(금강선원)은 "한국불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통 예식을 모르면 곤란한 만큼 외국인 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앞으로 외국인 스님들이 가장 원하는 근·현대 조사 어록을 영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종단협 17일 정기총회

법장스님 회장 추대·올 예산 등 확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대스님 사퇴 이후 공석 중이던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추대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또 종단협은 정기회비와 사업분담금을 체납하는 종단에 대한 처리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 진산

"정법구현에 앞장설 것"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제19대 주지 법정스님 진산식이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됐다.

법정스님은 취임사에서 "정법을 구현하고 민족문화를 전승해 새로운 문화 창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정스님은 1944년 생으로 1959년과 63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79년 수덕사 재무국장을 거쳐 89년부터 영봉암 주지를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새 위원장 천제스님 선출

조계종 법규위원회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10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천제스님(해인사 선제암)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간사는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이 맡게 됐다.

천제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종단 내 법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종도들이 종법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규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종도들에게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제스님은 1963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하고 5, 6대 중앙종회의원과 종정예경실장을 역임했으며, 1995년부터 법규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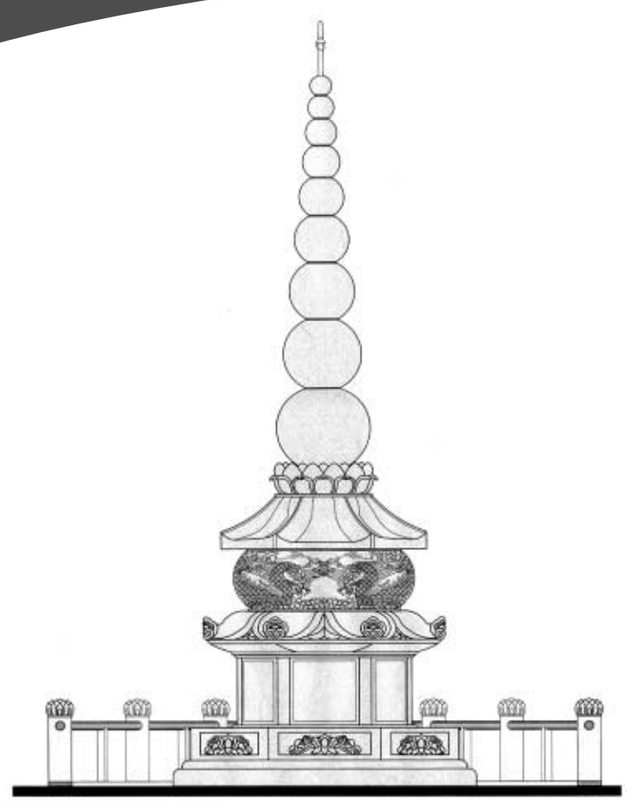
'현대' 만평

심 민 섭



대흥사, 새벽숲길 잠정 중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도량탑 제막식 안내



울산지원 도량탑 입면도(9층)

귀의자성삼보하옵고.
새 봄이 왔다고 하지만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불자 여러분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정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는 오는 4월 20일 도량탑을 봉안하는 법회를 열게 됩니다. 도량탑을 모시는 것은 우리 선원 불사의 큰 획를 긋는 일이 됩니다.
도량탑은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여 마침내는 구정토에 이르라고 세우는 것으로 우리 대웅전 지붕의 우주탑과 함께 삼계로 연결되는 통신처가 될 것입니다.
이 도량탑을 회향하는 공덕으로 인연지은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부디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이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발원 올립니다.

◆ 때 : 불기 2547년 4월 20일 (일) 오후 5시
◆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합장

도량탑 불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2)295-1884, 295-2335

가족애·평화 주제 올 봉축행사 진행

봉축위원회가 당초 확정했던 가족과 함께 한다는 취지의 올해 봉축행사(4월18일~5월8일)를 민족과 인류의 평화로까지 그 의미를 확대한다. 또 서울과 각 지역에서 시민이 함께 하는 봉축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봉축위원회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류평화와 생명존중의 가치와 염원이 전 세계적으로 메아리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봉축행사도 이에 발맞춰 평화와 가족애를 주제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22일 황룡사 9층탑을 형상화한 시청앞 점등식을 '평화의 등탑'으로 명명하는 한편, 5월4일 제등행진에 앞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리는 법요식에서 평화와 인류애를 주제로 한 기원문을 낭독하고, 5월8일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되는 봉축 법요식에서도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한다.

한편, 올해 봉축행사에서는 태국과 일본 대표단이 제등행진에 참가하고, 전국의 시민 게시판과 서울 지하철의 PDP 동영상을 통한 홍보도 이뤄진다.

태국은 태국대사관 주최로 태국 황실에서 사용하는 황금마차를 5월2일 조계사 앞 우정공원에서 제작해 제등행진에 참가하며, 문화공연, 수공예품 전시, 태국 음식 시식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조계사 불사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일문화교류협회 소속 일본 대표단도 이번 제등행진에 가석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 봉축기간 동안에는 서울과 각 지역에서 음악회, 경연대회, 전시회, 연주회, 공모전 등 각종 봉축 기념행사와 자비의 선물 보내기, 난치병 어린이 돕기, 경로잔치 등 자비의 손길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봉축위는 이미 시민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작업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동영상 홍보물이 마련되는 대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에서 광고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 시청앞 황룡사 9층탑 모형 '평화의 등탑'
전국사찰 법요식 때 평화염원 발원문 낭독
태국·일본 대표단 5월 2일 제등행진 참여
지역별 음악회·세미나·자비의 선물보내기

◐경축 기념행사(봉축위원회 제공)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 최	연락처
'아 큰스님' 전시회	4.22~28	법련사 미술관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4.24	KBS 홀	니르바나 실내악단	011-9876-2599
연꽃노래잔치	4.27	동국대 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02-730-9108
불교학술세미나	5.2	동국대 다향관	동국대 문화연구원	02-2260-8507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5.4	밀레니엄플라자	파라미타	02-723-6165
웅변대회	5.4	광명사	불교웅변인협회	02-735-1896
봉축기념 사진전시회	5.4~11	구룡사	불교사진연합회	011-3456-2275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리기대회	5.4~5	화성 신흥사	월간 불광	02-420-3300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5.10~11	목동파리공원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6815
청소년 사경 공모전	5.22까지	파라미타사무국	파라미타	02-723-6165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5.25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02-735-8165

◑지역/지방 봉축행사(봉축위원회 제공)

지역/지방	행사명	일 시	장 소	연락처
제3교구	통일기원 및 광명등 점등법요식	4. 28	통일전망대	033-636-7044
신흥사	무사고 운전기원 연꽃 달아주기	5.6	속초시내	
제4교구	연꽃등 시민과 만들기	4.20	월정사 포교원	033-332-6664
월정사	노인정 및 불우이웃 돕기	5.6	유천, 진부노인정	
제5교구	보은시내 제등행진	5.5	보은읍 시가지	043-543-3615
법주사	도민 안녕 기원법회	5.6	청주 흥덕사지	
제6교구	불교문화 전시회	4.8~5.8	홍성루	041-841-6221
마곡사	어린이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5월	마곡사	
제13교구	봉축탑 점등식	5.5	하동 버스터미널	055-883-1901
쌍계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돕기	5.6		
제25교구	군부대 위문법회	5.4	75사단	031-527-5974
봉선사	봉축 전야제	5.7	봉선사	
의정부사암련	불교 합창제	5.2	시민회관	031-848-6114
원주사암련	봉축 산신대제	4.16	치악산 구룡사	033-732-4800
	연합합창제	4.30	원주 예술회관	
	어린이 백일장	5.5	치악산 구룡사	
청주불교련	목판화 인쇄 시연	4.26	철당간 입구	043-294-0107
	휘호 그리기 대회	5.4	수도원	
천안사암련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	5.8	천안농고	041-557-3223
전주봉축위	등 만들기대회	4.25	불교회관	063-277-3497
	연합합창제	4.30	전북학생회관	
거제 대우	3000배 철야정진	4.26	거제불교회관	055-688-4664
불교청년회	소년소녀가장돕기	5.8	거제불교회관	
구미봉축위	현각스님 초청법회	5.2	상공회의소	054-453-0571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	5.4	남화사	
오산불교련	오산시 1만등 달기	4.30	오산시내	031-283-3656
	초록축제	5.5	초록산	
대구봉축위	김기택 연차 도예전	4.28	대덕문화예술회관	053-253-6388
	불타의 밤	4.30	프린스호텔	
부산불교련	봉축 합창제	4.26	문화회관 대강당	051-867-0501
	부산발전기원 3천배 법회	5.3	부산역 광장	
	부산시민 불교문화축제	5.4	부산역 광장	
조계사	나눔의 장터	5.1~5.8	경내	02-732-2183
	인터넷 성불도 놀이	5.1~	조계사 홈페이지	
봉은사	연꽃전시회 사진 콘테스트	5.1~5.15	경내	02-511-6070
	서원 사탕 나누기	5.8	경내	
도선사	산사음악회	5.8	경내	02-993-3161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18일께 확정

건립엔 대체로 긍정적, 위치문제 이견

문화재청은 18일쯤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장 회의를 열어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분과별 회의를 잇달아 열어 건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고, 문화재위원 대부분이 석굴암 경내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이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논란의 핵심인 전시관의 위치 문제. 분과별 회의 결과를 정리중인 문화재청 담당자는 "석굴암 본존불에서 동남쪽으로 100여m 떨어진 곳에 석굴암 모형을 포함한 역사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애초 전시관 건립을 허가했던 건조물 분과 역시 "현재의 장소가 제일 적절하다고 봤는데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더 좋은 곳을 물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 혹은 유보로 의견을 모은 분과도 전시관 건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립 자체가 백지화 혹은 유보될지, 대체 장소 물색으로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결성된 석굴암·토함산 훼손 대책위원회도 "전시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장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원융화합 의지에 '대타협' 화답

조계종 대사면 급물살 배경과 의미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과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연초 신년하례와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각각 사면 의지를 밝히고, 원로회의에서도 사면 유시를 내림으로써 사면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었다. 그러나 대상자 범위가 98년 징계자로 제한된데다, 멸빈자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가 맞서면서 98년 징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면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이날 사면검토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총무원은 2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종헌 개정 외에는 법적으로 멸빈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향이 급선회되고, 대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일차적으로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장스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융살림'을 강조하며 사면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고, 이날 사면검토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16명의 사면검토위 위원들에게 "화합된 승가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종단개혁 드라이브에 탄력 붙을 듯
사면시기·탈락자 반발무마 숙제로

대사면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종회 각 계파가 '이의 없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사면검토위원회는 종회 내 각 계파를 이끌고 있는 중진급 스님 12명과 총무원 집행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계파 간 이해에 관계없이 '대의'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면검토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대사면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98년 징계자에 국한해 논의가 진행되다, 94년 징계자를 포함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럴 바에야 아예 통합종단 이후의 모든 징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아무런 이견 없이 전면 사면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대사면 결정은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의지와 종단 화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중앙종회 각 계파간의 대타협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로써 법장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이후 가장 큰 화두였던 사면문제를 기대 이상으로 해결하고 종단 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장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종단 개혁 드라이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계파 간 이익을 초월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명실상부한 종단 대의기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몇 가지 숙제도 안게 됐다. 우선 징계자들을 대상으로 사면 신청을 받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부 탈락자들의 반발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면검토위 결의사항에서 나타났듯이 종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승려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다.

또 하나는 사면 시기다. 총무원은 일단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멸빈자들에 대한 사면은 엄격한 심사와 종헌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등 보름 여 밖에 남지 않은 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멸빈자를 제외한 징계자들만 우선 사면되고, 멸빈자들은 추후에 사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둔 면밀하고 다각적인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명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안내

▶주요 행사 일정

행사명	일 시	장 소	집행처
봉축 법요식	5월 8일(목) 오전 10시	조계사 / 전국사암	봉축위원회 조계사
연등축제	5월 4일(일) 낮 12시 ~ 오후 11시		
	불교문화마당 낮 12시~오후 8시	우정국로	봉축위원회
	어울림마당 오후 4시 30분 ~ 6시 30분	동대문운동장	
	제등행진 오후 7시 ~ 9시30분	종 로	
	대동한마당 오후 9시 30분 ~ 11시	우정국로	
	태국연등축제 5월 2일(금) ~ 4일(일)	우정공원	주한 태국대사관
연등놀이	5월 3일(토) 오후 7시	우정국로	봉축위원회
등 전시회	5월 2일(금) ~ 8일(목) 개막 2일 2시	봉은사	봉은사
시청앞 점등식	4월 22일(화) 오후 7시	시청앞 광장	봉축위원회
애기봉 점등식	4월 18일(금) 오후 6시30분	김포 애기봉	

▶경축 기념 행사

행사명	일 시	장 소	집행처	비 고
마음산책 음악회	4월 3일 오후 7시	성균관 대학교600주년 기념관 새천년 홀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	02)737-8803
군장병 찬불가 경연대회	4월 11일	국방부 국방회관	조계종 포교원 군불교 위원회	02)725-5233
'통일의 등' 달기	4월 12일 ~5월 31일	금강산 신계사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02)720-0531

▶경축 기념 행사

행사명	일 시	장 소	집행처	비 고
"아! 큰스님" 전시회	4월22일 ~ 28일	법련사 미술관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월 24일 오후 7시 30분	KBS 홀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형진 단장 011)9876-2599
현대불교 문학상 시상식	4월 26일 오후 6시 30분		현대불교문학회	
연꽃노래잔치	본선 4월 27일 1시	동국대 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02)730-9108
불교학술 세미나	5월 2일 1시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동국대학교 문화연구원	02)2260-8507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5월 4일 1시	종각 밀레니엄 플라자 특설무대	파라미타	02)723-6165
웅변대회	5월 4일 1시	광 명 사	불교웅변인협회	02)735-1896
봉축기념 사진전시회	5월 4일 ~ 5월 11일	구 룡 사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	박봉수 011)3456-2275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5월 4일 ~ 5일 오전 10시	화성 신흥사	월간 불광	02)420-3300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5.10 백일장 5.11 사생대회	목동 파리공원	목동 청소년수련관	02)2646-6815
청소년 사경공모전	3월 17일 ~ 5월 22일	파라미타 사무국	파라미타	02)723-6165
청소년전통예술 경연대회	5월 25일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02)735-8165

▶자비의 손길

행사명	일 시	장 소	집행처	비 고
자비의 선물 보내기	3월24 ~ 5월 8일	군법당, 교도소, 복지시설,소외된이웃	조계사	02)732-2115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월 13일 11시	조계사	조계사 원심회	02)720-4528
난치병 어린이 돕기 일보-백원 모금 삼천배 기도정진	4월 26일	봉은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자비실천 한물결운동	4월14일 ~ 5월 9일	전국사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종달기	4월14일 ~ 5월 8일	전국사찰		
장애인 세상나들이	4월 23일	월정사		
이웃을 위한 희망의등 밝히기	4월 19일 ~ 5월 4일	주요사찰, 신행단체	중앙신도회	02)733-7277
연꽃등 선물	4월 19일 ~ 5월 4일	보훈병원,경찰병원 국립의료원,서울 중앙병원,서울대병원 동대경주병원 등 16개 병원불자회	봉축위원회, 병원법당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4월 20일 10시	석촌초등학교	광림사 연화복지원	02)2202-5831
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처님 마음	4월 20일	수원포교당	수원불교학생회	031)244-8562
무차연등회	5월 1일 ~ 10일	종묘공원	불교 자원봉사연합회	02)723-6258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초청 효도 큰잔치	5월 2일 11시	의정부 시청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031)848-6114
경로잔치, 자비의 쌀 나누기	5월 4일	강일동 경로당	나눔마을	02)429-1517

'등을 선물합시다'

선물용 팔모등 만들기 안내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의 상징인 등(燈)에 자신의 정성과 기원을 담아 우리의 이웃에게 선물하고 함께 나누는 일은 불자의 큰 기쁨이자 공덕입니다. 봉축기간에는 우리의 정성이 담긴 등을 만들고 선물하는 봉축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물용 팔모등 만들기**는 봉축위원회가 추진 중인 '등 나누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 및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작용 교재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 본 등은 장식용 등이며 전기장치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촛불 사용은 금합니다.



◆주문 방법
1. 가 격 : 개당 3,000원(스탠드 포함)
2. 주문처 : 용호 산업 (042-633-7028)
3. 20개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이며 그 이하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02)725-6641 http://www.LLF.or.kr



지하철참사 희생자 위령재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은 6일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지하철 참사 희생자 원혼을 달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일주문



제5차 백일기도 입재식

유수 정토회 대표는 20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정토행자 4차 천일결사 중 제5차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종로구민과 푸른나무심기

지홍 조계사 주지는 5일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푸른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배화여자대학 뒷산에 잣나무 350주, 보리수 6주를 식수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 재선임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는 7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동방대 불교문화 답사여행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불교문화 답사여행 및 위파사나 요가수행체험을 실시했다.



사찰신도회 임원연수교육

마근 속초 신흥사 주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신흥사 교육관에서 사찰신도회 임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033)636-7393



16일 현각스님 초청법회

우학 영남불교대학 학장은 16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8시 두 차례 53선지식 초청법회에 현각스님을 초청한다.



만해도자문화체험 행사

정상옥 대한불교청년회장은 26, 27일 양일간 경기도 여주 걸은 도자체험학교에서 만해도자문화체험 행사를 연다.



참전과 반전 주제로 강연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1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참전과 반전 불교적 담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장학금 · 이웃돕기 일일찻집

정수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장은 18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보문동 팡세에서 장학기금 · 이웃돕기 성금 마련 일일찻집을 연다.



정병조 교수 초청 법회

오상현 보현불교대학 이사장은 30일 오후 7시 보현문화회관에서 정병조 교수 초청 특별 법회를 연다.



대불어 회장에 재추대

정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은 3월 29일 부산 여여선원에서 열린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8인 큰스님 초청 대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7시에 8인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연다. (053)766-3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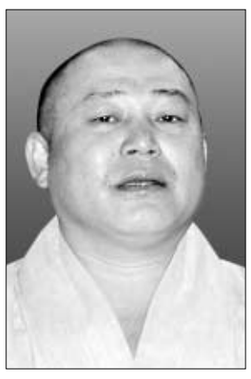


대불련 서울지부 모임

박종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5일 성신여대 수정관에서 서울지부 전체모임인 '프로포즈'를 개최했다.

세미나 통해 사회문제 해결책 제시
동문회에 인권통일 · 학술위 등 설치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장 지암 스님



"동림회가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1 일 오후 4시 동국대 상록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제 6대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장 지암 스님(양평 불광정사 주지 · 사진). 스님은 지난 1월 13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추대됐다.

동문회 1기 자문위원인 지암 스님은 "91년 동국대에 불교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창립한 동림회를 모태로 93년 동문회가 설립된지도 10년이 됐다"며 "이제는 사회 환경 등 대사회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동문회 조직에 인권통일위, 사회복지위, 포교위, 학술위, 의례위, 문화위, 기획실을 만들었다.

스님은 또 "포교기금을 조성해 불교계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일정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불교공동체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91년 동림회 초대 회장을 엮임한 지암스님은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불광사 주지를 엮임했다. 현재 양평 불광정사 주지며, 광덕 스님의 토굴이었던 태능 보현사를 불사중이다.

한편 동림동문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회원은 약 1천여명이 있다. 동림동문회는 94년 개혁회의 9개 동참단체중 하나이다. 동림동문회는 매년 소년소녀가장돕기, 청소년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돕기, 수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사 청년회 절하기대회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8일 법당에서 제 2회 절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55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평소 갈고 닦은 절하기 실력을 겨뤘다. 강미정(30)씨를 비롯한 8명의 불자들이 1등상인 일심상(총무원장), 2등상 환희상, 3등상 정진상을 수상했다.



선재동자원 요사채 기금 바자회

의정부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명)와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정암)'은 8일 의정부시 보육시설 선재동자원 요사채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요사채 건립기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선재동자원(원장 지산)은 조립식 가건물에서 7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법인화 마음산책음악회 개최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사진)은 3일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사단 법인화를 위한 마음산책 음악회를 개최했다. 정목스님의 사회로 1부 기념식과 2부 음악회로 나눠 진행된 음악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자비의 전화 회장 성덕스님, 추진위원장 성관스님(조계종 총무부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규형의 모듬북 연주, LMB의 중창, 한태주 군의 오카리나 연주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라크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명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조성된 후원금은 불교상담개발원의 법인화 기금으로 적립된다.



진각복지재단 설립 5돌 성초종사 등 유공자 표창

효암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사진)는 4일 서울 성북구 진각종 총인원에서 설립 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진각복지발전 유공자 표창에서는 진각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인 성초(남부심인당 주교) 종사와 전 상임이사인 회정(밀각심인당 주교) 대정사가 공로패를 받았으며, △차주영(신내어린이집) △윤가영(용문종합사회복지관)씨가 진각복지인상을 받았다. 또 △김찬영(낙동종합사회복지관) △김학제(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백은수(진각복지재단)씨가 모범후원자상을 △이수영(서울시립노인요양원) △강정열(용문종합사회복지관) △천순희(성북노인종합복지관) △허준수(곰두리네 집)씨가 모범자원봉사자상을 각각 받았다.



삼광사 영위탑 기공식 봉행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10일 도용 종정스님, 운덕 총무원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위탑 기공식을 봉행했다. 도원스님은 "영위탑 건립으로 자손대대로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지혜와 복덕을 닦아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위탑은 총 건평 600평 규모로 200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충효사 효도큰잔치 봉행

부산 충효사(주지 해공)는 7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민족화합 국운융창 기원 방생수륙대재 및 생명사랑 자비실천 효도큰잔치를 봉행했다.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수륙대재는 1부 방생수륙대재, 2부 기원대법회, 3부 생명사랑 자비실천 효도큰잔치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물 파주기 인도에 큰 도움

일시 귀국 지바카병원 결핵관리 김동훈 팀장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지원하고 있는 인도 둥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 마을 우물 파주기 사업으로 마을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콜레라 등으로 큰 피해를 봤던 마을사람들로서는 생명의 물과 같을 겁니다."

6일 인도에서 귀국한 김동훈 인도 지바카 병원 결핵관리팀장(본지 인도 통신원 · 사진). 김 팀장은 결핵관련 검사 방법과 콜레라 대응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한 달 간의 일정으로 귀국했다.

인도 JTS에는 이사장 법륜스님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이후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 현재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18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최근 수자타 아카데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간 40대 주부 2명도 포함돼 있다.

"현재 지바카 병원은 개보수 공사로 한창입니다. 건물 자체뿐 아니라 병원 운영 시스템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겁니다."

인도에서는 약초 등을 이용한 대체의학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큰 외상 등에는 별 효험이 없어 대체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키고 있는 중이다. 지바카 병원에서도 현지 양의사들의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004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분할 납부 가능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 한국향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시각장애인 팔공산 산행대회
제천 장애체험·예방 캠페인
대구경북 정신지체자 축구대회

20일 장애인의 날…불교계 다양한 행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각 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세상 나들이, 장애예방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광맹인불자회는 20일 대구 팔공산으로 산행을 떠난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시각장애인 산행대회는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대구개인택시 정법회가 차량을 지원하고, 대불봉사단에서 점심공양을, 대구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 봉사단 등이 이들의 눈이 되어 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원주 소쩍새마을 등도 평창 월정사와 용인 서울랜드로 '세상 나들이'에 나선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은 18일 제천시 문화회관과 시내 차 없는 거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과 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서울강북장애인복지관은 14~18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24~25일 영주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대구·경북지역 정신지체장애인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광림사 연화복지원도 20일 석촌초교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다. 이밖에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9일 '장애어르신들과 마당놀이 한마당'을, 수원포교당 불교학생회는 20일 수원지역 장애인 150여명을 초청, '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처님 마음' 행사를 개최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장애인의 날' 불교계 단체 행사 〈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연락처
장애인 세상 나들이	4.23	강릉 월정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723-5101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4.20	석촌초등학교	광림사 연화복지원	(02)2202-5831
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처님 마음	4.20	수원포교당	수원불교학생회	(031)244-8562
장애예방캠페인·노래자랑	4.18	제천 문화회관	제천장애인복지관	(043)652-0900
장애인의 날 기념주간	4.14~18	복지관 내	서울강북장애인복지관	(02)989-4251
대구·경북 정신지체	4.24~25	영주	영주장애인복지관	(054)633-6417
장애인 축구대회		시민운동장		
청와대 현장학습	4.29	청와대	김포시장애인 주간보호센터	(031)983-4121
장애어르신들과 마당놀이	4.19	복지관 내	서울은평노인복지관	(02)385-1315
장애인 놀이 한마당	4.18	시설 내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031)829-8294
장애인 나들이	4.24	용인 서울랜드	원주 소쩍새마을	(033)762-9870
전국 시각장애인 산행대회	4.20	대구 팔공산	대광맹인불자회	(053)256-0114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두대간 훼손 주범"

녹색연합, 30곳 선정 조사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두대간 산림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 보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녹색연합이 2002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약 1년간 백두대간 일대의 대규모 난개발 30곳을 선정·조사함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30곳의 대규모 난개발 사업 중 국책사업이 22곳이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즉 백두대간 산림훼손 주범이 산업자원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고, 사업 시행 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해 환경적으로 예외적용을 두고 있어, 대규모 산림벌채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산, 댐, 도로 등의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산림벌채 등 산림생태계 훼손과 잠식을 발생시켜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식물의 서식처인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광산개발의 경우 백두대간의 지형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어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 원인으로 지적됐다.

남동우 기자

'불교는 어렵다?' 주제 토론회

생활속 뿌리 내리지 못한 원인 분석

생활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불교의 현실과 한계를 토론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격월간 인드라망 편집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서울사무실에서 '불교는 어렵다?'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 내용으로는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열풍의 정체는 무엇인가? ▲불교, 과연 어려운가? ▲무엇이 한국불교를 어렵게 만들었나? ▲쉽게 쓰고, 쉽게 말하는 생활 속의 불교를 이루는 방안은? ▲불교의 잃어버린 역사성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길은? 등이다.

이윤주원 편집위원장은 "불교의 관념성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강릉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격 서비스

15일 개관, 물리치료실·컴퓨터실 등 갖춰

월정사가 운영하는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현해)이 15일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지관은 대지 5천 6백여 평, 건평 6백3십여 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물리치료실, 정보실, 방과후 교실, 컴퓨터 교육실, 상담실, 직업적응 훈련실, 언어·심리 치료실 등을 갖췄다.

강릉장애인복지관은 강릉시에 등록된 7천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심리 언어 교육 직업 등에 대한 진단·판정사업, 사회교육 자원봉사 계몽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등 연구 개발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인기가수 '머루와 다래', 극락사 사물놀이패 등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김철우 기자



군불교합창제

군불교위원회는 11일 국방부 태극홀에서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합창제에서 1군사령부 법웅사 합창단, 특전사령부 사자사 합창단, 육군본부 호국사 합창단, 국방부 원광사 합창단은 '부처님 내게 오셨네' '연꽃' 등을 불렀다. 사진은 수기사 중창단이 '마음이 부처라면'을 부르는 장면.

사진=고영배 기자

생명나눔실천회 명칭 '생명나눔실천본부'로

생명나눔실천회가 생명나눔실천본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비의 헌혈봉사단이 구성돼 혈액관련 질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혈액질환자를 위한 헌혈증 지원 및 혈소판 헌혈 봉사자를 발굴해 환자를 지원하는 환자지원 사업 등 2003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사장 법장스님, 부이사장 성운스님, 이사 성광·광우스님 등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또 생명나눔실천회를 생명나눔실천본부로 개명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혜숙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으로 직책이 변경됐다. 남동우 기자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5억2천만원에 낙찰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10일 서울 평창동 서울옥션하우스에서 열린 (주)서울옥션 주최 '제70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에서 5억2천만원(수수료 제외)에 팔렸다.

고려불화가 국내 경매시장에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낙찰가 5억2천만원은 국내 고미술품 경매 사상 두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국내 최고가는 지난 2000년 7억원에 팔린 겸재 정선의 '노송영지'이다.

한 일본인이 소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수월관음도'는 보통의 수월관음도가 한쪽 발은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발은 바위나 연꽃에 올려놓은 자세인데 비해 오른발을 바위에 올리고 왼발 또한 연꽃 위에 올려놓은 특이한 형태. 그러나 구도나 세부 묘사, 색채가 고려불화의 전형적인 표현기법을 따르고 있어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함께 나온 높이 5cm의 통일신라시대 소형 금동여래입상은 4백만원에 낙찰됐다.

권형진 기자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위, 건교부 장관 면담

대안노선 재검토위 구성 합의

"'공정한 틀' 갖춰야만 참여할 것"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공동 집행위원장 도관스님)는 9일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시민단체들의 여론의 무시하고 조기개통 입장만을 고수하는 부산시를 강력 비판했다.

이날 정여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정산 천성산 관통 노선 고수와 관변단체를 동원, 조기 개통을 획책하는 부산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종교대책위의 '대안노선 검토위원회' 참여는 금정산과 천성산을 뚫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모든 노선이 검토돼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시민종교대책위는 5일 범어사를 방문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총리실 산하에 대안노선 재검토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도관스님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대안노선 검토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건교부가 기존 관통노선을 결정한 전문가들을 재검토위원회에서 배제하고 공정한 틀을 갖추어야만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천미희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육법등(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빛이 윌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1)986-0277~8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진각종 진각복지재단이 4월 4일 창립 5주년을 맞았다. 지난 98년 설립 후 꾸준한 양적 성장을 보인 진각복지재단은 현재 산하 조직만 12개 지부, 2개 국제지부를 두고 있으며, 수탁 또는 자체 설립 시설은 종합복지관 · 어린이 집 등 총 22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풀어야 할 적잖은 과제도 쌓여있다. 미약한 재정 확충 및 후원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단 활성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진각복지재단 5돌 '한 일'과 '할 일'

눈부신 성장…내실 다질 때

종합복지관 수탁 · 자체시설 총 22개

후원금 모금 · 자원봉사단 활성화해야

노인병원 · 건물임대 등 수익사업 추진

▲얼마나 성장했나?

양적 성장으로만 따진다면, 진각복지재단은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98년 출범 첫해 진각복지재단은 관악구로부터 양지어린이 집을 위탁받은데 이어 99년 서울시에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부산시로부터 낙동종합복지관을 수탁했다. 또 2000년에는 서울 도봉서원종합복지관을, 2001년 대전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노인요양원 등을 위탁받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9개의 어린이 집과 1개의 청소년수련관 등을 운영하고, 2000년에는 사회복지응급서비스인 '진각복지 119'를 실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1999년 스리랑카와 네팔에 해외지부를 설립하고, 현지에 직업훈련센터와 한국홍보관 등을 여는 등 국제구호사업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부터 진각복지재단은 외형에 걸맞는 '내실 다지기'에 들어갈 때가 됐다. 시설 지원과 종사자 자질 높이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후원금 모금, 자원봉사단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할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우선 재정안정화를 위한 후원자 확대 및 후원금 모금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5년 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후원 관련 사업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자원봉사활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99년 발단식을 가진 진각사회봉사단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원봉사자의 단순 교육과 파견에서 벗어나, '교육-파견-재교육-보상' 등의 자원봉사 관리 · 순환시스템을 재단 중앙사무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재단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다. 2002년의 경우, 집행 예산 12억여 원 가운데 80% 넘는 예산이 산하 시설의 재정 지원 및 법인사무처 경상비 등으로 집행됐다. 이에 따라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에 대해 진각복지재단 이미성 과장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라 시설 지원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들 시설의 지원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원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 분야에 재원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사업 추진이나 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앞으로의 계획

진각복지재단이 올해 밝힌 목표는 '참여복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단은 문화 · 민족 · 인권 등의 3대 지표를 내걸었다. '찾아가는 복지' 실천상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사업 및 후원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후원금 모금 방법 체계화 · 다양화 △후원자 모집과 관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지역별 거점화를 통한 자원봉사단 활성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재단의 예산 집행은 그간 효율적으로 집행됐다. 다만 재단의 기본 자산과 자립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정의 토대 마련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노인병원 · 건물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현재 10%에 못 미치는 예산 대비 후원금 비율을 점차적 높이는 후원금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현해탄 건너며 수륙대재 봉행

미륵종, 3박4일 일정 日성지순례도

"전쟁에 따른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해탄을 건너며 봉행하는 수륙용왕대재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이자, 미륵 10선법을 더욱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일 부산 중앙동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출발, 현해탄을 건너는 배안에서 열린 미륵종의 현해탄 수륙대재에서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이렇게 봉행의미를 밝혔다.

300여명이 동참한 이번 행사는 현해탄을 건너며 수 · 육 · 공 영가를 천도하는 수륙재와 함께 일본 성지순례로 4월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괘불 이운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헌화, 발원문, 법어 순서로 이어졌으며 시종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4시간만에 마무리됐다.

동참한 불자들은 "현해탄에서 봉행하는 수륙대재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모든 영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도 다함께 행복해졌으면 한다"며 108배 기도와 지장보살 정근으로 마음을 모았다.

특히 이번 일본 성지순례에서는 길이 41m의 와불 속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남장원을 방문, 일본불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한국불교미륵종과 일본 남장원과의 교류를 약속했다.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한국불교와 일본 불교와의 활기찬 교류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있을 한일 불교 행사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3박 4일 동안 이어진 미륵종 현해탄 수륙대재는 아소산 방문, 벳부 방문, 회향법회 등의 일정을 마치고 6일 회향됐다. 일본=천미희 기자



◇미륵종은 3일 부산항을 출발, 현해탄을 건너는 배안에서 수륙대재를 봉행하고 6일까지 일본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게시판

강좌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은 30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를 연다. 내용은 노인 우울증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이며, 부천시 정신보건센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032)325-2161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 센터 내 강당에서 진행한다. (02)365-3677

▲참나찾기 교육원이 무료 화상 참선방을 열었다. 접속 방법은 세이클럽에서 종교일반 참나찾기교육클럽(club.sayclub.com/@chamna111)에 가입하면 된다. (017)609-9068

행사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29일 개관 8주년을 맞아 관내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경로잔치를 연다. (02)852-0525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20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알뜰시장'을 연다. 재활용 생활용품, 무공해 음식과 비누 등 환경상품들이 이날 선보인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된다. (02)741-4696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공연단'은 5월 10일 오후 3시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공연한다. (02)385-1351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은 25일 부산 켄베이션 센터에서 '불교계 보육사업의 동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제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51)868-0951

구인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은 시설 관리인과 사회재활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시설 관리의 경우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며, 재활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면 지원가능하다. 마감은 채용할 때까지. (02)921-6410

▲자양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조리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관련 업무 경험자로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문의 (02)458-1664

이전

▲울산양로원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산 350-3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52)262-2023

▲한국사찰음식연구소(소장 이여영)는 서울시 종로구 화동 87-1 감로당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3210-3397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종찬)는 최근 서울 종로구 낙원동 203번지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조계종

기본선원 22일 입방갈마

조계종 기본선원은 22일 입방갈마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행자교육 20~24기를 수료한 사미(니)로, 22일 갈마를 거쳐 선발한다. 희망자는 입방원서와 청규 서약서, 은사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기본선원 교육 1년차는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 참선정진 교과교육과 습의를 배운다.

태고종

효행체험 수기 공모

태고종과 기관지 <한국불교>는 효행 체험 수기와 미담을 공모한다. 수기 공모는 태고종이 올해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효행불교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글은 형식에 관계없이 '효행불교운동'과 부합되는 내용이면 된다. 올 연중 <한국불교>에 접수하면 된다. (02)745-1614

선재동자원 방문 법회

태고종 젊은 승려들의 모임인 보현도량(회장 도명)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22일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복지시설인 선재동자원을 방문, 나눔의 법회를 봉행한다. 보현도량 회원들과 불자 2백여명이 동참해 열리는 이날 법회에서는 불사후원금, 컴퓨터, 라면, 분유 등 후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천태종

남부지역 어린이 체육대회

천태종은 27일 대구 경북기계공고 운동장에서 제14회 남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영남 · 호남 · 충청 지역 등 남부지역 사찰의 어린이 불자들과 지도교사, 해당 사찰 신도회 임원 등이 참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피구, 단체 줄넘기, 사다리 계주, 파도타기, 발풍선 터트리기 등 10여 종목으로 진행된다.

천태종은 지역간 교류를 이끌어내고 단결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번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진각종

509연꽃OP 24일 점등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24일 경기도 파주 비룡부대 509연꽃OP에서 종단 스승, 서울교구 신교도, 이광동 비룡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염원 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과 이광동 부대장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되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1천여 개의 연등은 이날 점등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총지종

광주 법황사 불사 마무리

총지종은 광주 법황사 불사를 마무리했다. 법황사(주교 법수원)는 총공사비 17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천여평 규모로 완공했으며, 법당인 서원당과 사무실, 요사 등을 갖추고 있다. 2001년 12월 착공해 1년 4개월여 만에 완공된 법황사는 84년 호남지역의 밀법 포교도량으로 광주시 금동의 독립주택을 임대해 원덕서원당으로 창건된 이래 85년 구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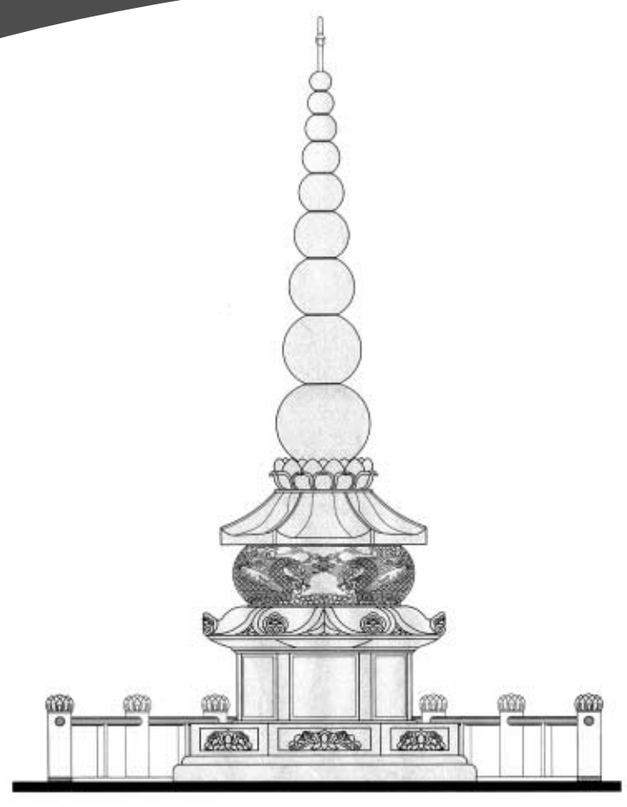
본원종

수륙고혼 천도법회 봉행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4일 충주시 가금면 중앙탑 광장에서 남북 평화통일 및 국태민안 기원 수륙고혼 천도대법회를 봉행하고 물고기를 방생했다. 중앙종회의장 대운스님, 원로의원 법룡스님 등 종단 중진스님을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모인 1천여 대중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대화스님은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평화가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도량탑 제막식 안내



울산지원 도량탑 입면도(9층)

귀의자성삼보하옵고.
새 봄이 왔다고 하지만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불자 여러분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정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는 오는 4월 20일 도량탑을 봉안하는 법회를 열게 됩니다. 도량탑을 모시는 것은 우리 선원 불사의 큰 획를 긋는 일이 됩니다.
도량탑은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여 마침내는 구정토에 이르라고 세우는 것으로 우리 대웅전 지붕의 우주탑과 함께 삼계로 연결되는 통신처가 될 것입니다.
이 도량탑을 회향하는 공덕으로 인연지은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부디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이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발원 올립니다.

◆ 때 : 불기 2547년 4월 20일 (일) 오후 5시
◆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합장

도량탑 불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2)295-1884, 295-2335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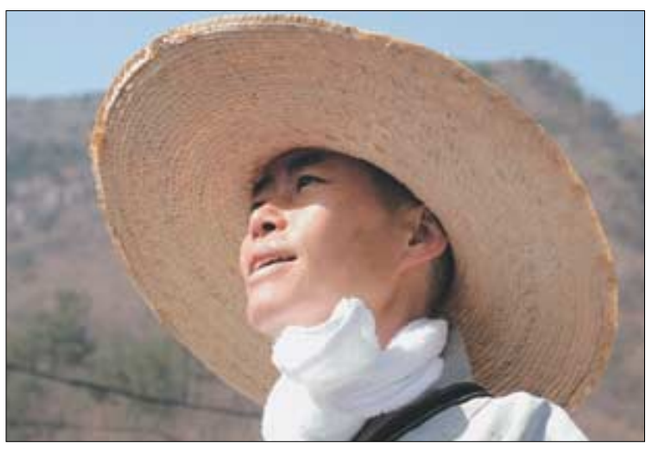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천성산 계곡 이렇게 예뻐요” 산길 걸으며 봄내음에 ‘흠뻑’

‘얼레지 꽃길 지나 암자만나기’ 산행



◇얼레지 꽃길 지나 암자 만나기 행사 참가자들이 천성산계곡의 바위틈 웅덩이에서 도롱뇽 알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사진=박원구 기자



◇지율스님이 3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뜻을 갖이 한 사람들과 천성산에 올랐다.

“인간이 돌아갈 곳은 결국 자연입니다. 천성산의 봄꽃과 맑은 공기를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4월 6일, 지율스님은 38일간의 단식을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천성산에 올랐다.

하루에도 서너번씩 홀로 오르내리던 산길을 38일 동안 마음을 함께 했던 이들, 그리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가족단위의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했다.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뭇가지 끝의 새순들과 여기저기 숨은 듯 피어난 작은 풀꽃들, 군락을 이룬 얼레지와 현호색을 만나며 금정산 천성산 순례에 동참했던 분도수녀회 수녀님들과 생후 6개월의 아이까지 초록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들었다.

38일간 단식 회향 지율스님이 안내

들꽃에 눈맞춤, ‘천성산 지키기’ 육행시 짓기

“자연사랑 · 법회 어우러진 멋진 행사”

‘얼레지 꽃길 지나 암자 만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산행은 지율스님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초록의 공명’이라는 환경모임에서 준비했다.

지율스님이 안내를 맡은 산행은 내원사 주차장을 출발, 노전암을 지나 계곡을 따라 걸으며 얼레지, 현호색, 제비꽃, 진달래 등 여기 저기 피어난 봄꽃을 마주하며 조계암으로 오르는 5km 정도의 코스로 진행됐다. 가족단위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준비해온 야생화 도감을 뒤적이며 들꽃의 이름을 익히기도 하고, 지율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풀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군락을 이룬 얼레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 배웠어요”

참가자 김수길씨 가족

“도롱뇽 알을 본 건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얼레지, 현호색도 참 예뻤어요. 자주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동생 원경(5살)이와 엄마(박복희), 아버지(김수길)와 참석한 초등학생 기영(금창초 5)이는 ‘봄에 피는 야생화’라는 들꽃 책자 속에서 얼레지를 펼쳐 보인다.

옆에 있던 동생 원경이도 “참새, 진달래, 개나리를 봤다”며 하루종일 본 것들을 가만히 떠올리며 다시 오고 싶냐는 엄마의 물음에 선선히 “또 올꺼야.” 하고 답한다.

“아이들과 함께 오니까 아이들이 꽃을 보고, 나무를 만져보면서 생태나 환경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울 수 있어 참 좋았어요. 스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매월 첫째주는 지율스님과 함께 하는 산행을 위해 비워둘 겁니다.”

“아이들이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것 같다”는 김수길씨의 말은 지율스님의 말이자 ‘초록의 공명’이 하고픈 말이었다.

산을 오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멈췄다. 곧이어 아이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도롱뇽 알이다! 개구리알도 있다!” 한줌의 물만 겨우 남은 바위틈 웅덩이에 개구리와 도롱뇽의 알이 함께 있었다. 빗물이 고인 곳에 개구리와 도롱뇽이 알을 낳은 모양인데 고인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그대로 두면 죽고 말지도 모른다는 지율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참가자들은 계곡으로 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알을 감싸쥔 사람들의 표정엔, 생명을 살리겠다는 긴장과 경이로움이 넘쳐났다.

“고속철이 우리 계곡을 관통하게 되면 이런 생물들이 겨울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결국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다른 생명들까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어요.”

너무 쉽사리 파괴될 환경과 생명의 문제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손안에서 느껴지던 그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마음 속에 차 오른다. 이번 산행이 아니었다면 막연한 관념에 그쳤을지도 모를, 생명 사랑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한숨을 고르고 다시 산길을 오르니 지대가 높아질수록 얼레지가 곱다. 점점이 흩어져 군락을 이룬 현호색과 연분홍 진달래빛에 감탄이 절로 난다. 별꽃도 앙증맞게 빛을 발한다. 양지꽃의 작디작은 꽃망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햇빛 든 양지처럼 환해진다.

“꽃은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아요. 들꽃을 감상해 보고 싶다면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냥 지나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봄꽃에 취해 걷다보니 어느새 조계암. 암자에서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나니 함께한 모두는 시인이 된다. ‘천성산 지키기’라는 육행시 짓기에서는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고속철 관통을 반대하는 시가 쏟아져 나오면서 천성산의 풀꽃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됐다.

TV에서 단식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산행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장련옥(60, 법명 상락화)보살은 “직접 와 보니 천성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 것을 알겠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겠죠”라고 말한다.

또 다른 참가자 이기선(48. 고리 원자력발전소)씨는 “스님과 함께 한 이번 산행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자연사랑과 법회가 한데 어우러진 멋진 시간이었습니다”며 “앞으로 직장 동료나 함께 활동하는 불자들에게 알려서 함께 할 겁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지율스님은 행사를 마치면서 “생명 파괴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초록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천성산 문제를 비롯한 모든 환경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초록이 되고 공명의 첫 울림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쪽의 소리굽쇠를 치면 다른 쪽의 소리굽쇠까지 같이 울리는걸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울림이 전해져 마침내 생명과 환경 사랑의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초록이 되고, 울림이 되려고 합니다.”

‘초록의 공명’은 이번 산행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산행을 정례화한다. 또한 셋째주 일요일에는 천성산의 이모저모와 생태적 가치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피는 전문가를 위한 산행도 준비중이다.

1200종이 넘는 들꽃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천성산, 5월이면 피나물 군락과 은방울꽃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5월 산행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천성산=천미희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 음양오행의 화 (火) 〉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조계종은 포교원 주관으로 96년부터 신도등록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신도들의 재적사찰 갖기와 조직력 확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신도등록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등록은 사업의 존폐에 대한 재논의를 포함해 활성화대책 마련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놓였다.

조계종 신도등록 지지부진… 해법은?

본·말사 중심, 총무원 지원 따라야

▣실질 신도 7만여명

'조계종 신도등록 26만3천여 명, 교무금 납부율 13.9%.' 이것이 조계종이 96년부터 시작한 신도등록의 7년 누계다. 이중 해가 바뀌어 갱신한 것을 포함한 2003년 3월말 현재 등록 신도는 7만여명이 전부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한 실적이다.

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조계종 신도등록 현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장·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교무금 납부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신도법의 교무금 납부 의무를 따르는 조계종의 실질적인 신도는 7만여 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 남성신도의 수는 여성신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신도등록사업 시행초기인 96~97년을 제외하고는 한해 등록인원이 4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명이라도 신도등록을 한 사찰은 조계종 전체 2,600여 사찰 가운데 1,500여 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교무금을 납부해 신도등록을 갱신하는 사찰은 700여곳으로, 실질적으로 참여의지가 있는 사찰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7년 동안 아예 신도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이 1,100여 곳에 이르고, 이를 포함해 1,900여 곳이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눈에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신도등록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이후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감소하고 20~40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신도등록 현황 자료제공:조계종 포교원

년 도	등록 인원(명)	교무금 납부율(%)
1996	57,237	
1997	53,377	24
1998	37,423	16
1999	35,179	17.9
2000	26,795	10.9
2001	25,705	13.9
2002	27,973	12.1
합 계	263,689	13.9

◆교구별 현황 2002년 12월 31일 현재

교 구	본 사	인 원	교 구	본 사	인 원
직할	조계사	60,267	13	쌍계사	6,434
2	용주사	9,310	14	범어사	21,288
3	신흥사	3,266	15	통도사	25,963
4	월정사	6,332	16	고운사	3,942
5	법주사	8,926	17	금산사	7,526
6	마곡사	16,580	18	백양사	4,642
7	수덕사	4,261	19	화엄사	4,528
8	직지사	9,168	21	송광사	7,604
9	동화사	15,694	22	대흥사	3,111
10	은해사	9,978	23	관음사	651
11	불국사	15,023	24	선운사	2,658
12	해인사	10,284	25	봉선사	5,855



그림 · 김영민

등록자 26만명 … 교무금 납부 7만명 불과

2,600여 사찰중 1명도 없는 사찰 1,100곳

채 무리하게 시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심지어 신도등록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의 행정력이 교구본사와 말사까지 이어지지 못한데다가 조계종이 추정하는 신도수(1천만)의 4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진 실적에서 기인했다. 이에 '힘없는 포교원' '능력없는 포교원'이라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실정이다.

▣의무만 지우는 신도등록

신도등록을 위한 조계종 포교원의 예산은 1억여원에 불과, 조계종이 과연 신도등록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신도등록 활성화 여부가 담당기관인 조계종 포교원보다 교구본사와 해당 사찰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찰에서도 신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신도등록을 종단 차원에서 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신도등록을 통해 신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전혀 없는 점도 지지부진한 결과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신도등록을 하면 국립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신도들의 불만을 사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따라서 교무금을 내면서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현행 제도는 조계종 신도로서의 자발적 의무 이행에만 의존하는 무책임한 종책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예산·관련인원 확대 등 실질 지원 시급

포교관계자·주지·신도회 임원 교육도

▣포교원 위상 강화돼야

이의 개선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올 상반기중 온라인을 통한 신도등록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중 신도등록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미비점 보완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포교원의 이같은 계획은 근본적인 원인을 망각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신도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계종 포교원 뿐만 아니라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가 연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등록이 부진한 원인이 단순히 포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무행정 체계상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종단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포교 예산과 인력 확대, 신도등록현황에 따른 주지 인사고과 반영과 같은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조계종 포교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도등록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교구본사 포교 관계자와 말사 주지, 신도회 임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신행프로그램과 연계한 신도등록 및 교무금 납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기획실장

'이라크평화' 걷기명상 동참기

다른 사람의 평화 깨트리지 않고 조용히 '우리주장' 모두 하나되기

바쁜 세상살이에서 한가롭게 걷는다는 것은 마음먹지 않고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더욱이 나무늘보처럼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벌서는 듯한 느낌마저 들 것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지자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의 걷기 명상을 점심시간마다 진행했다. 조계사에서 출발해 인사동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평소의 걸음으로는 넉넉잡아 20분 정도의 거리다. 한 10명 정도가 차례로 걷는데 앞 뒤 거리가 5미터 정도 되는 데다, 아주 천천히 걷기 때문에 혼자서 걷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른바 위빠사나 명상이나 자비명상 같은 것을 어쩌다 수행해 본 경험이 그나마 밑천이 되어서인지 걷기 명상이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걷기 명상도 사회참여의 중요한 방법인 '시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바닥의 느낌과 들고나는 숨결에 마음을 모으고 눈을 땅에 떨구고 천천히 인사동으로 접어들었다. 주위 사람들이 지나가는 느낌은 자동차처럼 빠르게 여겨졌다. 길거리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천히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여기기에 충분한 것 같다. 그러나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치 채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였고, 그 중 한가로운 사람들만이 걷기명상의 목적을 알아채고는 눈여겨볼 따름이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탁발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맨 앞에 서시고 그 뒤로 아난과 상수제자들을 비롯한 출가수행자들이 바루를 받쳐 들고 줄을 지어 평화롭게 걷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을까. 만일 그때 부처님께서 걷는 길 앞에 진창이라도 있었다면 나 또한 전생에 부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저절로 그 위에 몸을 엎드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반응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걷기 명상을 기쁘게 마쳤다. 조계사에서 산회하고 사무실로 걸어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쳤다. 시민사회단체는 하는 일 대부분이 강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 일의 성격 때문에 자기성찰과 내면의 평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못할 때에 강한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이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은 탤런트와 같이 유명한 시민운동가 몇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림 없는 평화로움과 이해심, 관용과 배려의 마음을 지니고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지향하기에 더욱 그렇다. 비록 걷기 명상이라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인식시키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다른 이들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데 만족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화끈하게 삼보일배, 오체투지, 108배 같은 방법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사람들에게 별다른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조용히 전달할 수 있고, 걷기 명상을 하는 사람 스스로의 수행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주의집중을 못하는 어린 비구에게 기름동이를 이고 시장을 가로질러 걸으라고 하신 일화가 생각난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름동이를 머리에 인 듯이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참 선 교 육 (선수행입문서)

♪♬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재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제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가 음식]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심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질 4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禪) 낱권 판매 가능 (1,500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안내 : 참선교육 60기 교육 (4월 22일 화) 오전 10시, 오후 7시 교육비 3만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직장불자회 봉축행사 "푸짐해요"

지역·근무특성 따라 다채로운 준비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 직장·직능불자회들은 어떤 봉축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을까? 지역, 근무환경, 직무 특성에 따른 이들 직장불자회의 봉축 맞이 풍경은 직장 특성을 담는 '등 달기 행사'에서부터 '이웃과 함께하기', '근무 현장에서 봉축 맞기'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일터 불심'의 봉축 준비. 어떤 행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본다.

불자교정인련 **재소자와 함께 '참회의 등' 달기**

가수불자회 **동대문운동장·조계사앞 공연**

병원불자련 **병실·사무실 등 연꽃·연등 장엄**

◑직장 특성을 살린 '등 달기'=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의 전국 41개 지회는 5월 봉축 주간 전후로 일제히 자체법회를 봉행한다. 또 지역 봉축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불자재소자들과 '참회의 등'을 제작해 교도소 내를 장엄한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도 특색 있는 등 달기 행사를 벌인다. 전국 21개 소속 단위 기관 청사 및 역사에 '무사고 기원의 등'을 5월 8일 전후 1주일 동안 내건다. 특히 19일 경북 구미시 도리사에서 '무사고 기원 철도불자 연합법회 및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지역민을 위한 봉축탑 점등법회도 연다.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는 5월초에 은평구 불교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평구청 광장에서 '나라와 은평구민을 위한 봉축탑 점등법회'를 연다.

◑'이웃과 함께' 봉축을= 창원 두산중공업 법우회는 20일 경남 고성군 아동복지 시설인 보리수동산을 찾는다. 법우회 내 자원봉사 모임 '함께 가는 길'이 주축이 돼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보리수동산 체육대회가 열린다. 대한가수불자회는 서울 동대문운동장과 조계사 일대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때 거리공연에 나선다. 또 27일에는 육군 1군단 및 경기도 자비원을 방문, 위문 공연을 펼친다. '염주와 목탁 달아주기' 운동도 펼쳐진다. 불교방송통신원불자회는 5월초 서울 서교동 청기와 주유소 앞에서 택시와 버스, 자가용 등 3천여 대의 차량에 염주와 장식용 목탁을 달아준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장과 함께하는 봉축 모임도 마련한다. 서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지난 98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어온 소년·소녀가장 6가구를 방문,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예정이다.

◑'근무 현장에서 봉축을 맞는다'= 전국경찰불교회의 2천 여 회원들은 안전한 봉축행사 진행을 위해 '근무 현장'에서 봉축을 맞는다. 특히 사찰 경비 지원을 비롯해 방화 및 훼불 사건 대비, 사찰 교통정리 지원 등을 맡으면서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도 병실에서 환자들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한다. 40여 병원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사무실과 병실을 연꽃과 연등으로 장엄한다. 특히 한국전력 한일병원 반야회는 5월 2일 병원 내 법당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그림·김영민



경기 양평경찰서 불교회 창립

◇경기 양평경찰서가 3일 서내 3층 대강당에서 불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박영관 불교회장의 경과보고, 초대 지도법사 화암 스님(경기 사나사 주지)의 법어, 경승단 사무총장 일관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경찰불교회 전용찬 고문 경희대서 법학박사 학위



전국경찰불교회 전용찬 고문(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사진)이 최근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사회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의 기초>란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경찰청장을 역임하고 경찰공제회 상임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 고문은 이 논문에서 '경찰의 치안 및 법질서 유지 활동은 행정적 사회 간접자본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 활동의 중점을 지시가 아닌 '보호와 봉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서로는 <무궁화동산에 핀 만상>, <아침풍경> 등이 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경찰불교회 창립 2돌 기념 수계법회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경찰청 수사국장)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김천 직지사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정기총회 안건은 1기 집행부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집행부 구성, 전국 경찰불교회 현황 파악 결과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수계법회는 경승단장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을 계사로 봉행된다.

감사원불자회 보리암 등 성지순례

감사원불자회(회장 장광명·감사원4국장)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남해 보리암, 구례 화엄사, 남원 실상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순례는 불자회원 100여명이 참석하며, 문의 (011)616-3869.

단체장



보리수 마을서 자원봉사

전경도 창원 두산중공업 법우회장은 13일 자체 봉사 모임 '함께 가는 길'과 함께 인근 복지시설 보리수마을을 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경찰청 봉축 법회

박재진 경찰청 불교회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 2층 대강당에서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국세청 보리회와 공동법회

이선희 세무사불자회장은 11일 서울 조계사 덕왕전에서 국세청 보리회와 함께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철도 교통안전 캠페인

박우락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4월 철도청 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15일 서울 성북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우리불자회는요

서울대 교직원불자모임 '불이회'

불이회는 서울대학교 내 교수 및 직원들의 불교 신행 활동을 위해 지난 1994년에 창립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 농업생명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으며, 올해부터는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과 함께, 명실공히 서울대학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불교 신행단체로 확대됐습니다. 불이회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그리고 회원들의 문집인 <불이회지> 편집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40여명으로, 회장은 농업생명대학 권순국 교수, 교수 부회장에 임승빈 교수, 직원 부회장에 박재구 학군단장이 맡고 있으며, 고문은 전 회장이었던 전재근 교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이회는 '회원들의 유대강화와 불교 신행을 통한 보살도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불이회는 정기적 행사인 분기별 사찰순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대 20여 전통사찰을 돌며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정진을 해왔습니다. 또 외부 강사와 스님들을 초청, 법문을 주고 받는 법담회를 지난 1998년부터 열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특정 주제를 발제자가 선정, 격의없이 불법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발제자로 모신 분만 해도 순천 성자암 소현 스님, 아바타 명상가인 김희균 선생님, 서울고등법원 권남혁 부장판사 등 계층 또한 다양합니다.

불이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지난 2001년 개설한 홈페이지(www.buddhabree.co.kr)입니다. 회원 문집인 <불이회지>를 통합 흡수하면서, 회원들 간 나눔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불이회 홈페이지는 비단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비불교자들에게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질의방을 만들어 놓아, 불이회 교수님들이 일일 인터넷상에서 답변과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요.

사실 초창기에는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대학 교·직원이라는 구성 회원의 특성상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교수들과 일반 직원의 생활반경의 차이로 원활한 교류가 곤란했지요.

회원 유대강화·신행 통한 보살도 실천
각 단과대학별로 불자회 결성 이끌 터


◇회원들이 문경 봉암사에서 열린 사찰순례법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불이회는 전체 교·직원 모임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대학 내 단과대학에 계신 불자 교수 및 직원들을 일일이 만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단과대별 불자회 결성을 유도하고, 자체법회를 매달 열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불교학생회 지원활동도 강화해 청년포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교수·직원·학생 불자들이 동참하는 봉축대법회를 봉행해, 대학 내 '불교바람'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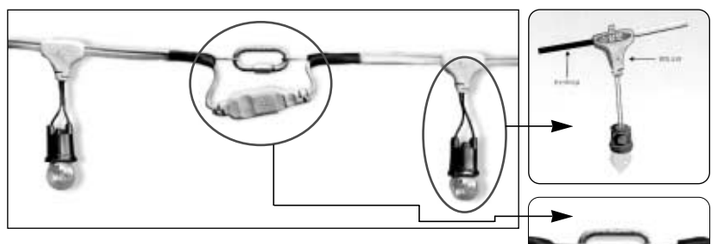
■우희종 총무(수의대 교수)

삼 보 전 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1-9686-3676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 천도지장도량
● 수시접수 中
● 태아영가 동자상 조성불사 中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보현정사
(서울 교대부근)
02)583-1080
016-321-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실 공양주 구함
▷강원도 강릉
033)661-5878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 보살님 구 함
▷서울 서대문구
(월 80만원, 60세미만)
02)394-9018
017-236-8761

신심있고 성실한 판매직원을 구합니다
⊙ 나이키 대리점
⊙ 오래근무하실분
⊙ 식사(2회)제공.
⊙ 급여는 상담후 결정
011)283-3569

부전스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 김포위치
011-9710-02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545-6531
011-422-6757

악신에게 시달리십니까?
책임지고 천도해 드립니다.
천도가 잘되고 안됨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031)532-66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평택
031)683-5820

사찰에서 운전하실 봉고 기사님 구합니다
▷ 부 산
051)542-4630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 운 역 학 원 02)723-7449/011)9638-8229

공양주 겸 사무장님 모십니다
▷40~50세까지
▷월 보시 80만원
(목욕비지급, 월 3박4일 휴가)
▷경북 청송
054)872-4183
011)810-0698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 가평
031)584-1541
011-9723-09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오래 계실분
▷ 부부도 가능
011)735-8887

암자를 직접 운영하실 비구니 및 비구스님 모십니다
▷ 경북 의성
017)813-9126

오래된 천식, 폐병, 심장병, 부인병에 좋은 토종약초인 **곰보배추**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자료보내드립니다.
디스크, 요통, 관절염, 신경통, 타박상, 어혈에 명약인 **초오부자탕** 필요하신분 상담해드립니다.
약사여래원 043)645-0462 011-748-7604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연수 및 수련 장소 제공
1. 초 · 중 · 고등학생 수련이나 대학생 MT 환영
2. 일반 직장인 및 단기간 수련법회 하실 분도 가능
※ 경관이 수려하고 강을 끼고 있어 MT나 수련 장소로 적합함
30名이내 가능하고 취사도 가능
011-485-4661
043)733-1267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운세 30초내 잘 맞추면 입금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02-826-5067
• 명리학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6년째 바로 실력테스트해보세요.
• 상담실습생 약간 모집 - 교재(사주첩경 이석영 저)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이전 강좌


알림 정보

상황버섯
캄보디아산 자연산
1kg 200,000원
055)381-1143
011-882-1149

신비한 비법
구성으로 본 내정법
사주없이 현실을 말할수 있는 비법을 배우실분 전화 연락바랍니다
019-306-0089

천도재등 재의식 법문이 필요한 사찰 연락주십시오
형편따라 봉사하겠습니다
자성 합장
011-9866-0904
02)909-0904
e-mail : dhchong@naver.com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 적성 · 기타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출장강의도 가능함)
⊙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료후 부업, 개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배우실 분 수시모집,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명리 교육원
02)336-8484. 335-4847

사 람 을 찾 습 니 다

● 이름 : 진삼순 ● 나이 : 50세
● 체중 : 57 ● 키 : 158
● 인상착의 : 겨자색 니트 , 고동색 바지 , 검정색 사파리 점퍼 , 붉은갈색 랜드로바 , 연분홍색 모자 , 과일열매 수 놓인 검정색 가방 2003년 3월 26일 오후 출타 후 연락 두절됨.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 연락바람.
연락처 : 062-575-3780 , 011-604-3781

스님과 함께하는 동양사상
●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 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뜸,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031)256-5605, 016)433-5605

易 도가비전 전수 氣
도통역 기공법
건강 사업 성공 등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氣를 보내고 받을 수 있음
● 위치 : 상계역에서 마을버스 484번 종점 하차
● 전화 : 02)935-2728 핸드폰 : 017-208-2866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됴土)
발명특허원 15826호
가. 제품의 특성
⊙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를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된다.
나. 청국장의 효능
⊙ 정장 작용 - 변비 해소
⊙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효과
다. 가격 : 77,000원 (낫도씨, 볏짚, 불약콩 500mg 포함)
라. 양구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12,000원/1kg, 8,000원/1kg
※신청 : 우리콩운동본부 033)481-4894. 온라인 (농협) 123-17-000466 정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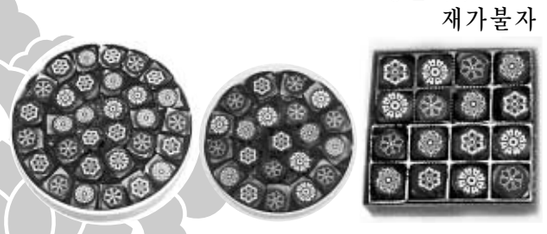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MHz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방송은 21세기 불교문화 진흥을 선도할 대망의 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자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체국 : 601237-01-001062 국민은행 : 129-01-0011-308 예금주 : (재)부산불교방송
대표전화 : 051)644-5114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예쁜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는 연화단 프리미엄 쵸콜릿
부처님 제단에 제사품으로 올릴 수 있는
현대감각의 일등공신 최고급 커버쳐 쵸콜릿
늘 접해왔던 제단 음식에 연꽃문양이 정교히 새겨진 연화단 쵸콜릿을 새롭게 올려보세요
불전에 올리기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현대감각의 최신 제사 용품입니다.
한입에 넣을 수 있는 연꽃문양의 연화단 쵸콜릿.

쵸콜렛 제대로 알자 !
중앙일보 2003년 2월 12일 발췌
다크쵸콜릿 (코코넛 30%함유)은 심장계통에 진정효과 있으며 심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5종류의 예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 연화단 쵸콜릿이 전국의 사찰 음식문화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재가불자


연꽃 원통(大) : 판매가 33,000원 (中) : 판매가 22,000원 연꽃사각박스 : 판매가 11,000원

(주) 쵸코박스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30-6 취급점 모집
TEL : 02-730-2700 / FAX : 02-730-8979
http://chocorose.co.kr, e-mail : choco9857@hanmir.com

3시간만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영가(조상신)을 천도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중엄신을 제도할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빙의령)
◆ 영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문의처 02)556-5590,5542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누비,적삼,바지]
[누비,동방,바지]
[누비,두루막]

1. 춘하모직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적삼 · 바지 : 100,000 ~ 130,000
동방 · 바지 : 130,000 ~ 160,000
두 루 막 : 100,000 ~ 13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조각무늬 면 100% 한국산먹물, 손염색
광목 - 적삼 · 바지 : 110,000 ~ 130,000
동방 · 바지 : 140,000 ~ 160,000
두 루 막 : 110,000 ~ 13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부종,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 법 당 : 30평
- 요 사 : 4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고찰터에 자리잡고 우람하고 힘찬 바위가 어우러진 기도도량임

- 위치 : 천안
- 법당 : 25평
- 요사 : 9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3억 6천

- 포교당 -
- 위치 : 인천
- 법당 및 요사 : 60평
- 가액 : 3000/100
- 가액 : 4000(특급)

청송기획 02)998-1994/011)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사찰 안내

- 위치 : 천안
- 대지 : 12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 위치 : 여주
- 부지 : 1,8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가액 : 2억7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 六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재 全原聚爻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포교당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 주안역 근교
- 법당 : 40평, 방 2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철학관, 포교당으로 최고임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도심사찰로 역사깊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각종암, 고질병, 중풍, 정신병 등 병원과 약으로 치료 포기하신 환자 불가의 비법으로 치유시킴

영통기도 각종 기도법 개인지도
(기도 및 기치료법 전수하실 보살, 처사구함)
해동암 041)942-9599
017)409-9599

불교의식 무료강좌

성불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천만 불자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성불에 도움이 되고자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좌진행스케줄 : 목탁, 요령, 태징, 각단예불등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소 : 서울 광진구 노유 1동 23-3 3층 (자세한 약도는 www.kumgang.or.kr 참조)
◆인원 : 30명 ☎ 02)462-9413

※본 선문은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초종파 교육도량입니다.
※수료후에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선문

사정상(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남의 요지
- 평수 : 3층 약 80평
- 규모 : 법당 약 16평, 방 5개, 욕실 2개
- 특혜 : 넓은 주차장, 즉시 법회 가능
- 보시로 급매. 전월세 가능

0502)777-595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토굴)안내

- 위 치 : 경남 창녕
- 부 지 : 12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1억6천만원

- 위 치 : 서울
- 부 지 : 18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6억5천만원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동4거리 큰 대로변 3층건물 3층 5호선 목동역 5분거리
- 평수 : 30평
- 아미타불, 종무실 1개, 법당 1개, 사무실 1개, 거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2647-0096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상계동 당고개 전철역에서 500m
- 부지 : 300평
- 법당 30 평, 요사 20 평, 나한전(노천)30 평, 약수 2개
- 주차장 완비(10대정도 가능)
- 6월 불하예정
- 가액 : 3억 5천만원(가액 절충)

02)952-7220
011)9997-9932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칠포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 중간지점
- 1층 22평, 2층 32평
- 대지 : 60평
- 임법당. 바닷가 별장
- 심야전기 조립식 15평
- 주차 무한대 가능
- 가액 : 2억원

011)9372-5977

포교당 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대로변 코너 4층 건물중 3층
- 건물 35평, 삼존불, 특 A급 시설
- 가액 : 보증금 1 천만원 월세 80 만원 시설비 2 천만원

02)973-5492
011)9764-4494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 양도 안내

- 특징
1) 천년 고찰터
2) 마애 여래불 문화재 지정
3) 문화재지청 자금지원으로 불사 가능한 곳
4) 좌청룡 우백호가 출중한 천해의 명당터

- 내 용
1) 종교 용지 : 1,830평
2) 법 당 : 13평(목조)
3) 요 사 : 20평
4) 매 가 : 3억 7천만원
- 위 치 : 충남 서부

사찰정보센터 금강기획
02)736-3578~9/011-789-2255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터)안내

- 위치: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주) 진로농장
- 특징:진주에서 30분거리
-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 농지전용부담금 1/10. ● 토목공사완료
- 부지:3천 7백평 (준 농림지) 매 평당 5만원

011)9307-8318
055)755-717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중심가 (주엽전철역 200m)
- 건물 : 3층 건물중 3층(25평)
- 앞뒤로 아파트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가격절충

031)919-0306
011)9701-060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절충 가능)

032)652-9384
011)729-6011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 氣功 교육원
02)3446-4118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서까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
- 평수 : 164평, 田 256평
- 건물 : 20평
- 슬라브 요사채(방3개, 거실, 욕실)
- 법당 : 조립식 10평, 화장실: 실내외 각각 1개
- ※ 스님이 급한 불사로 저가로 양도코저 함
- 가액 : 4천 5백만원

011)486-1275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신도시 중심상가 (역세권)
- 시설 : 160평. 시설완비
- 가액 : 3억원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와서 한번 보십시오)

011)9183-89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법천사
- 대웅전(법당) 40평, 휴게실 25평, 주택 50평
- 대지 3,400평
- 가액 : 10억원
- 대진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교차지점

055)963-2250
019)294-225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주택 아파트 중심지역
- 법당 : 2층 약 50평(방2개, 주방, 세면실, 화장실)
- 삼존불, 개금불상, 후불, 신중, 산신, 인등, 인등단, 영가단 모셔져 있습
- 현재 법회중 (부처님 전당 최고 수준)
- 특혜 : 시설비약간만 받음(⅓) 답사후 결정
- 보증금 : 1천만원, 월 45만원
- 주지스님 공찰때문에 '급' 해결

011)9343-0780

사찰(급)안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1)861-916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동 지하철역 인접하고 버스종점 옆
- 대지 : 대지 53평, 3층 건물
- 구조 : 방 3칸, 거실, 주방 大, (인법당,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A급)
- 특징 : 대단지 아파트(7600여세대)건립예정 지역으로서 포교원 최적합함.
- 가액 : 1억 3000만원(약간 절충가능)

051)331-9937
016)872-8050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시 최고요지
- 4층 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30평, 방4개, 공양방1개, 목욕탕, 실내화장실
- 보증금포함 9천만원, 월세 70만원
- 스님 직접 통화함

011)9354-9119

사찰(급)안내

- 위치 : 임진강 앞에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대지193평, 요사채70평, 법당 20평,방 6개,욕실 2,주방 3,거실3
- 법당단청했음
- 미륵 부처님 모셨음
- 산세수려하고 큰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
- 가격은 답사후 결정

011)9036-790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7,000만원(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소사역 100m
- 3층 40평. 방2개, 주방, 법당
- 보증금 3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32)345-382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지목 : 준 농림지(田)
- 평수 : 2,080평, 건물없음
- 사정상 급매
- 가액 : 평당 2만5천원
- 동강에서 5분거리(풍수상 명당터)

011)806-4867

펜션하우스 겸 수행터 부지안내

- 대지 : 603평
- 즉시 건축
- 산수절경, 남향, 조경완료
- 가액 : 1억9천만원(주인 직거래)

018)315-9080
031)833-908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교통요지
- 평수 : 20평
- 법당시설 완비
- 사정상 급매
- 가액 : 5천만원

053)653-4846
011)824-660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 건물 :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0평
- 시설 :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6)9336-2210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새말휴게소 15분거리
- 부지 1400평, 대지 300평
- 법당 15평. 산신각, 요사채, 방 4개
- 가액 : 3억 5천만원

011)750-6712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지리산)
- 부지: 약 2000평. 종교용지 330평
- 특징 : 200년이상 된 소나무로 둘러싸여 수행처로 최요지
-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독성각, 분수대, 약수터, 보안등 완비. 불사하기 좋은도량
- 주지스님 외국 출타예정으로 인수하실 인연 찾습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063)625-5595

계곡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 중감마을 → 약1km
- 계곡 암자터
- 논 496평
- 가액 : 1500만원

011)9393-49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진주간 삼가면 소재
- 부지 : 대지 250평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30평(스라브)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25평(스라브) 방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 산산각 및 용왕단 (천연자연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필요시 건물 증축 가능
-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 도량으로 최적지임
- 매가 : 2억 5천만원(감정가 1억 5천5백만원에 (급)양도하고자 함

016)421-9154

토굴터(급)안내

-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만리포 해수욕장 10분거리
- 준농림 전 608평, 하천부지 500평
- 남향, 조용하고 아늑함
- 가액 : 1600만원

041)688-250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 1800평
- 법당(단청되어있음)12평, 요사채 21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55)862-631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우산 288 천왕사
- 평수 : 120평
- 대웅전 법당1개, 독성각 1채, 산신각, 용왕각, 조립식 요사채 2동
- 가액 : 9천 5백만원

055)672-7765

포교원(급)안내

- 위치:울산 중구 학성동 역전시장 함월초등학교 정문앞
- 방2칸, 다용도부엌, 2층 40평, 시설물 약간 있음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1)9315-876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상가 2층, 총 34평
- 방1, 주방 1, 법당, 화장실
- 보일러 시설 완비
-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

※ 토굴도 있슴, 문의 가능

011)9867-982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산 3동 대로변 위치 최고, 시설 최고
- 2층 30평, 방2개, 요사채 (옥상)2채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6)760-803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 대지 165평, 건물 35평
- 가액 : 5천 8백만원 ● 사정상 급매
- 임법당 1개, 황토구들방 2개, 황토방 2개, 목욕탕, 입식부엌, 다용도실
- 주문진에서 10분거리(비산비하 도인 은신처)

016)207-8822

토굴 및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산청군 단성면 지리산입구
- 법당 : 목조 20평
- 요사채 20평 후원(주방) 8평
- 보증금 : 1천5백만원 (장기임대가능)

※비구니스님 수행처 매우 적합

016)9703-401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7분)
- 대지 : 200 평
- 법당 : 콘크리트 27평 1층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요사채 : 27평
- 공양간 : 입식(현대식)
- ※ 주방 별도로 있슴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 중심가
- 층 건물 2,3층 합 100평
- 큰방3개, 넓은 주방, 넓은 거실, 창고방 2개
- 법당, 목조 불상, 석가모니 삼존불(관음전)
- 전체 전세 8천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30만원 중 택일
- 내부 시설비는 면담후 결정 살림 및 즉시 법회가능. 시설A급

011)9301-2293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역 5 분 거리 수원도청 입구, 대로변
- 삼존불, 후불, 신불,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 건물에 2층 20 평
- 법당15 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011)669-4221
031)257-662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
- 대지 : 1,364평
- 건물 : 산신, 용왕각, 요사채
- 법당 : 대웅전 법당 기초 완료 (불사중)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도개 온천방향으로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3억 (가액조정 가능)

011)532-892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 70평중 법당 25평, 큰방 3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최고급 A급시설, 대형주차장 완비
- 포교당 위치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전세가능
- 시설비 1억3천만원 들었으나 인연 있는분께 4천만원에 드리겠음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을모십니다.

011)9315-1200

사찰기도터(급)안내

① 비마 양택혈 사신 수려한 산중 비장터 용호 용포 안에 양수 합수처 안산 방에 구곡수 조당 면전에 동강 객수 과당 기도처, 수도처 풍수적으로 최적지 명당터입니다.

②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두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 장소는 ① 충북 단양과 ② 괴산

011)742-5925/043)422-1666

목어

'올인'이 남긴 것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얼마 전에 끝난 모 방송의 인기드라마 '올인'은 높은 시청률과 함께 갖가지 뒷얘기를 남겼다. 카지노라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소재를 배경으로 남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과 배신, 기업 경영을 둘러싼 음모와 정경유착에다 조직폭력배 이야기가 얽히면서 드라마는 별 군더더기 없이 스피디하게 전개되었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남녀 주인공의 멋진 키스장면으로 끝을 맺었다. 라스베가스 현지 촬영에 의한 이국적 풍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카지노, 호텔 등의 화려한 내부시설 그리고 쇼걸의 화려한 율동과 현란한 무대 등은 시청자의 눈길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치솟은 시청률은 방송국과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졌다는 24부작 '올인'은 폭력의 문제와 더불어 도박을 미화시키고 사행심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하고 말았다. 더욱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기간에 6자리 숫자만 맞히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고 떠들어대는 로또 복권의 열풍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는 심한 열병을 앓았다. 초등학교 교실에서까지 카드놀이가 유행하고 학교 앞 문방구에는 갖가지 카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폐광촌의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태백시의 카지노 사업은 노름빚으로 인한 가장파괴라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내기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일까, 권력일까, 명예일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이 지닌 엄청난 위력을 감안한다면 시청률에만 신경을 곤두세울 일은 아닌 것 같다.

보길도 댐 문제 타결

완도군과 보길도 상수원 대책위는 최근 보길도와 노화도 상수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중립적인 인사들로 '부용리 상수원 댐 문제 검토위원회' 구성, 검토위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보길도 부용동 지역에 상수원 댐 건설의 무리함을 지적해왔으며, 과도한 누수율 개선과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절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창균속비

고려불화 경매가 남긴 여운…

국내 미술품 경매에 처음 나온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5억2천만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130~150여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고려불화는 일본에 가장 많고(100여점) 국내에는 10여 점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나마 불교계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한 점도 없다. 아직 누가 사갔는지 모르고, 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성보박물관에 고려불화 한 점 모실 수는 있지 않은지….



불자 세상보기

방귀희
방송작가, 솟대문학 발행인

장애인 차별없는 불국토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화가 나세요?

만약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을 가로 막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불쾌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화를 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한테만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일 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로 하나의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만 장애인을 출입금지시킨 행위는 명백한 폭력인데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출입이 금지된 사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우리가 언제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느냐고 언성을 높이실겁니다.

모든 건물 앞에는 통과의례인양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단을 간신히 넘으면 건물 안에 더 높은 계단이 장애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으로 공공건물에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의 장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장식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비 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약자 편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의 일성으로 사회 5대 차별 해소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았던 편견과 차별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발 빠르게 참여복지라는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참여복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선 여성이다, 남성이다,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하는 구분이 없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런 차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차별받고 있는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불쌍한 중생 가운데 가장 어여삐 여겨야할 중생은 장애인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식물이 아니어서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식물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장애인이 식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자고, 장애인과 함께 하자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호소는 메아리가 없는 헛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요구하고 그 요구에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세계 장애인의 날', 불교계는…

20일은 유엔이 지난 1981년에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스물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시설 및 단체들은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사들이 일회성에 머물 뿐, 장애인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정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불교계 장애인 복지단체장과 실무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느끼는 '장애인의 날'을 살펴봤다.<편집자>


◇해성 스님


◇박은아 씨


◇김작언 씨

"절에 가고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범종단 차원의 지원책 마련 절실

불교 경전 자체가 복지경전이다. 소외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를 안타깝게 여기셨음을 알게 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엿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나율', 정신지체장애인 '줄리반타', 지체장애인 '웃다라' 등의 제자들에게 더욱 가슴 아파하며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었다. 이 같이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사상을 근본으로 이제는 장애인 문화 · 복지사업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에 앞서 장애가 '전생의 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들이 절실히 느끼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찰에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한결같이 '마음 놓고 사찰을 참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애인 불자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높은 법당 문턱만큼이나 이들이 겪은 좌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늦지 않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종단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다. 불교계 장애인복지관과 종단을 아우르는 '장애인 복지 운영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전국 사찰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각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경전 및 수화통역사 양성 △장애인 포교사 제도 실시 등을 정책적으로 담아내 장애인 포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원장)

▧공간 배려, 신도들의 따뜻한 손길 필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사찰은 누구에게나 항상 문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함께 절에 편안하게 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절은 도시보다는 산에 많이 있다. 절에 가려면 산을 올라야 하고, 산을 올라 도착하면 계단을 올라 신발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야 한다. 도시에 있는 절도 그 예는 다르지 않다.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 아닐지라도 법당에 이르는 길은 장애인들에게는 '가지 못 할 길'이 되기 쉽다.

장애인들을 위해 사찰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석을 외부에 별도로 만들어 본다거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식당의 전용석 등이 필요하다. 또 행동이 느리다고 재촉하지 않는 주변 신도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다운 손길도 쉽게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 장애인들이 꼭 가보고 싶은 전통 사찰이 되고, 종교를 떠나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불교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다.

나는 많은 장애우들과 함께 사찰에서 차를 마시며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사찰에 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불자라면, 사찰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장애-비장애'라는 구별 없이 똑같을 것이다.

박은아(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기획팀장)

▧마음 놓고 부처님 정법 들을수 있기를…

불교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그래서인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나 같은 장애인을 위해 행사를 준비한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찰의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나의 원찰인 인천 주안 H사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사찰이지만 나 같은 장애인이 절을 다닌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로서는 절에 가려면 큰 맘 먹고 나서야 할 정도다.

절에 갔을 때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화장실이다. 재래식 변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절은 너무나 먼 곳이다. 공양을 할 때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불교가 이런 장애인들을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그들도 부처님 정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타종교의 경우에는 예산도 풍부하게 지원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불교는 너무이 부분에 소홀한 것 같다. 듣자하니, 서울 강남 봉은사는 보우제 때 장애인노인들을 초청한 행사를 성대하게 열고 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사찰에 참배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한다.

김작언(서울 강북구 수유동 · 지체장애1급)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정확한 책으로 3년에 걸쳐 검증되고 있습니다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완간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냅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알아 문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온)에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음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 시식 · 굿 ·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띠만 알아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바인더차트 분개 매월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기존「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을 소지하신 분은 80만원에 본 책과 교환해 드립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CD ₩2,000,000
● 효사 육임강의록(증보上下권) ₩410,000
● 효사 육임비디오 ₩900,000 (28개)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 하십니까?
■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몰라 애로를 겪습니까? 이책이 해결해 드립니다.
각종 카드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한국 · 티베트센터 20일께 개원

부산광성사 지상 5층건물 … 양국불교교류 중심 역할

한국 최초 한–티베트 교류의 공간인 한국티베트센터가 20일경 문을 연다.

연건평 400평, 지상 5층 건물의 4,5층을 한 개의 층으로 만들어 법당을 만들고 티베트에서 모셔온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게 되는 부산 광성사(주지 초펠)는 한국티베트센터의 공간을 겸하게 되며, 한국과 티베트의 문화와 불교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과 티베트가 막연한 호기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셈이다.

한국인에 기초수행법 · 언어 등 교육
4~5층에 법당 … 티베트 불상 봉안
불교서적 · 사전편찬 · 불경번역사업



◇한국티베트센터는 티베트 전통양식으로 건립되며, 수행과 공부의 공간으로 활용된다.초펠 스님이 건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0년 광성사의 나아란다청년회(지도법사 김도완)에서 기증의사를 밝힌 이후 1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한국티베트센터 불사는 4월 20일쯤 마무리되며 별도의 개원식 없이 조용히 문을 연다. 6명의 운영위원에 의해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한국티베트센터는 한국사람들에겐 티베트 기초수행, 티베트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티베트 스님들에겐 한국의 문화와 불교에 대해 배울 수 있게 개방돼, 수행과 불교문화 교류, 협력을 이끌어내게 된다. 원활한 교류를 위해 포탈라출판사를 등록, 티베트 관련 서적출판, 티베트어 · 한국어 사전, 한국어 · 티베트어사전 출간을 비롯 불경 번역에도 주력하게 된다. 초펠 스님은 현재 티베트 · 한국어사전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정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의 특성에 맞은 수행지도를 하겠다는 것도 티베트 사찰의 특징 중 하나.

5월말이나 6월초쯤 티베트 스님을 모시고 높이 3m 크기의 석가모니불과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티베트 전통 양식으로 복장 봉안과 함께 점안식을 봉행한 후 티베트 스님들이 내부, 외부 단청 불사와 탱화를 마무리하면 티베트 전통 양식의 사찰로 제 모습을 갖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화엄경 무차법회 석달간 열어

동화사, 5월 17~8월 12일 무비 스님 등 논강 후 토론도

5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동화사는 매주 토요일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부대중의 법석을 마련한다.

지난해 백고좌 법회를 개최했던 동화사가 이번엔 화엄경을 대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화엄논강을 연다.

5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설법전에서 열리는 화엄논강에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개방해 사부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무차법회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리게 될 화엄논강은 모두 13회에 걸쳐 무비 스님, 각성 스님, 종범 스님 등을 논주로 화엄경 전반에 대해 테마강의이후 대학교수와 스님들로 이루어진 10여명의 토론자들이 대중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엄논강은 5월 17일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의 '화엄경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24일 종법스님의 '화엄경의 성립', 31일 통광스님의 '화엄경의 전개'를 비롯 8월 9일 도법스님의 '화엄경과 현실'을 마지막으로 12일 회향한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은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시대정신과 실천의 논리를 화엄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며 "화엄사찰인 동화사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고 화엄경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사는 화엄논강 이후 법화경, 열반경, 능엄경 등을 주제로 계속해서 무차논강을 열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영남불교대 교향악단이 9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첫공연을 열고 불경과 현대음악이 결합한 '칸타타 금강경'을 선보였다.

테너 · 바리톤 · 오케스트라 '금강경' 합주

영남불교대학 교향악단 창단 첫공연

9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교향악단의 웅장한 가락에 맞춰 테너와 바리톤 성악가의 목소리로 불교경전 '칸타타 금강경'이 연주됐다. 영남불교대 교향악단 창단 첫 연주회는 교계 최초로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칸타타 금강경'을 교향악으로 담아낸 '칸타타 금강경'을 선보여 1,600여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연주시간 50분, 총 7장으로 구성된 '칸타타 금강경'은 한문으로 된 '금강경 약찬게'를 현대적 내용으로 풀어 영남불교대 학장 우학스님이 노랫말을 쓰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영남불교대교향악단 이달철 단장이 곡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대구 지하철 사고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돼 더욱 뜻깊었다.

박원구 기자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등 문화재 3건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은 10일 '용흥사 삼불회괘불탱(제1374호)' '통도사 금동천문도(제1373호)'와 , '안중근 의사 유묵(제569-<25>호)' 등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용흥사 삼불회괘불탱은 길이가 10m가 넘는 대형 괘불로 17세기 이후 유행한 군집도 형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 '삼국유사' 권 제1~5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됐고,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내 발견 유물과 송광사 소장 티베트문 법지 및 불갑사 소장 목조삼세불좌상 등 3건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여수령 기자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

경주서 15번째 충담재

신라 향가 '찬기파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충담스님을 기리는 '충담재'가 5일 경주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및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과 함께 차 도구, 다식, 녹차 등을 전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로 한 단계 발전되었다는 평이다.

박원구 기자



◇불국사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단장 종상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불국사 자원봉사단 발대식

경주 불국사는 교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지난 8일 오후 2시 경내 광장에서 개최했다.

봉사단기, 회원증서 전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단장 종상스님의 인사말과 성타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도 대표가 무주상 봉사를 통해 사회의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꿀 것을 서원하는 봉사단원 선서로 이어졌다.

불국사 자원봉사단장 종상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법시, 무외시를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원 420여명으로 구성된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앞으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동화사 등 5개 교구 본사 지하철참사 합동위령재

동화사, 불국사, 직지사, 은해사, 고운사 등 지역 5개 교구본사가 대구지하철 참사 합동위령재를 봉행한다.

대구경북 5개 교구본사는 대구지하철 사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합동 위령대재를 23일 오전 10시 중앙로역 일원에서 봉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하철 참사 49일째인 7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가 대구지역 사찰에서 일제히 열렸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7일 희생자 유가족 200여명과 함께 4층 법당에서 49재를 봉행했다.

팔공산 동화사도 이날 통일대불전에서 49재를 지냈고, 지장선원에서도 합동 천도재 회향식을 가졌다.

박원구 기자

통도사, 만다라괘불 5월말 일반공개

폭 7.32m 높이 11m 규모 … 막바지 작업 한창

2002년 한 · 일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제작중인 '월드컵만다라 괘불'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5월말쯤 일반인에게 선보일 예정인 월드컵만다라 괘불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열린 2002년을 상징해 모두 2천2불로 구성, 폭 7.32m, 높이 11m 규모로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괘불에는 유럽 · 아시아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 대륙을 상징하는 불교의 오여래와 중앙에는 세계의 융화를 표현하는 비로자나불이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단에는 세계인들의 구원과 안녕을 기원하는 관음 32응신으로 월드컵 32개국을 표현했으며 괘불의 높이 11m는 축국 경기에 참가하는 11명을, 화폭 7.32m는 골포스트의 너비를 가리키고 있다.

천미희 기자

연등시연회 열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청년회(회장 박석규)는 지난 5일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제5회 연등시연회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연등시연회는 참가한 시민과 어린이들이 오색연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연등시연회는 '지구생명 살리기' 캠페인도 열어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원구 기자

광명실상 성취기도법 을 알리며 · · ·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함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체(마음)을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불자(佛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라는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업, 병, 악, 고통, 재난, 불행, 죽음도 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운명과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운명은 '마음'의 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이치를 깨달으면 뜻하는 대로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상은 '부처님의 자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실상 완전 원만'하므로 이것의 향상됨이 없이 생멸(生滅)하는 육체로서 대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멸(生滅)하여 항상 됨이 없는(無常) 온갖 것은 실체가 아니며 한낱 신념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불자님은 무한생명(無限生命)을 얻어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미숙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역경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데서 확실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행복 · 희망 · 번영 · 건강 · 성공의 근원은 부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도 없고, 능력, 인맥, 학력, 가문, 문벌도 없으며 더욱 생명까지도 없었던 불자님들이 오늘날까지 살았으며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도 모두가 부처님과의 만남에 의지된 덕분이라 생각하며 부처님 은혜의 일념뿐입니다.





※ 이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오시거나, 위 사진을 오려서 **광명실상회**에 편지로보내 주시면 책을 무료로 법보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 발간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꿉시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시어 "**광명 실상 성취 기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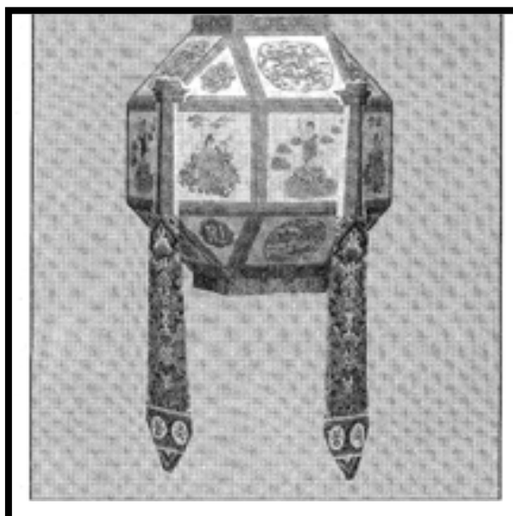
인간은 본래 청정법신 이므로 "**생명의 실상**"으로 진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 · 번영 · 희망 · 건강 · 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죄와 병과 재난과 불행은 악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 펼치고 있는 "**광명 실상 성취 기도**" 수행을 지도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삶 속에서 진리의 광명이 항상 충만하게 나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 명 실 상 회

광 명 실 상 회
전화 (031) 257 - 35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6-14, 6/4
회 장 진 관 법사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전화 (051) 864 - 3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 (한신상가 5동 501호)
원 장 각 광 합장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히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이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딩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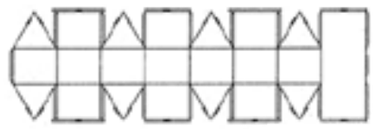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불자들 힘 모아 '지역사회를 정토'로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 창립

환경운동, 불교 자정·개혁 사업 펼칠 계획

6개분과 신설, 문화 네트워크 형성 교육

불교이념에 기반한 민족통일, 평화, 인권, 정의실현을 통해 지역 구심체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불교단체가 광주에서 출범한다.

광주 전남지역 불교계 인사 106명은 10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 창립식을 18일 오후 6시30분 광주 산수동 선덕사에서 갖기로 결의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불교연대 공동대표로 여연스님(대흥사 일지암 주지), 행법스님(광주 선덕사 주지)과 정진백(사회문화원 대표), 임동호(광주불교교육원 이사), 정의행(광주불교문화대학 교수)씨가 선출됐다.

불교연대는 앞으로 복지활동,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 생명인권 보호책,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 언론감시 및 언론의 공정성 실현,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연대, 불교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처, 불교의 자정과 개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에 기획홍보 위원회, 평화통일 위원회, 생명인권 위원회, 언론감시 위원회, 자연환경 위원회, 참여불교 위원회 등 6개 분과를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의 정책, 행정,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및 대안제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는 10일 선덕사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연대는 1차 행사로 이라크 난민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반전평화 콘서트,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갖는 열린 대화마당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창립대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한손으로 굶주린 북한 어린이를 보듬고, 다른 손으로는 이라크 어린이를 쓰다듬는 형상의 대형 걸개그림을 전시한다. 불화작가인 이상호씨의 걸개그림 전시와 함께 이라크 참상을 고발한 사진전, 범능 스님의 공연 등도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이해모 사무국장(부다기획 대표)은 "부처님의 정법에 바탕한 사회개혁을 위해 지역불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하게 됐다"며 "정의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천 장락사지 삼국시대 창건

"'장(長)'자명 기와 등 70여점 출토"



◇제천 장락사지의 현재모습

보물 459호 제천 장락동7층모전석탑 주변은 조선 태종 때 왕실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해 자복사(資福寺)로 삼았던 장락사(長樂寺)가 있던 자리였으며, 장락사는 삼국시대 때 창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번지 일대, 속칭 장락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여온 충청대 박물관(관장 장준식)은 7일 "'장(長)'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과 삼국~조선중기에 이르는 기와·토기·자기 조각 등 70여 점이 출토됐다"며 "제천지역에서 삼국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장 장준식 교수는 "출토유물로 볼 때 장락사는 삼국시대 말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 법통이 이어져 왔으며 3차례에 걸쳐 중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역의 범위와 가람 배치, 변화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발굴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종 14년에 명찰로써 자복사를 대신하여 삼았는데 제천에서는 장락사로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주변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사찰의 실체 규명이 어려웠다.

권형진 기자

"운허 큰스님 유지 본받자"

광동학원, 존상 건립 제막식 거행

광동학원 운허큰스님 존상건립추진위원회는 8일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광동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설립자 운허 스님 존상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독립운동가이며 한글대장경 사업을 추진했던 운허 스님(1891~1980) 존상은 브론즈 재질로 좌대 높이 250cm, 전신좌상 180cm이다.

이날 제막식에서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운허 큰스님은 남양주 지역에 처음으로 광동학교를 세웠다"며 "광동가족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상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유품전시회에는 운허 스님의 훈장증,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장, 발우, 가방, 현등사 사적 친필, 돋보기, 손저울, 회중시계, 벼루와 붓, 단주, 친필 현판, 벼루와 붓 등 총 21점이 전시됐다.

김원우기자

전남 산업평화 정착 기도법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는 7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양파크호텔에서 전남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지도자 기도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현지스님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한생명, 활동명상 강좌 개최

사단법인 한생명(이사장 도법)이 현대인들을 위해 활동명상 강좌를 개최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남원시 산내면 한생명 사회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활동명상 강좌에서는 쿤달리니 만다라 회전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이 소개된다. 문의 063)636-3776

남동우 기자

日, 나고야 화쟁사 건립기공식

일본 나고야 화쟁사 건립기공식이 6일 200여명의 양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화쟁사는 1945년 관동군 수좌였던 가토다다시씨가 원산에서 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일제치하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인 원혼을 달랠 사찰건립을 발원하면서 시작됐다. 가토다다시씨의 아들, 가토 미쓰오와 가토 마사오씨 형제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화쟁사 운영을 조계종에 의뢰해놓고 있다.<본지 351호 참조>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수행·공부 함께하는 우리는 도반

장흥 대원정사 이금옥보살, 홍재성 거사

이 보살-힘든 공양간 일도 '마음 여는 공부'라며…

홍 거사-"도반들과 일생 함께하며 회향하도록 노력"

관광단지로 곳곳에 네온사인이 요란한 장흥. 번잡스런 도심을 뒤로하고 한참을 내달리면 그곳에 대원정사가 있다. 아직 부처님 오신날이 한 달 남짓 남았건만 사찰 초입에서부터 정갈하게 걸려있는 초파일 등이 대원정사 신도들의 부지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주지 해련 스님은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에 앞장서며 쌀 한 톨 허투로 쓰는 법이 없는 '구두쇠' 스님이니, 신도들의 부지런함도 스님을 닮은 것이리라.

아니나 다를까. 산 중턱에 반듯하게 자리잡은 대원정사에는 손매 야물고 신심 깊은 신도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열성적인 신도로 이금옥(46, 원덕주) 공양주 보살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기독교 신자였던 이 보살이 대원정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 소개 덕분이다. 등산을 좋아해 산에 자주 가도 그 흔한 절에 발 한번 들이지 않았던 그지만, 이곳에 와서 해련 스님과 만난 3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계획에 없던 9일 기도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간 이 보살은 가게를 올케에게 맡기고 3년 기도를 작심하고 절에 들어왔다. 힘든 공양간 일을 억척스럽게 해내면서도 기도와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 보살에게 차차 스님도 믿음을 주게 되었다. "절에 있으면 하루 2~3시간 밖에 못자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이 보살은 "부처님 가피로 지는 것 싫어하고 고집이 세던 제가 '마음 여는 공부'를 하고 있다"며 수줍게 웃었다.

대원정사 인연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홍재성(47, 법신) 거사. 그는 벌써 20년 째 절일을 하고 있다. 대원정사에서는 돌멩이 하나 나르는 일 부터 석축을 쌓고 연등을 다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홍 거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다. "피를 나눈 사이보다 함께 땀을 흘린 대원정사 신도들이 더 살갑고 고맙다"는 홍 거사는 "이들과 일생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며 회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금옥보살(오른쪽 첫번째)과 홍재성거사(왼쪽 첫번째)가 대원사 신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수령기자



추천의 말

해련스님 대원정사 주지

친절, 진실로 가족분위기 만들어

20년 전 10평짜리 '비닐하우스 법당'으로 시작해, 최근 5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의 여법한 법당을 갖게 된 대원정사에는 신심 깊고 열성적인 신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금옥 보살과 홍재성 거사는 절 살림을 보살피며 자신의 공부도 열심히 하는 신도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신도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대원정사의 큰일꾼들입니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4월 2째주, 4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번주 부터는 매주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덕산스님.

덕산스님(☎ 011-781-0587)은 저희 연구소의 평생연구반 1기생으로 2003년 2월 3일, 30년 동안 각종질환(심장병, 신장병,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어느 신도와의 영적 상담에서 그 신도가 고통 받고있는 질병의 원인을 **파동 명상요법**으로 찾아낸 결과 그의 몸 속에는 3명의 빙의령(어머니, 작은 어머니, 장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들을 제령·천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너무 나빠 빙의령들을 제령 천도(많은 심령적 에너지가 소모됨)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그 환자의 아내를 통하여 원격제령, 천도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는 덕산스님외 4명의 도반스님과 2명의 법사님이 참관하였고, 그 환자의 아내의 몸을 빌려 나타난 빙의령들이 그들이 왜 그 속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하소연하다가 결국에는 덕산스님의 놀라운 법력 앞에 제령 천도되는 장면들을 보고 그 놀라운 현상과 경험에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라고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환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시간이 갈수록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몰

〔안내 - 신용카드무이자 할부서비스〕

행사내용 : 신한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 회원에게 무이자할부 2~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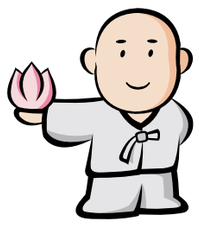
행사기간 : 2003년 03월 21일 ~ 0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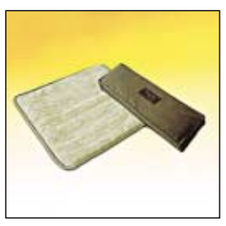
3만원이상 주문시 택배 무료발송

주문전화 02)732-1520

국민은행 023537-04-000359 농협 053-01-254668 예금주 : (주)지도리

추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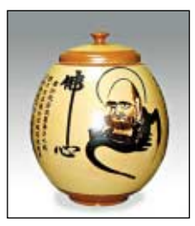




희담석 방석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이즈 : 38.5cm X 35.5cm
- 색 상 : 연카키색, 살구색
- 상품가 : 198,000원



분청달마살독

陶藝人이 정성스럽게 빚어낸 수공예품으로서 곡물을 보관하는 경우 벌레가 절대로 생기지않는 위생적인 곡물단지 입니다.

- 40kg : 42cm(지름) X 56cm(높이) 98,000원
- 20kg : 36cm(지름) X 47cm(높이) 68,000원



천연향-구례소리세트(B)

지리산 야생녹차로 만들어 낸 천연향 구례소리세트는 은한 녹차의 내음을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 구 성 : 세트 B = (구례소리 아침 1 + 녹차향엽 2 + 여행용 향엽샘플 2 + 향꽃이 1) 50,000원



등초(大)

- 길이 12.5cm x 지름 3.1cm
- 240개입(120세트)
- 상품가 : 65,000원



연옥합장주(매듭)

연옥[軟玉, nephrite]은 생명에너지인 氣를 발산하는 특수 광물질로서 인체 생명력의 에너지원인 마그네슘(엽록소의 핵)을 40%이상 함유

- 재 질 : 연옥[軟玉, nephrite]
- 사이즈 : 10mm
- 상품가 : 7,000원



녹 야 (스님용 두피보호크림)

녹야크림은 머리카락이 재거된 두피를 보호하고 이물질의 발생을 방지하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고안된 신 두피보호 크림입니다.

- 상품가 : 30,000원



관세음보살 양각판

- 발 원 문
대자대비하시옵고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 광명이 항상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부처님의 정법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 사이즈 : (길이)100cm X (넓이)42cm X (두께)4.5cm
- 소 재 : 우레탄
- 상품가 : 90,000원

※ 스님은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가정용반야심경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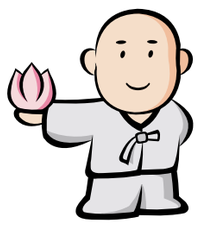
- 사이즈 : 4.5cm(높이) x 6cm(지름)
- 상품가 :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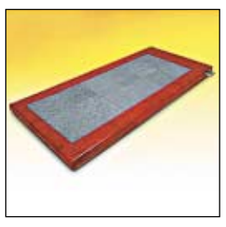


가정용 촛대 (모델명 : 6039)

- 재 질 : 놋쇠 8cm(넓이) X 7cm(높이) X 7cm(밑넓이)
- 1 set(촛대 2개) = 30,000원

효도 선물





스님용 희담석 보료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 보료사이즈 : 900mm x 1,800mm x 100mm
- 상품가 : 2,800,000원



건강지압봉(은행나무봉)

건강봉은 물리치료,운동치료,기치료 전문인들이 오랜 경험과 인체공학적 고찰을 통해 개발한 현대인의 건강 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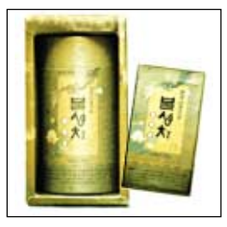
- 3종세트(1호봉, 2호봉, 3호봉)
- 상품가 : 16,000원



분청다기세트

청자,백자보다 단열보온성이 우수하고 독성물질을 제거하며 다기가 숨을 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품가 : 98,000 원



불성차-우전

불성차는 지리산 심산유곡의 야생 차밭골에서 갓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동(銅)가마솥엣 전승비법으로 빚어낸 전통 수제차입니다.

- 상품가 : 90,000 원



심장을 돕는 숯 목걸이

숯의 보석 비장탄이 원적외선의 방사와 음이온의 발생 그리고 탄소덩어리인 숯에서 유도되는 기(氣)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 상품가 : 19,800원



녹차향엽-목욕용 녹차향

지리산 야생녹차로 만든 목욕용 녹차향

- 구성 : 18개 원료와 함량 : 국내산 녹차 100%
- 상품가 : 15,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희담석 다기〉는 최고의 장인이 희담석 가루를 사용하여 정성을 다해 만든 다기로서, 차의 맛을 좋게 함은 물론 차를 마시면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1인 다기 세트 : 1인 다기 2개
- 상품가 : 80,000원



연꽃불자시계

연꽃불자시계의 구성을 보면 시계밴드 위쪽으로 광명진언을 아래쪽에는 소원성취진언을 새겨 넣었습니다.

- 남성용 / 여성용
- 상품가 : 99,000원

Silver 건강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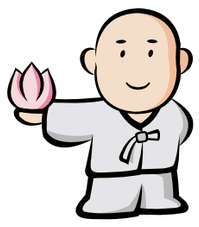
Hot



"올은!"실제 주인공 차민수가 추천하는 Silver 패션 건강팔지! - 성공과 건강, 행운의 3대복을 누리세요.

- 고급 명품스타일 디자인
- 은볼에 자력을 넣어 자력 효과를 줌
- 자력 효과 : 사람의 혈액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에는 철 성분이 있어 자력을 띤 제품을 몸에 끼고 있으면 혈류의 속도가 빨라져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됨.
- 자기 결핍 증후군 : 신경통, 어깨결림, 습관성 변비,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 안쪽의 은볼돌기로 지압 효과를 얻을수 있음
- 로듐 도금처리 : 로듐 도금 처리로 변질 및 알러지 방지
- 현재 미국 판매중(2003 뉴욕쇼 출품 作)
- 디자인고시 상품(디자인고시 No. 연합-02-038)
- 기본재료 92.5% silver사용(실버자체 항균/해독작용 응용)
- 상품가 : 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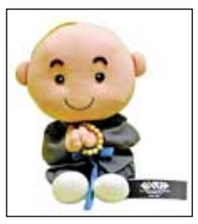
어린이날 추천상품





고불인형세트

- 크기 : 12cm(높이) X 9cm(너비)
- 상품가 : 20,000원



멜로디 동자승인형

자녀분들에게 친근하고, 인기있는 너무나도 귀엽고 독특한 동자승 캐릭터 인형입니다.
동자승의 가슴부분을 눌러주시면 맑은 목소리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인 '천수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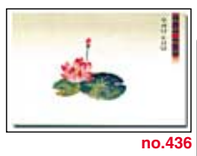
- 사이즈 : 13Cm(세로)
- 상품가 : 8,000원



멜로디 아기부처인형

자녀분들에게 친근하고, 인기있는 너무나도 귀엽고 독특한 아기부처 캐릭터 인형입니다.
아기부처 가슴부분을 눌러주시면 맑은 목소리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인 '천수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사이즈 : 13Cm(세로)
- 상품가 : 8,000원





no.436 no.504





no.620 no.621



no.622

봉축카드세트

부처님 오신날을 奉祝하오며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 10장 1세트(봉투포함)
- 상품가 : 6,000원
- 20세트(200장)이상 구입시 단체명 인쇄가능



도자기 인형

도예가의 순수 수공예작품으로서 천진난만한 동자스님들을 소재로 하여 정감이 가도록 표현한 도자기 인형입니다.

1. 스님과 소 ■상품가 : 55,000원
2. 목탁스님 ■상품가 : 45,000원



동자인형시리즈

1. 동자인형-가사
■상품가 : 5,000원
2. 동자인형-천수경
■상품가 : 8,000원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 가족을 부처님처럼

절에서나 집에서나 인터넷과 전화로 봉축용품을 준비하세요!!

주문전화 02) 732 - 1520



캐릭터 비닐 만월등

· 색 상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 1 Box = 20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2,000원



공단등(大/中/小)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 大 : 지름 23cm 7,000원 1Box 18개
· 中 : 지름 18cm 4,000원 1Box 30개
· 小 : 지름 15cm 3,000원 1Box 60개



만 월 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 1 Box = 10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1,500원



팔모접등(주름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상 : 핑크, 노랑, 연두
· 1 Box = 6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3,000원



종등

· 사이즈 : 40cm X 27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 1 Box = 10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1,800원





캐릭터 부채 세트
10개 1set 7,000원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가능



장엄 번(만장기) 90cm×210cm 40,000원

지하철현수막 40.000원

봉축 현수막 : 90cm×6m(40,000원),7m(45,000원), 10m(60,000원),12m(70,000원) ※주문시 사찰명 기재 요망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13,000원

보온 · 보냉 머그컵
보온 : 시간 / 보냉 : 6시간

8,000원

연꽃타올 4,000원

※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다 포
규격 : 39cm X 78cm
색상 : 회색 2,000원
백색 1,800원

불교기, 법륜기 12,000원

캐릭터 앞치마 A형:4,500원 /B형:4,000원
※ 3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아동용 썬캡 / 성인용 썬캡 3,000원

연화당초문양손수건 면 80수 4,000원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차량 스티커스티커 세트(大/小)
大 : 6.8Cm×14Cm(50매 1세트) 15,000원
小 : 6.6Cm×12Cm(100매 1세트) 30,000원

캐릭터 청사초롱 3,500원
소재 : 숙고사, 프라스틱

방생 타이슬링 2,000원
2개 1set 지름:7,5cm

봉축타이슬링 5,600원
8개 1set 지름 : 5,5cm

연꽃 차걸이 세트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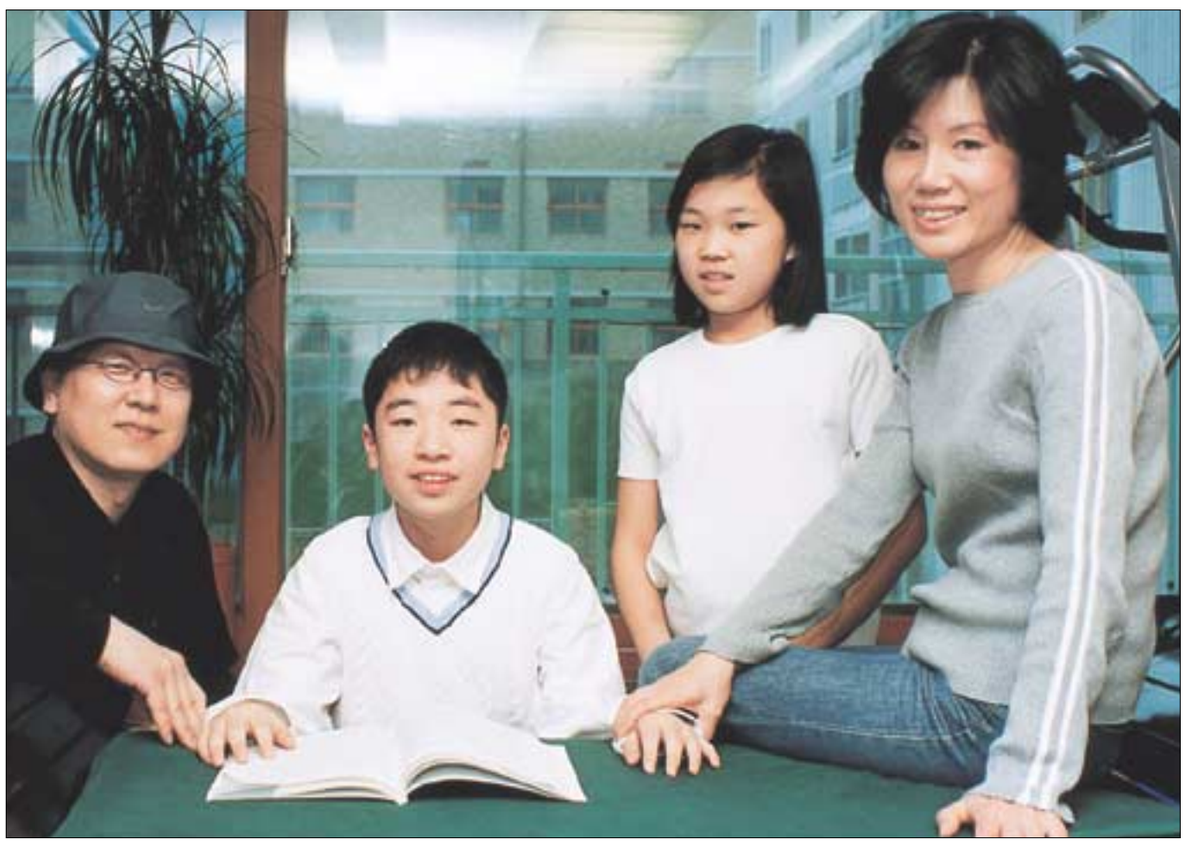
캐릭터 풍선 세트 30,000원
100개 1set(대롱포함)

봉축 버튼 3,200원

봉축리본 - 일반리본(분홍, 노랑, 진분홍) 250원
고급리본(분홍, 진분홍) 350원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2-1520

"세상사람 웃고 울리는 鼓手 될래요"





◇세상사람을 즐겁게 하는 고수가 되고 싶은 준이와 그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고 싶다는 가족들. 왼쪽부터 아버지 최정돈 씨, 준이, 동생 윤선, 어머니 모현선 씨.

◇법회에 참석해 독경소리를 듣다가 판소리교육을 받은 준이. 12일 판소리 흥보가 공연을 마치면서 준이는 세상을 향해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

난치병 딛고 국악인 꿈 펴는

최준 군과 가족

선천성 자폐아 - 누구에도 눈길 안줘

꾸준히 법회 참석, 독경소리 귀 기울여

판소리 교육… 조금씩 마음의 창 열어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어름에 놀보 형제가 살았는디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본디 놀보는 오장이 칠보라~(판소리 '흥보가' 中)"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년이 북채를 쥐고 신명나게 판소리 '흥보가'를 불러 제낀다. 소년의 꿈은 판소리 마당에서 추임새 목청을 돋우는 고수(鼓手)가 되어 세상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싶은 것이다. 13살 소년의 꿈은 12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박초월제 흥보가 발표회' 참가로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다.

준이는 선천성 자폐증을 앓고 있다. 암 환자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감기처럼 조금만 참으면 낫는 것도 아니다. 바깥 세계로 향한 문을 자신도 모르게 잠그고 사는 병. 평생 자기 안에 갇혀 사는 병. 이것이 준이가 앓는 병이다.

최정돈(45 · 애드버타이징 윌 대표) 씨와 모현선(41) 보살. 준이는 이 두 사람의 첫 아이다. 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돼 그 아이가 다른 아기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준이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번만이라도 방긋 웃어주길 바라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했다. 부부는 조금 유별난 아이거니 생각하기로 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부부는 준이의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옹알이와 뒤집기를 건너뛰고 두 살이 되어도 말문을 못 열었다. 항상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했다.

세 살이 되던 해, 부모는 소아정신과를 찾았고 준이에게는 '정신지체장애 2급 자폐아'란 판정이 내려졌다. 조부모인 최문준(77) 거사와 윤복순(74) 보살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첫 손자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준이의 치료에 매달렸다. 자폐증을 치료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다녔다. 할아버지는 한 시간의 치료를 위해 네 시간이 넘는 거리도 마다 않고 매일 준이를 업고 다녔다. 아버지는 아이를 맡아 치료해 줄 유치원을 찾아 서울 시내를 얼마나 돌았는지 모른다. 어머니도 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함께 학교에 등교했다. 대소변을 못 가렸던 준이가 실수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준이 학교가 개학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담임선생님이 바뀌어서 교실로 못 들어가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있다며 울먹거리더군요."

이런 일은 오히려 견딜 수 있었다. 준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족들은 서글픔을 마음속으로 삭여야만 했다. 준이를 가르칠 수 없다며 전학을 권유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가족은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이로 인한 고통은 준이네를 더욱 부처님 곁으로 인도했다. 최정돈 씨 가족은 친구의 권유로 10년 전부터 한마음선원에 다니고 있다. 대행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준이네 가족은 법회는 물론 새벽예불까지 빠짐없이 참가한다. 준이가 아픈 것을 공부삼아 수행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정진했다. 어린이들이 장애와 무관심, 학대로 고통받지 않은 세상이 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꾸준한 법회 참석은 기적(?)을 가져왔다. 자폐증인 준이가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독경을 조금씩 따라하더니 어느덧 준이는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완전히 암송하게 됐다. 준이는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였던 것이다.

이 때부터 가족은 준이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 준이가 독경소리와 전통음악 같은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음감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가족들은 자폐증 치료 삼아 판소리 교육을 시켰다.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음악교육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3년 동안 준이는 가족들의 격려를 받으며 판소리를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1월 준이는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판소리 노상 공연에서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노래를 부르는 데 성공했다. 13년 만에 준이네 가족은 마음껏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

'준이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자.' 준이네 가족은 사방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 뛰어 다녔다. "준이가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는 아버지 최정돈 씨는 "하지만 장애인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준이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올해 3월 국립국악원은 12일 오후 1시간 동안 준이를 위해 우면당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박초월제 흥보가 발표회.' 준이는 이제 세상으로 난 마음의 창을 조금씩 조금씩 열고 있다.

"준이의 별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부처님처럼 웃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요. 이 다음에 준이가 그 별명처럼 행복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이가 세상을 향해 웃게 되기까지 그 가족이 겪어온 사연이 오죽했을까.

준이 어머니는 "집안에 숨겨진 채 쉬쉬거리며 살아가는 장애아동들이 너무 많다"며 "불교계가 앞장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 고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교TV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영상포교의 사명을 다하는 불교TV가 관악구 봉천동에 새 사옥을 마련하고 무상사 및 문화원을 개원합니다. 2천만 불자님의 성원 속에 그 장엄한 막을 올리고자 합니다.

불교TV 이전
무상사 개원 점안
불교TV 문화원 개원

◆일 시 : 불기2547(2003)년 4월 20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관악구 봉천 8동 불교TV 무상사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151-820 서울 관악구 봉천 8동 945-2번지
전화 : (02)3270-3300, 3270-3366~7(불교 TV) / (02)3270-3399(불교 TV 문화원)
팩스 : (02)3270-3498

봉 특별법회 축

선지식 초청 특별 법회

- 시 간 : 4월20일 ~ 매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불교TV 무상사

21(월) 도원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22(화) 청화 스님 (곡성 성륜사 조실)
23(수) 성수 스님 (황대선원 조실)
24(목)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25(금) 정일 스님 (보광사 조실)
26(토) 무진장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27(일) 월운 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불교TV 문화원 명사초청 강연

- 시 간 : 4월21일 ~ 매일 오후 2시
- 장 소 : 불교TV 문화원

21(월) 이어령 (오늘을 살아가는 문화코드)
22(화) 황우석 (불교와 생명과학)
23(수) 강영숙 (사람과 사람 사이 예절)
24(목) 성우스님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25(금) 선재스님 (음식이 성격을 만든다)
26(토) 엄앵란 (가정에서 행복찾기)
27(일) 강지원 (아름다운 꿈을 향해)

릴레이 수행일기 〈上〉



이규동

(주)뉴월코리아 전무이사

"반야 바라밀 행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15년전 불광법회에서 '명교사 교육' 시 광덕 스님께서 내어 주신 숙제 제목이다.

매주 공부 한 것에 대한 주제를 리포트로 제출 하는데, 법주 스님께서 내 주신 이 주제에 대해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불광 법회 인연, 큰 발심

'법등' 모임 가지며 생활불교 실천

며칠을 혼란속에 보내다 버트런트 러셀의 〈행복론〉 등 행복에 대한 책을 비롯하여 〈반야심경〉 〈반야경〉 등 관련서적을 이리 저리 뒤지다가 마지막 날 리포트 용지 20쪽의 우답을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광덕 스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장문의 리포트가 아닌, 평생 간직할 화두를 주신 것이며, 수행방법에 대한 스스로의 깨침(覺)을 주신 것임을, 스님의 현생을 마감하는 범어사 다비장의 불길 속에서 참회의 눈물과 함께 뒤늦게 알아 차렸다.

수행일기를 써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수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몇 개월을 거절하다 불광법회, 광덕 스님과의 인연과, 그 속에서 살아온 20여년을 정리하는 기회로 여기고자 한다.

불광법회의 닦음(修)은 '반야바라밀의 각(覺)' 이고 실천(行)은 '보현행원' 이다.

내가 처음 '마하 반야 바라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라는 경구가 인상적이던 불광법회에 인연이 되어, 기초교육, 바라밀교육, 명교사 교육을 단계적으로 받기 시작할 때는 크나 큰 발심으로 공부하는 자체가 즐거운 시절이었다.

불광 교육 및 수행의 몇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바라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실천이었다. 즉 불교계 내외에 정법과 동떨어진 나쁜 관행과 한쪽으로 치우친 신행 방법을 바로잡기 위해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수진들의 강의와 철저한 교육평가로 불교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이 반야바라밀이 되게 하는 교육이었다.

습의 교육 역시, 중요한 배움이었다. 재가 불자들에게 목탁 및 의식 집전 교육을 시켜 불자들끼리도 기도와 의식의 집전을 가능케 하고, 의식의 대중화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동적인 기도에서 능동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스님들의 일을 덜어줌으로써 수도 및 전법자로의 역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덕분에 모든 불광교육 이수자들은 목탁과 의식집을 가지고, 병원, 가정 등 기도가 필요한 어디에나 달려가서 기도하는 불교의식의 집전자가 되고, 전법자가 되었다.

광덕 큰스님은 보현행자로서의 수행과 실천을 하도록 불광형제들의 소모임인 '법등' 에서 어떻게 모임을 갖고,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지를 자세히 지도하셨다. 이런 교육과 동시에 불광수행의 핵심인 '법등' 조직에서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전법하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혼자 수행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사찰 안팎이 따로 없고 수행처가 따로 없는 생활속의 불교, 생활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었다.(계속)



◇명상아카데미 직장인 수련생들이 7일 저녁 '화두 명상' 1대1 문답을 가진 후 좌선하고 있다.

수행 애로점 면담 통해 해소

네단계 수련과정 등 처한 상황 따른 지도

"보고, 듣고, 숨쉬고, 물 마시고, 움직이는 이것이 뭔가 하고 참구하면 되겠습니까?"(수련생)

"보고, 듣고, 숨쉬고, 물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본다, 듣는다, 숨쉰다, 물마신다, 움직인다 합니까?"(혜봉)

"그렇지 않습니다."(수련생)

"보고, 듣고, 숨쉬고, 물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각각 따로 따로 있습니까?"(혜봉)

(침묵하다가) "모르겠습니다."(수련생)

" '왜 모르겠다' 고 하지요?"(혜봉)

"말로 할 수 없습니다."(수련생)

"말로 할 수 없다 함은 무엇입니까?"(혜봉)

"이거다 저거다 이름 붙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도무지 말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수련생)

"그러면 그놈이 뭐죠?"(혜봉)

"모르겠습니다. 다만 콱 막혀서 답답할 뿐입니다."(수련생)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다' 라고 말로 할 수도 없고 알고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오직 답답하기만 하고 '이 뭣고?' 하는 의문만 남는다면, 말이 끊어진 화두문에 들어섰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러서지 말고 '이 뭣고' 하면서 참구해 나아가세요."(혜봉)

7일 저녁 8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딩에 소재한 명상아카데미 선실(禪室). '직장인을 위한 화두명상' 시간에 한 수련생이 혜봉 선생(지도법사)와의 문답을 통해 화두 드는 법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른 수련생들도 한 주 동안 수행해 온 화두명상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의문사항을 1대1 문답을 통해 해소하곤 한다. 문답이 끝나고 혜봉 선생이 죽비를 세 번 치자 일제히 단정히 정좌해 화두명상에 몰입한다.

이 '화두명상' 은 일반 선원의 간화선과 다름 아니다. 일반인과 타종교인을 상대로 수행을 지도하다 보니 '명상' 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화두를 들 수 있도록 쉬운 방편을 제시하고, 수시로 지도자와의 문답을 통해 수행과정상의 오류를 줄여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자가 가장 간절한 문제를 화두삼아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스스로 보리심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명상아카데미의 수행방편은 화두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관법, 염불, 진언, 요가, 오체투지 등 다양한 방편을 각자의 근기에 맞게 택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개인 지도를 한다. 심지어 염송하는 진언들까지 수련생들이 처한 상황을 배려해 지도한다.

예를 들면 화를 잘 내는 이에게는 '대비주' 를, 잡념이 많은 이에게는 '준제진언' 을, 영가의 장애가 있는 이에게는 '광명진언' 을 각각 외우도록 한다. 이같은 배려는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안내자(법사)들의 말이다.

이러한 방편은 크게 네 단계의 수련과정으로 나뉜다. 바라보기 집중하기 알아차리기 인정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법명상', 지우기 버리기 등 번뇌와 망상을 제거하는 '방하착(放下着) 공부', 벗어나기 참구하기 원(願) 세우기 등 '발보리심(發菩提心) 과정', 세상돕기 진리대로 살아가기 등 '체득 과정'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각 단계별로 안내자들과의 정기적인 문답과 공부모임 등을 통해 수행상의 오류를 시정해 점진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97년 12월 명상아카데미(www.bodhitao.com)가 설립된 이래 '자기발견과 완성을 위한 프로그램',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치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규 및 비정규 수련을 통해 배출된 수련생은 2000여명. 이 곳에서 수행한 이들 중에는 김홍신 국회의원, 이금림 방송작가, 박정미 수녀 등 유명인사들도 적지 않다. 그동안 내 외부 강사로 활동하는 15명의 안내자를 배출, 불교 수행법 보급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혜원(40) 교육부장은 "명상아카데미의 설거지 명상, 달리기 명상 등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방편들은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마음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02)598-718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명상아카데미의 '화두명상'

번뇌망상 알아채 이를 버리고 발심해야

"모든 생각과 의도, 일체의 느낌과 번뇌가 사라졌을 때 오직 바라보는 자, 아는 자만 남을 때, 아는 자를 깨닫는 것이 명상의 최상입니다."

혜봉(48) 명상아카데미 지도법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판단과 분별없이 그대로 느끼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되어 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이것이 뭔가? 사무쳐 참구하라."고 강조한다.

혜봉 법사는 수행 입문자들이 처음부터 화두를 드는 것은 쉽지 않기에, 먼저 각자의 근기에 맞는 관법, 염불, 진언, 요가, 오체투지 등의 방편을 통해 자신 내면의 생각(번뇌)을 바로 알아채고 이를 버리며(방하착), 발심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다음 간절한 의심으로 '이뭣고' 나 '무' 자 화두 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입문자나 타종교인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쉬운 용어와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혜봉 법사는 정토회 정토수련원의 토대를 만들면서 이런 수행지도의 노하우를 갖게 됐다.

지난 80년, 최근 입적한 서암 스님으로부터 '무' 자 화두를 받은 혜봉 법사는 85년부터 본격적인 화두 참구를 시작해 3년만에 화두를 타파, 서암 스님으로부터 만허(萬虛)라는 법호를 받았다.



혜봉 지도법사

수행 캘린더

■철야 염불정진법회=만일염불결사회는 19일(셋째 토요일) 오후 8시 성남 정토사에서 회주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의 지도로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연다. (031)723-9797

■아비라기도=경남 산청 길상선사는 19일 토요일(셋째주) 오전 10시 아비라기도(60회 또는 20회) 법회를 연다. 2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아비라기도는 8회 실시된다. (055)973-6861

■금강경 강설=국청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강의실에서 금강경 대강좌를 연다. 강사는 〈금강경 강설〉의 저자인 정각 스님(동국대 교수). (02)730-1249

■전심법요 강의=부산 무심선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심법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금강경' 법회를 연다. 강의는 무심선원 장 김태완 부산대 강사. (051)515-7226

■근본불교 경전 공부=천안 호두마을은 정원 법사의 지도로 25~27일 근본불교 경전공부 모임을 갖는다. 상임지도법사 혜연 스님은 매달 셋째 주말 집중수련회를 연다. (041)567-2841

■자아찾기 강좌=서울 불교인성개발연구원은 불이불교대학 주관으로 안암동 개운사에서 '자아(自我) 찾기' 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 16일 오후 1시30분과 저녁 7시 30분 '깨달음의 법칙' 을, 23일 같은 시간 '십우도' 를 주제로 각각 강좌를 연다. (02)922-3026

■철야 참선=경기도 광주 봉곡선원은 주말 철야정진 선방을 열고 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철야정진 시간에는 인천 용화사 송담스님의 상좌인 정석 스님이 참선과 선체조를 지도한다. (031)765-7094

■외국인 유학생 참선교육=서울 서초구 우곡선원은 5월 3~4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 4차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02)529-5027

■부처님 호흡법 수행=법왕정사 주지 청견스님은 매주 수요일 오후 1~3시 서울 청담동 청호불교문화원 7층 대법당에서 부처님 호흡법을 지도한다. (031)771-7745

■참선 철야정진=충남 진산 한주선원은 19~20일 철야정진 법회를 실시한다. 이 시간에는 참선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041)753-5722

팔공산 (관봉) 약사암 대웅전 건립 대작불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도 영험이 널리 알려진 약사성지 팔공산(관봉) 약사암에서는 석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사 원만회향을 위해 3년째 10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약사암 대웅전 건립불사에 불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수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복덕과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웅전 불사 동참 안내

대들보	1,000만원	기 둥	300만원	청 룡	300만원
황 룡	300만원	현 판	300만원	주 련	100만원
주춧돌	50만원	서가래	20만원	축대석	10만원
문 (앞)	200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01-0600-052 주택은행 810702-01-035169
대구은행 200-08-007118-4 예금주 : 장영순

※ 시주금을 입금하신 불자님은 반드시 약사암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관봉) 약사암 주지 일여 장영순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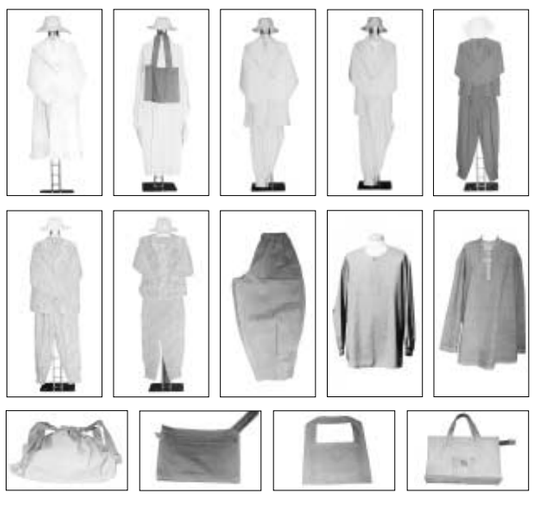
☎ 053)852-0803, 851-4632 / Fax 053)852-9453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번지

봉은승복사 할인매장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종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제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내



가격안내

◈ 모직혼방 ※ 20만원이상 구매시 티셔츠 1장 증정함 ※

1. 두 루 막 110,000원
2. 장 삼 180,000원
3. 동방바지 140,000원
4. 적삼바지 100,000원
5. 개 량 복 [*할인금액*] (여) 80,000원 (남) 90,000원
6. 조끼, 바지 50,000원
7. 반 가 사 50,000원
8. 대 가 사 80,000원
9. 책 가 방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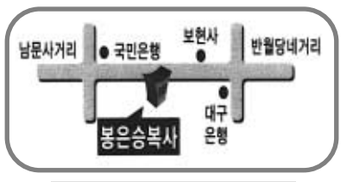
◈ 천연염색 (회색, 밤색, 흰색, 쑥색, 황토색)

1. 티셔츠 20,000원
2. 바 지 25,000원

[redacted]
● 국민은행 : 617-21-0388-842
● 우 체 국 : 701227-02-029554
● 예 금 주 : 박 철 오

봉 은 승 복 사

전 화 : 053)421-5451 / 053)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대리점 모집합니다



Welcome to Korean temple!

문사수회의 외국어 통역봉사

바라밀현장

5일 오후 서울 봉은사 보우전. 주지 원혜 스님이 한국 불교에 대해 설명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관계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누구나 알 만한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언어의 벽이 가로 막는다면 문제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을 찾아왔을 때가 바로 그렇다.

이 때 외국어에 능통한 불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Sakyamuni Buddha said 2500 years ago that everything is dependent upon each other. We call this Dependent origination."

원혜 스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진행된 유창한 외국어 통역. 통역자들의 노력 덕분에 외국인들은 그제야 1,600년 역사의 한국 불교의 멋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고개가 저절로 끄덕거린다.

이날 프로그램은 '제1회 주한외교사절 및 상사 임원부인 초청 한국 전통사찰 체험 행사.' 이 행사에 참여한 푸른 눈의 외국인들은 사찰 참배, 발우공양, 다도 시연 , 선식 강연, 사찰 음식 체험 등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 부인 로빈슨 씨는 "마늘 같은 향신료로 사찰 음식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발우공양의 소감을 밝혔다. 네델란드인 에이팍 씨도 "한국 절을 지나면서 본 적은 있어도 직접 방문하기는 처음"이라며 "통역 봉사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진행하며 한국 불교를 낯선 이방인들에게 알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봉은사 문사수회(회장 이태길) 회원들이다. 한국 불교를 알고 싶은 외국인들의 귀와 입이 되는 문사수회는 봉은사의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모임이다. 80여 회원 대부분이 몇 년 이상의 외국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10여 명은 국제포교사로도 활약 중이다.



◇문사수회원들이 5일 봉은사에서 열린 사찰 체험 행사에서 외국인들의 발우공양을 돕고 있다.

문사수회는 현재 봉은사 내에 외국인 안내 부스를 자원봉사로 상설 운영 중이다. 또 문사수회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불교를 배우는 모임도 갖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화경 영어 공부 모임, 비디오 법문 시청 후 토론 등 프로그램도 시작할 계획이다.

외국어로 불교를 공부하고 통역 봉사를 하는 문사수회가 만들어진 것은 2000년 10월. 서울에서 제 3차 아셈 정상회의가 열릴 무렵이다. 봉은사 신도들은 한국 불교를 알릴 절호의 기회로 삼자고 서원을 세우고 6월부터 회화 및 사찰 안내 교육을 자체 실시했다.

문사수회의 진가는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 유감없이 발휘했다. 봉은사는 40여 일 동안 계속된 월드컵 행사 기간 내내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발우공양, 참선, 예불, 다도 체험, 인경, 불화그리기, 연등 만들기 등 1박 2일 코스로 진행된 봉은사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불교 문화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대부분 외국생활 경험…템플스테이서 활약

영어 뿐 아니라 일어 · 중국어 모임도 가져



문사수회 **이정희** 총무

한국인들 불교가치 몰라 안타까워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사찰 등 불교 유적을 보고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단체인 문사수회의 총무 이정희(50) 보살. 이 보살은 "문사수회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思), 나의 삶을 수정함으로써(修) 정토에 이루자는 뜻을 갖고 있다"며 "봉은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그들의 입과 귀가 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BRD와 IPU 총회 등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한 이 보살은 "외국인들은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일부 한국인들이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불교의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인 이정희 총무는 올해 전통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실시하는 것은 물론 청년 불자들의 국제조직인 WFBY 한국 지부의 해외 활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국제캠프 등의 진행을 도울 생각이다.

心 마음비추기

이 순간을 보면 윤회를 안다

종종 사람들로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보면 윤회를 바로 알게 된다고 대답한다.

알다시피 윤회설은 불교의 내세관이다.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윤회에 관한 연구는 동양보다 서양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 서양의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인간에게는 현생 이전에 수많은 전생의 삶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수 천 권도 넘는 증명할 수 있는 실례와 보고서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윤회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윤회를 꼭 몸을 받고 태어나기 전이나 몸을 버리고 죽은 후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 찾아보자는 말이다.

<구사론>에 따르면 중생이 나고 죽는 과정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한다. 이것을 4유(有)라고 하는데 첫째,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生有) 사는 동안을 본유(本有), 죽는 순간을 사유(死有),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동안의 기간을 중유(中有)라고 한다. 그리고 중생은 이 과정을 통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이라는 육도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네 단계와 여섯 갈래의 길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현재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생유', 그 생각이 머무는 기간을 '본유',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을 '사유', 그 생각이 소멸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사이를 '중유'로 볼 수 있다.

6도 역시 한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 한 마음이 욕심을 내면 아귀,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축생, 한 마음이 착하면 인간, 한 마음이 싸우면 아수라, 한 마음이 기쁘면 천상이다. 이렇게 알면 윤회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

이 같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생은 결국 하루 종일 사상을 당하고 육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이며,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해탈이라는 것은 결국 이 현재며 순간인 찰나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형태라 할 수 있고, 수행 역시 현 찰나의 윤회하는 마음을 바로 닦고 바로 보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전생의 나는 어떤 존재였으며 내생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구태여 알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윤회에 대한 바른 소견이라 할 수 있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조애나 메이시 (上)

평생 불교의사회화에 헌신

"점점 커지는 동심원 속에서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온 세상에 닿아있네. 완성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원에 나는 전 존재를 바친다네."(<넓어지는 동심원> 중에서)

불교생태학의 토대를 일군 미국의 조애나 메이시(74 · Joanna Macy)는 수행자이자 심층 생태학자, 사회운동가로서 현재도 정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자서전 <넓어지는 동심원(Widening Circles)>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얻은 하나의 마음을 온 세계로 회향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저술과 강연을 쉬지 않고 있다.

1929년 LA에서 태어난 메이시는 대학시절 다양한 사회운동을 경험한 탓으로 평생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64년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난민을 돕던 그녀는 티베트불교를 접하게 된다. 돈보이는 인품과 덕행으로 불교의 정수를 전해주던 프레다 베디(Freda Bedi)가 첫 번째 스승이었다.

특정 종파 구애 없는 수행으로 깨달음 회향 생명운동 강조 위한 '모든 존재들 의회' 제창

이 무렵 그녀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나'라고 집착하던 것이 본래 없다는 '무아(無我)'를 체험하게 된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전에 생각해왔던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다. 나 자신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늘 존재한다고 믿었던 나라는 것이 인습이고 허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넓어지는 동심원> 중에서)

메이시는 이후 틱낫한 스님으로부터 선불교를 배웠으며, 티베트의 쵸갈 린포체(Choegal Rinpoche)로부터 밀교를 사사받는 등 특정 종파에 상관없이 다양한 수행을 접하면서, 그 깨달음을 사회로 회향하기 시작한다. 메이시의 불교사회운동의 서막은 78년 아이켓 선사와 함께 불교평화우의회를 설립한 일이다.(현재는 자문위원)

이 해 메이시는 시라쿠스 대학에서 연기론과 심층생태학을 접목한 논문 <연기법과 시스템이론>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불교생명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로부터 그는 전세계를 무대로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강연과 워크숍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듬해 그는 아리야라뜨네 박사가 이끄는 사르보다야 운동을 배우기 위해 포드재단의 기금을 받아 스리랑카로 떠난다. 1년간의 현장 체험은 <다르마의 개발 : 사르보다야 운동에서 보이는 자원으로서의 종교>란 역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조애나메이시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기 위한 메이시의 노력은 일명 '사회적 신비주의'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의 의회'를 제창하게 했다. 이를 테면 인간이 산에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 산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과 산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용과 파괴를 해왔던 인간의 행위를 반성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명운동을 강조한 우화적 이론이었다.

메이시는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 세상을 '나의 연인' 또는 '나 자신'으로 보자고 역설한다. 이 세상을 선악의 대결장으로 보고, 자신이 선(善)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한 오만불손한 공격성에 쉽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계속)

김재경 기자

大韓佛教全國山岳人聯合會 임원 초빙 공고

조직 확대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신심 깊은 인사(남, 녀)를 임원으로 초빙합니다.

● 부총재 : 0명 ● 이사 : 00명

1. 연 혁

본 연합회는 1997년 6월 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宋月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창립대법회를 봉행한 바 있고, 동년 10월 3일 개천절에 경북 안동에 있는 약산 홍은사(본회 지정수행도량)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총 발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본 연합회는 종단과 종파,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성지순례를 통한 산림법회, 자연환경 보호는 물론 불교문화 창달과 보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순수 산행 불교단체입니다.

3. 연합회 구성

顧 問

김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 당연직)
송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이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이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박봉식 (前 서울대학교 총장, 現 금강불교대학교 총장)
송석구 (前 동국대학교 총장)
정인악 (前 연합회 총재, (주)남양회장)

諮問委員 교계언론사 대표 위촉
名譽總裁 손현수 (초대~2대 총재, 대현그룹 회장)
總裁 김정길 ((주) 삼원개발 회장)
副總裁 한계수 外 수명
監事 이돈종
理事 경봉수 外 수명
事務總長 김대원

- **支會 및 단위 산악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道 지회와 40여 단위 산악회 활동 중
- **현 정회원 :** 약 3만여명 ※ **각 지역에서 활동중인 불교산악회 및 일반불자 가입 환영**

※ 향후 수십여만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신도회관 4층 전화 02)735-1108, 011-9739-9505. 팩스 733-7278**

大韓佛教全國山岳人聯合會 總裁 金 正 吉



안 양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卍 제4기 경전반 卍

(6개월과정.금강경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입학일시 5월 2일 오후 2시
접수마감 4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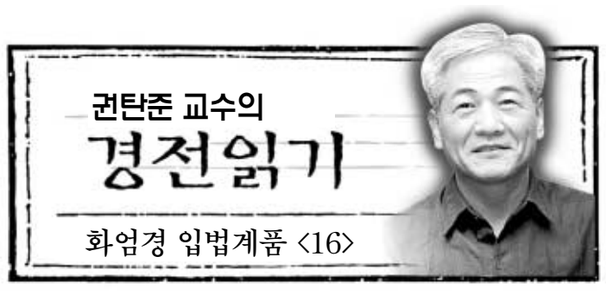
- 강의교수 : 뜻으로 읽는 金剛經 저자 송찬우
- 송찬우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수료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에서 강의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주요 특강 교수진

- 지관 큰스님 – 전 해인사 주지, 동국대 총장, 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 세 민 스 님 – 해이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 법 산 스 님 – 동국대 정각원장
- 현 각 스 님 – 동국대 선학과 교수
- 태 원 스 님 – 중앙승가대 교수
- 현 호 스 님 – 안양불교대학장, 지장선원 주지
- 권기종 교수 – 동국대 전사회교육원장
- 최 영 준 – 불교방송 진행자, 개그맨, 가수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입학문의 : (031)444-5935, 5936



문수보살의 가르침

"선지식 가까이 하고 가르침 실천하라"

보현행은 믿고 구하는 사이 자연히 성취

선재동자가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참회하고 새롭게 살아갈 것을 발원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기를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청하는 것을 듣고난 문수보살은 그가 이미 보리심을 발해서, 선지식을 가까이하여 보살행을 묻고 보살도를 닦으려 하는 정신을 칭찬하면서 "선지식들을 가까이하고 공양하는 것이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이기 때문에 이 일에 고달파하는 생각을 말라"고 당부한다.

문수보살이 선재동자에게 가장 먼저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할 것을 권하면서 결코 이 일에 고달파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은 보살도를 닦아 나아가는 데에 선지식의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진실로 화엄경 입법계품은 모든 대승경전 가운데서 선지식의 의의와 그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분명히 선재동자의 구도 과정 전체를 일관하는 근본정신이다. 선재동자가 많은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선지식을 구하고, 선지식을 친근하고, 선지식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은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근본태도다.

보살도를 닦으려면 먼저 선지식을 친견하고 공양하라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선재동자는 다시 보살행을 배우고 닦으며, 보현행을 빨리 원만하게 하는 법을 묻는다. 이에 대해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은 게송을 설하는 것이다.

"광대한 서원을 세워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세상 사람을 위하여/ 보살행을 닦나니// …방편바다에 들어가/ 부처의 보리에 머무르면/ 지도하는 스승을 따라 배워서/ 온갖 지혜를 이루게 되리// 그대 모든 세계에 두루하며/ 티끌 같은 겁 동안에/ 보현의 행을 닦아 행하면/ 보리의 도를 성취하리라"

보살행이란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닦는 것이며, 스승의 지도를 따라 배워서 온갖 지혜를 이루게 되며, 일체의 시간과 장소에서 항상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고 자비로운 행을 펼치는 보현행을 수행하여 도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설한 것이다. 여기에 보살행을 닦는 목적과 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보살도를 닦아 나아가는 데에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이 이토록 강조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선지식이 법을 설해주는 훌륭한 스승으로서 모든 법을 바르게 잘 알아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입법계품>에서 "선지식은 모든 나쁜 길을 널리 구호하며 여러 평등한 법을 널리 연설하며, 모든 평탄하고 험난한 길을 보이며 대승의 깊은 이치를 널리 열며, 보현의 모든 행을 널리 닦기를 권하며, 온갖 지혜의 성에 널리 인도하여 이르게 하며, 법계의 큰 바다에 두루 들어가게 하며, 삼세의 진리의 바다를 널리 보게 하며, 여러 성인의 가르침을 보여주며, 모든 청정한 법을 널리 자라게 해준다"는 바로 선지식의 의의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있다. <입법계품>에서 "선지식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세존이 모두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순종하면 온갖 지혜를 갖춘 경지에 가까워지며, 선지식의 말에 의혹이 없으면 모든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마음을 내어 항상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 모든 이치를 구족하게 된다"고 설한 것은 선지식을 친근하면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식이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주는 근원으로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해주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선지식을 친근하는 의의와 공덕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진실한 세계에 새롭게 눈을 뜬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최초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보현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과 그 보현행을 갖출 수 있는 도(道)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현행을 갖추는 것은 선지식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구해가는 사이에 자연히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에게 선지식을 찾는 일에 싫증을 내거나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말고, 선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남쪽의 승낙(勝樂)이라고 하는 나라의 묘봉산(妙峯山)에 있는 덕운(德雲)비구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살이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하게 하느냐"고 물을 것을 권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⑪

혜원의 돈교비판(2)

차이점 주목 못하면 성립기반 무너져

법장의 돈교론에 대한 혜원의 첫 번째의 비판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면, 두 번째 비판은 '말 떠난 이치의 존재'에 향하여져 있다. 만약 돈교를 '말 떠남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침묵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서 대상으로서 이치를 드러내는 교설의 범주에 포함할 수가 없다.

돈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말 떠남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이치'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혜원은 말 떠남 자체가 그대로 이치를 드러낸다면, 이런 경우는 다른 가르침에서도 말 떠남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돈교의 독자적인 교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침의 대상으로서 이치가 말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대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 떠남' 그 자체가 이치라는 관점이다. 말 떠남이 그 자체로 이치라면, 이런 가르침은 돈교(頓教)뿐만 아니라, 대승종교(大乘終教)나 화엄원교(華嚴圓教)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혜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유독 '돈교'라고 따로 독립시켜서 별도의 교판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보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불교사를 개관해 보면 교설은 끊임없이 기존의 견해를 부정하면서 발전해 온 경향이 있다. 불교는 어떤 하나의 교설만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불교의 역사란 기존의 교설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교설에 대해서는 배반의 역사였다는 평가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배반이란 기존의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창조적인 참여로 이해된다. 어떤 교설이 처음에 나타나 주도적인 가치로 자리잡으면, 그것은 결국은 맹목적인 추종자를 배출하는 독단이 되고, 시대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권력의 형태로까지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불교는 아트만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아의 교설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출가중심의 떠남이 강조되면서, 지금여기의 현실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에서 주장하는 법 자체가 또 하나의 개념 내지 관념에 떨어진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법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법무아(法無我)의 교설과 보살이란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역사다. 대승의 현실긍정이라는 가치는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화엄의 법계연기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대한 절대긍정은 다시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관념에 떨어졌으며, 나아가서는 수구적 정치권력에 대해서 허약한 측면을 드러냈다. 이런 화엄교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수행이론이 바로 간화선이다. 따라서 간화선은 화엄교학의 교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듯이 돈교를 '말 떠남과 생각을 끊음'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유독 돈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의 역사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교설에서 나타난 성격이라는 것이다. 법장의 <오교장>에서 말하는 교판은 교설 간의 동질성보다는 차이점을 명료하게 구별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설 사이에 나타난 차이점이야말로 그 교설이 존재해야하는 역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종파불교가 성립되는 현실적인 근거이기도 한다. 교설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교판설은 사실상 성립기반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역할까지 망각할 수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불교를 통불교라는 획일화된 전통적인 이해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지양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직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일체유심조와 집합무의식

"존재하는 모든 것 마음이 모여 된 것"

초양자장 충만한 우주 불교의 心과 비슷

우주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칼 융은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공(空)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했다. 이때 공(空)이란 심(心), 여래장(如來藏) 혹은 불성(佛性)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우주 허공을 충만하고 있는 공(空)이라는 단어는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해석하는데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공과 일체유심조를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불교의 일체유심조는 원체 유명하여 일반인들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체유심조 뜻을 원효스님과 해골바가지 속의 물에 대한 일화로 설명하고 있다. 즉 똑같은 물임에도, 모르고 마셨을 때는 감로수가 되었으나, 해골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인 줄 알고났더니 속이 뒤틀린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경우의 일체유심조는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공이란 부처님이 깨친 자리에서 이 허공을 바라보았을 때, 허공을 이루고 있는 실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후세 사람들이 가장 적당한 말로 생각해낸 것이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sunyata)'이다. 이 말이 중국 스님들에 의해서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단어가 공(空)으로 된 것이다.

일본의 불교 철학자 우에다 요시부미가 저술한 <대승불교의 사상>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불교경전에는 공(空)과 같은 뜻으로 심(心)과 식(識)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인도불교에서는 심이라는 단어보다 공이나 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불교에서는 공보다 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속에 심(心)자가 들어 있어 사람들은 일체유심조를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해석하는 모양이나, 심자 대신에 심과 같은 뜻인 공(空)자를 넣어 '일체유공조(一切唯空造)'라고 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공(空)이 모이고 모여서 된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이를 다시 공(空) 대신에 심(心)을 넣어 해석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심(心)이 모이고 모여서 된 것이다"가 된다. 필자는 이것이 올바른 해석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心)이 모이고 모여서 된 것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설명해 보겠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으로 충만돼 있다고 하였으며, 초양자장으로 충만된 우주는 하나(oneness)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초양자장은 '능동성 정보(active information)', 혹은 '초의식(supermind)'와 같은 뜻이 있으며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과 매우 비슷하다.

일체유심조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지구 환경, 나아가 인간과 우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필요하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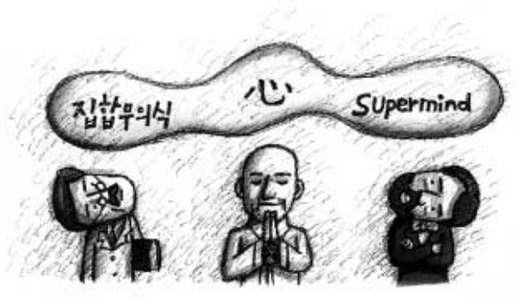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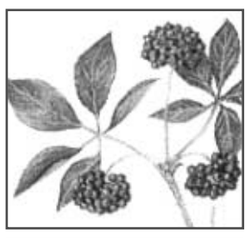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 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 · 노년층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 · 노년층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이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 김헌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알린크 / 홈페이지 : http://www.knr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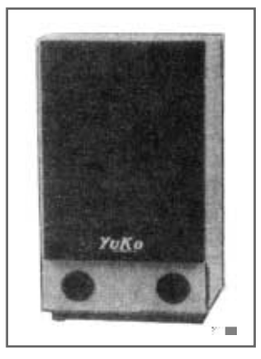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 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동참** [우리은행 551-215163-02-001 성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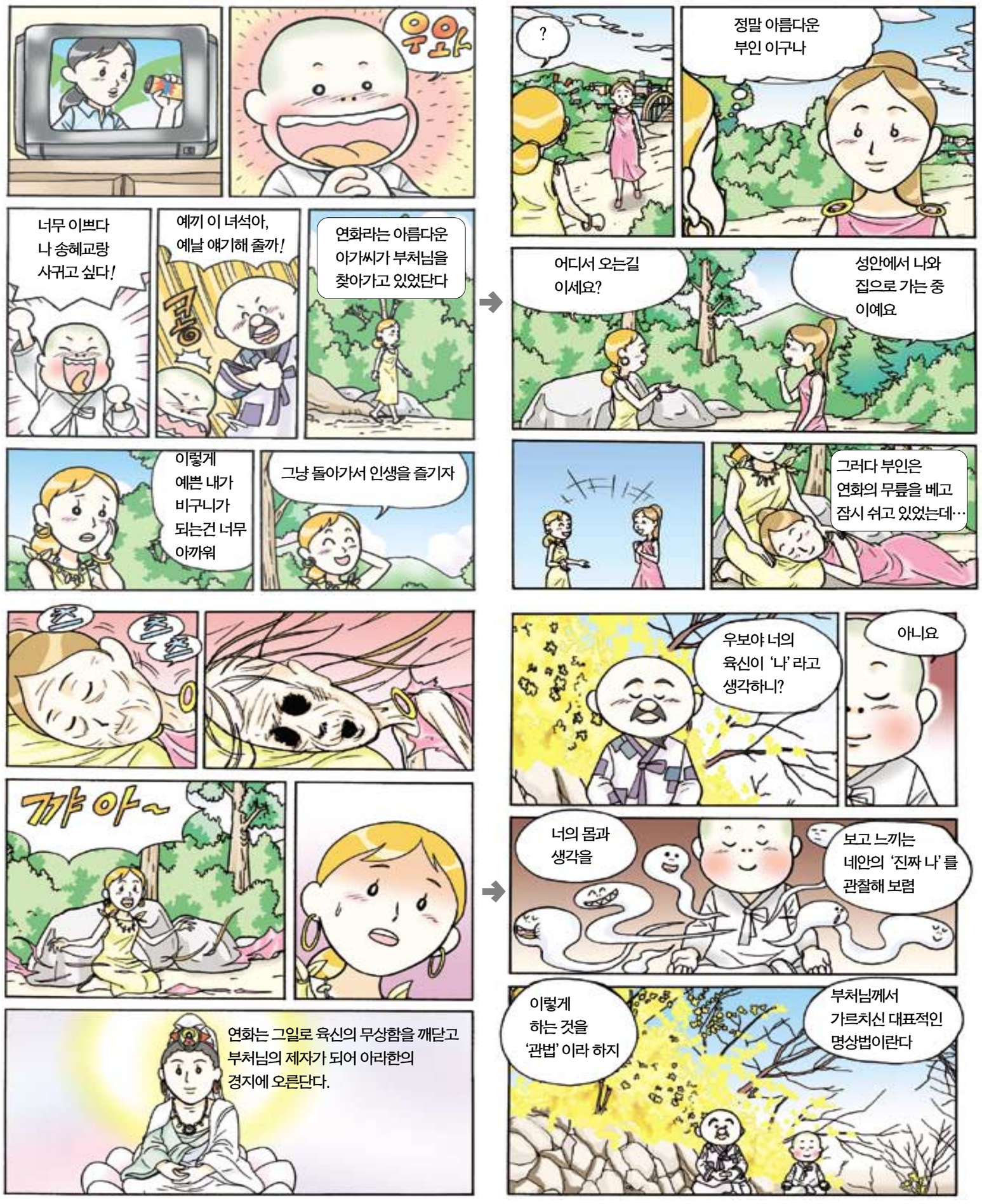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567-6822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5화)

"이 육신이 영원하다고 생각 하느냐?"

〈출전 : 잡아함경 제2: 33경: 2-7중. ②법구비유경〉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토끼 뿔

분별은 미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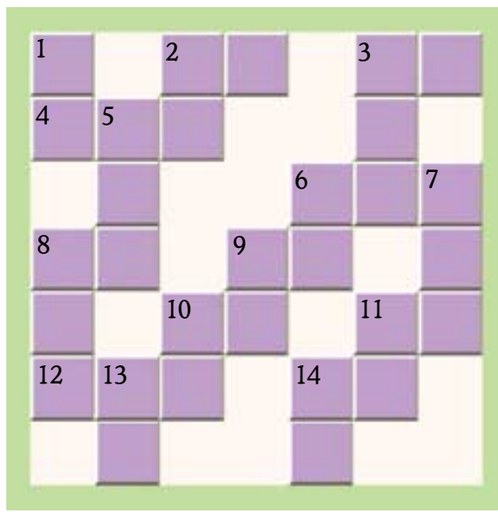
홍콩 배우 장국영에 이어 또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의 처우 문제로 전교조 교사와 대립하다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이다. 그리고는 교권을 우롱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부모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선재는 보도의 주어와 목적어를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교장선생님의 협박에 못 이겨 선생님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장선생님이 자살하였다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정황만으로 '추측'하는 내용만 넘친다. 그 분이 왜 자살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다.

선재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없었던 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토기 뿔이나 거북이 털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토끼 뿔이나 거북이 털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일에 대한 비유이다. <수능엄경>에서는 "중생의 분별된 소견으로 보여진 것은 토끼 뿔 같으니 분별이란 미혹이어서 새가 아지랑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허망하게 법을 분별하고 그에 의해서 분별하는 소견이다. 인연과 분별은 없는 것이니 인이 없으므로 분별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상을 잘못 보지 못하도록 경계시킨다. <금강삼매경> 역시 "법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말하면 털 바퀴 같고 아지랑이를 물로 보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어서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만일 법이 없다고 본다면 장님이 해 없다며 넘어지는 것과 같고 설법 역시 거북 털 같으리라."며 잘못된 견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토끼 뿔 이야기를 꺼내면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괜한 토끼만 잡는 수가 있다. 토끼 뿔 이야기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416호 「교리퍼즐」 정답〉



가로

2. 조석 예불때 치는 북 3. 5계의 하나로 잡념을 버리며 진리 닦는 일에 매진하는 것 4. 가사의 다른 이름. 가사는 흑니색(黑泥色) 동청(銅靑)색 건타색(乾陀色)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이들 모두가 완전한 흑·청·적이 아니고 중간 색이므로 붙여진 이름 6. 연각의 깨닫는 경지에 도달하는 탈 물건(敎法)이란 뜻. 8마음 속에 진리를 관찰하는 불교일반의 수행법 9.교도감화(敎導感化)의 준말. 남을 타일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10. 자기자신을 높여부르는 마음이 생기는 것.(起慢) 11. 경전을 보고 읽는 것 12. 부처님의 좌석이라는 뜻 14. 고려 시대에 태동한 것으로 부패한 불교를 반성하고 불교의 혁신을 부르짖은 운동

세로

1.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 등 의식이 있을때 당(幢)을 달아 두는 기둥 2. 출가한 사람이 입는 옷. 가사 3. 제불(諸佛)의 무상정지(無上正智)를 말함 5. 부처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것.(色相觀) 6. 연이 수면 위에 나와 핀 꽃을 의미 7.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대승경전 8.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鎭西面) 석포리(石浦里)에 있는 사찰. 보물 291호 대웅전, 277호 고려동종 등의 유물이 있음 9.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뜻하는 말 10. 좌법(坐法)의 하나로 기거(箕踞)와 같은 말 11. 스님 될 이를 가리는 일. (揀師) 13. 자신이 깨닫는 것 14. 불보살이 인간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과 인연을 맺게하는 것.(結緣)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만든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3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7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것이 없어요.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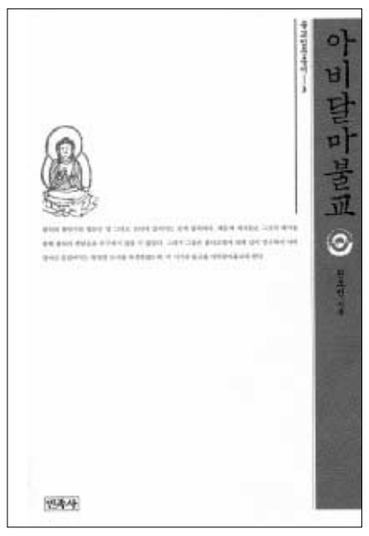
★농협:143-12-049474 송명화

원시·대중불교 이해 필독서

'아비달마불교'

권오민 지음

민족사 / 9천원



구사론 바탕 부처님교법 알기 쉽게 저술
아비달마 본질·교리·용어 간결하게 정리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서 열반에 드셨다. 남은 것은 오직 그의 말씀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문(聲聞)의 제자들로서는 스승이 남긴 교법을 결집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스승이 지나갔던 발자취를 따르는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들 성문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불타의 교법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겨난 경전이 바로 <아비달마 논장>이다.

권 교수는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아비달마불교는 논의를 위한 논의, 번쇄한 이론체계, 자신의 열반만을 추구하는 자리(自利)의 불교라는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비달마불교는 원시불교 경전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성립한 직접적인 해석체계이므로 이것에 대한 이해는 원시불교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집필 의도를 밝힌다. <아비달마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했던 8만4천의 법문을 온갖 언어적 개념으로 정리 해석하고 있다. 이른바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방대한 문헌들을 산출했으며, 그 정점이 바로 <아비달마구사론>이다. 그래서 '구사학(俱舍學)'은 전통적으로 불교학의 기초학문으로 인식돼 왔다. 이런 <구사론>을 바탕으로 저술된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은 '아비달마'의 본질이다. 아비달마의 본질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지만, 그것이 세간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언어적 개념으로 정리되고 해석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2장 '존재의 분석'에서는 언어적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계에 대해 밝힌다. 이를테면 분노라는 현상은 사실 자체로는 단일하지만 온갖 원인과 조건이 얽히고 설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현상으로 이른바 '제법분별(諸法分別)'로 일컬어지는 존재의 분석을 통해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음을 일깨워 준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3장에서는 온갖 번뇌와 업에 의해 야기되는 '미혹에 대해', 4장에서는 존재실상에 대한 통찰에서 드러나는 열반 즉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히 마지막장은 아비달마불교가 이론위주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필자의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다. 또 입문서 개념으로 기획된 것이여서 인지 온갖 개념과 용어를 가급적 줄이거나 쉽게 풀어쓰려 노력했던 흔적들이 책장을 쉽게 넘기게 해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반야심경'

정성본 지음

한국선문화원 / 3천원

마음으로 읽는 반야심경

생활속에서 반야 지혜 터득하는 길 안내

<반야심경>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있는 경전이다. 조석 예불을 비롯해 불교 행사나 의식에서 빠지는 법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 불교 의식에서는 한문경전을 그대로 독송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반야심경>의 내용과 실천정신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법회의 식으로 외우고 독송하는 경우가 많다.

번뇌 망념을 텅 비우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지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외우는 <반야심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경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반야심경>을 수차례 강의하면서 요약한 교재를 토대로 약간의 설명을 첨가해 만든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의 <반야심경은 단순한 불교 교리의 이해를 훌쩍 뛰어 넘어 생활속에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반야심경>의 원문과 번역문, 해설이 실려있다.

김주일 기자

스님이 들려주는 태교명상시

'사랑, 내 모든것을 다…'

석성우 지음

고요아침 / 6천5백원



부모와 아기의 인연법 등 짤막한 글도 함께

'아기는 뱃속에서 엄마의 숨소리를 듣는다'

그동안 태교 교육관련 저서들을 펴내며 불교식 태교를 연구해 온 성우 스님(불교텔레비전 회장)이 태교명상시를 모은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는 아기에게>를 펴냈다. 성우 스님은 "이 세상에 중요한 일도 가치있는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에는 '수정보다/맑은 마음으로/기다려온인연//기다렸던/시간은/금싸라기 같은 행복이었네('서시' 중에서)'라는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시부터 '당신의 자비/아기 마음되게/당신의 원력/아기 뜻 되게//관세음보살/현신하소서('관세음보살5' 중에서)' 처럼 아이를 가진 엄마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시 등 태교 명상을 위한 64편의 시가 들어 있다. 또 시 옆에는 태교의 중요성, 부모와 아기의 인연법 등 짤막한 글도 덧붙여 놓았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법상스님 명상 에세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라'

법상스님 지음

무한 / 9천원

"오늘 정진하는 108배는 온전히 새로운 공부입니다. 이전부터 해 오던 수행으로 오늘의 정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경이롭고 새로운 순간中)

인터넷 홈페이지 '목탁소리(www.moktaksori.com)'를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법상 스님의 명상 에세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라>가 나왔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소박하면서도 소중한 깨침의 구절들을 선별해 묶었다. 스님이 전국을 여행하며 직접 찍은 사진들도 함께 담겨 있어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출가동기·구도여정 담아



'서산갈매기야 내 한손…'

성관 스님 지음

양지바른곳 / 1만원

수원 용화정사에서 중생 구제를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성관 스님. 스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와 구도의 여정 등을 담담한 문체로 서술한 <서산갈매기야 내 한손합장의 뜻을 알랴>가 나왔다. 어릴 적 우연한 사고로 한 손을 잃고 방황하던 성관 스님은 출가를 하지만 고통의 연속이었다. 스님은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 설악산에서 수행을 시작했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관 스님은 "오랜 세월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밝고 맑은 새 세상으로 나오라"며 독자들에게 한손 합장을 한다.

'왕따' 극복과정 담은 동화



'내 짝꿍은 빡빡이'

박관희 글·그림

행복한세상 / 7천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왕따'라는 집단 따돌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 짝꿍은 빡빡이>는 어린이 동화지만, 왕따라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함께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절에서 스님과 함께 산다고 친구들로부터 '중중 까까중'이라고 놀림받으며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 운회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과정이 동화형식으로 잔잔하게 펼쳐진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2	힘	틱낫한	명진출판사
3	절간이야기	오현스님	고요아침
4	미소짓는 발걸음	틱낫한	열림원
5	감산자전	대성스님	여시아문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7	묻지 않는 질문	현응스님	민족사
8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재경	마당넓은집
9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스님	불광
	능엄주해의	전수태	운주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건강해지는 비결과 부작용 없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이트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 ▪▪ 청국장 먹고 효과 봤어요 ▪▪ 집에서 청국장 잘 만드는 법 ▪▪ 내가 만든 청국장 잘 보관하는 법 ▪▪ 청국장 생으로 맛있게 먹는 법 ▪▪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 '청국장 다이어트'로 17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의 다이어트 체험기 ▪▪ 김한복 교수의 날씬한 몸매 만들기 10계명

'청국장 열풍'의 주인공 김한복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분자생물학 박사 •1997~1998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미생물 및 면역학과 연구원 •1992년부터 호서대에 재직하며 이듬해 청국장 연구 시작 •2000년 1월 '청국장 먹기 운동' 홈페이지(http://chungkookjang.com) 개설 •현재 호서대학교 생물정보학과 교수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 2위 YES24 건강 베스트 5위 알라딘 건강 베스트 6위



•SBS TV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2003. 3. 1.)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방영(2003. 3. 11.)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미생물학 박사 김한복 교수의
청국장 다이어트 & 건강법
김한복 지음 / 272쪽(올컬러) / 14,500원

Human & Books 전화·02-6327-3535 팩스·02-6327-5353 e-mail·hbooks@empal.com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설법
니가 누꼬?
경봉 큰스님 지음 / 명정 스님 주해 / 442쪽 / 12,000원

성철스님도 우러러보았던 20세기 한국 불교의 거목!
-경봉 큰스님의 육성을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보리라.
그리 하다가 죽으면 또 어떠리!"



•여기 실린 60편의 법문은 돌과 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일러주고 있다. -조선일보

•깨달음에 앞서 '참된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경봉 스님은 이해하기 쉬운 설법과 서정성 깊은 60편의 법문으로 중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한다. 하루 한 시간은 일상 속의 '참 나'를 마주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세계일보

★교보문고 불교분야 베스트 2위 국내 최대 불교서점 여시아문 베스트 3위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60년 설법의 총화!
통도사에서만 270만 부가 나간 바로 그 책!


◇김지하 시인

‘절, 그 언저리’

김지하 지음

창작과 비평사 / 2만원



어제쯤은 어떤가
속세 떠나는 산
진리 버무는 절에 가서
입정
참선함이 또한 어떠할꼬?
할! (‘속세 떠나는 산, 진리 버무는 절’ 중)

시인이 쓴 불교인연 수묵시화첩

“시인은 소각(小覺)을 해야하는데 대각(大覺)을 하니 시상이 막혔다.”

지난해 화엄 연기의 세계관을 담은 시집 <화개(花開)>를 낼 때까지 시작(詩作)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던 김지하(62) 시인. 저항시인이자 생명운동가, 동양사상가로서 누구보다 선(禪)에 대한 문학적, 수행적 관심을 쏟아내 온 그가 산사 순례시를 통해 또다시 선기(禪機)를 드러냈다.

김지하 시인의 불교 인연을 더욱 곱씹게 하는 수묵시화첩 <절, 그 언저리>(창작과 비평사刊). 김씨는 이 책에서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딸이자 불교미술사학자인 부인 김영주 원주토지문화관장과 함께 2년 여에 걸쳐 전국의 절을 순례하며 지은 시 32편을 달마, 매화, 난초를 주제로 한 수묵화를 붙여 시화첩을 내놓았다.

이미 몇 차례 수묵화 전시회를 통해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였던 그는 선암사, 금산사, 화엄사, 내소사, 운주사, 쌍계사, 백양사, 구룡사 등을 방문해 절에 깃든 선사들의 자취를 좇고 그들과 정신적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를 지었다.

“아아 아득한 天台까지 이어온/ 구슬픈 仙史를 알겠구나/ 텅 비인/ 山神의 자리…”(‘산신각’ 중) 처럼 불(佛)과 선(仙)을 결합한 시편이 주류를 이룬다.“

김 시인은 ‘추(醜)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서문

부인과 사찰 돌며 시 32편

달마 · 난초 · 매화 그림 함께

에 “(전작 시집)<화개(花開)>의 애잔함과 슬픔을 넘어 선적 생명의 숭고함에로, 모순어법의 섬광과 촌철살인을 넘어 불적인 영성의 심오함에로 나아가고자 했다”고 작품경향을 밝혔다. 산사 순례에 나선 이유는 그러나 단순했다.

“신경이 어수선하고 몸이 피로해서 1달에 1번 정도 아내와 산사를 찾았어요. 뛰어난 절경과 신선한 공기도 좋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류를 고스란히 전해준 스님들이 여간 감사하지 않았지요.”

어릴적 큰 화주 보살이었던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사를 오르내렸던 그는, 감옥에 있을 때는 100일간 참선하면서 선사들의 게송을 250수나 외웠을 정도로 불연을 쌓았다.

유신 말기, 그가 독방에 수감됐을 때다. 천장이 내려 앉고 사방 벽이 좁혀 들어오는 ‘면벽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창틈으로 날아 들어온 하얀 민들레씨, 그리고 벽돌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린 개가죽나무를 보는 순간 까닭 모를 울음이 터진다. 동시에 저 무소부재한 생명의 이치만 터득하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자유자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선을 시작한다. 그리고 눕지 않고 좌선한 지 100일 만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참선이 끝난 뒤로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은 평지가 됐다.

“유불선과 민족종교를 모두 사랑하는 동양사상가로서 불교를 만끽하는데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그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절만이 칠성각과 산신각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선도(仙道)사상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화 투쟁시절 알게 된 지선 스님과 생명운동을 함께 펼친 수경 · 도법 스님을 존경한다면서 불교의 생명 · 평화 사상은 인류문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회고록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회고록 제목의 가제는 ‘모로 누운 돌부처’다. 시인은 “나에게 ‘구도’라는 말이 허용된다면, 그 길을 따라 평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무의식세계서 방황하는 우리 자화상

스님들이 동안거와 하안거 사이에 속세로 나아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베풀고 가르치며 배우는 ‘만행(萬行)’. 스님들은 속세에서 매순간 성지 순례하는 심경으로 나아간다. 일반인들의 삶 또한 만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들의 만행은 무의식의 여행이란 특징을 갖는다.

<물고기 남자 1, 2>(권병두-강승귀 글, 이중삼 그림)는 만행을 일삼는 인간의 무의식을 우화 형식으로 풀어낸 글이다. 삶의 비밀이 담겨있고 생명의 원형이 바탕에 깔려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외로워하며 울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물고기 남자’이다. 머리는 인간이지만 몸뚱이는 물고기인 ‘괴물’이 곧 자신의 모습이다.

‘물고기 남자 1, 2’

권병두 외 지음

꼭사요 / 각 9천원



지은이는 40대 샐러리맨이 ‘살아있는 화석 물고기’ 실러캔스로 변하는 돌연한 사태를 제시한다. 그렇게 변해 있는 사내에게 실러캔스 예언자가 접근한다. 그는 모르쇠로 점철된 세상을 보여 주며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치유받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인도를 찾아가라고 말한다. 무인도에 닿기 위해서는 4개의 섬을 거쳐야 한다. 그 섬들은 쾌락 망각 환상 회의 등 인간의 욕망이 변형되어 땅을 이루고 숲을 이루어 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곳이다.

물고기 남자가 찾고자 하는 무인도는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물고기 인간이 닿은 곳은 바로 ‘현재 이곳’이다. 숭고한 깨달음과 번잡한 욕망이 결국 하나라는 이야기는 일상에서 지금의 고통과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겠다.

김재경 기자

전문가 서평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

김용남 지음

운주사 / 1만원



불교적 입장서 성리학 조명

한자문화권인 동북아 지역에서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敎)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교(巫敎)와 함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 사상이다. 그러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삼교에 대한 회통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음은 익히 아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이 김용남의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저자는 자신의 책머리에서 유학을 전공하는 불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또다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때 출가를 결심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는 저자가 유학을 공부했다는 점은 불교 이해가 선행된 학자가 어떻게 유교, 특히 성리학을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 저서는 저자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성균관대 유학과), <이고(李翺)의 복성론(復性論)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쓴 책이다. 이고는 당(唐)나라 말기의 학자로서 그의 <복성서(復性書)>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회통하려 했던 최초의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복성서’ ‘대승기신론’ 하나하나 비교분석

요약하면, 불교와 유교의 만남은 성불론(成佛論)이 성성론(成聖論)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유교와 도교의 만남은 ‘역(易)’의 사유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복성론의 성(性)은 불교의 불성(佛性), 도교의 자연(自然)과 통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복성’은 곧 불교에서의 ‘성불’이며, 도교에서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복성서>와 <대승기신론>을 하나하나 비교분석해 내고 있는 것은 물론 도교 및 현대 정신물리학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동양 사상의 심오한 경지에로까지 독자를 초대하기도 한다.

저자의 주장 가운데 성리학의 비조(鼻祖)에 관한 문제는 전체 논지를 통해 충분히 재고해 볼만한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학계에서는 주렴계(周濂溪)를 꼽는 것에 반해 저자는 이고를 내세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주자(朱子)가 말한 것처럼, 주렴계의 대표적인 저술인 <태극도설>은 그의 저서 <통서>와 표리관계라 할 수 있는데, <통서>는 이고의 <복성서>와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거나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 점이 이고의 <복성서>가 주렴계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고를 성리학의 태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자에 의하여 비판되고, 그 이후로도 유학사(儒學史)에서 기피된 것은 그의 사상에 강하게 배어있는 도교 및 불교적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고의 사상 속에는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그것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부흥시킬 목적으로 불교의 해탈론적 체계를 토대로 하여 <복성서>를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결국 불교와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성리학이 종교성을 띠게 되는 것 또한 불교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복성서>가 곧바로 불교의 학설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유교 내에 잠자고 있던 내용을 끄집어내어 새롭게 구성한 것이기에 <복성서>는 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봄으로써 이고를 통한 불교와 유학의 교섭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이고가 성리학의 태두라는 말은 불교 없이는 성리학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성리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서는 우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말은 이고를 배제한 성리학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불교를 배제한 성리학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오늘날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진 것은 이고의 사상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고의 복성론이 중국사상사에서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유불도 삼교를 유교적 입장에서 정리한 가장 본격적인 첫 만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 혼란했던 시대의 대안사상으로, 훗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이끌어내게 하는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은 불교적 입장에서 이고의 저서를 다시 검토해 보게 하는 것으로써, 성리학의 기원과 관련한 불교의 위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준호 /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은 성리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이고의 복성론을 중심으로 ‘전체로 되돌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고의 복성사상과 불교의 체계를 비교한 내용으로 관련 학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힌두사회의 여성관

기원전 3백년경 당시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파탈리푸트라에 주재하고 있던 그리스인 메가스테네스는 당시 인도의 풍속을 기술하는 가운데 인도의 부녀자들이 '정절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쉽게 매혹을 한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따빠타 브라흐마나> 등에서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후기 베다시대(기원전800~500년경)에 여성의 도덕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파니샤드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야쥬나왈캬는 "처가 정절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 수 있으리오"라는 자조적인 말을 남기고 있다. <마하바라따>라는 책에도 여성들이 성적으로 매우 자유롭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기풍에 족쇄를 채운 것은 바라문교였다는 사실이 리투가마나의 규정으로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다른 사람의 죄와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바라문교의 지도자들이 당시의 자유스러운 성 풍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성위주의 종교적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었던 바라문교에서는 시세의 움직임에 민감하서 연유하며, 이러한 신화의 전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몰락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후 브라흐마나 문헌은 여성을 훨씬 하게 폄하하고 있다. <마하바라타>에 의하면 여성은 본질적으로 사악하며, 정신적으로는 오염되어 있다고 본다. 여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위가 오염된다고 하며, 그런 점에서 여성은 해탈을 방해하는 사악한 마구니다. 여성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으며, 제사에는 부정한 존재들이다. 여성들은 정의롭지 못한 밀통에 눈을 반짝이며, 내심으로는 까다롭고 혹독하며, 사려분별이 부족하다. 범례도 즉이지 못할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도 그 배후에는 정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으니 여성의 성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등등 여성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여성을 멸시하는 내용은 마누법전에 이르면 극에 달한다. "여성을 즉이는 것은 곡물이나 가축을 훔치는 일이나 술 취한 여자를 강간하는 일과 같다. 아주 작은 죄일 뿐이다". 이외에도 "여성은 항상 독립해서는 안 된다" 거나 "여자는 본래 성품이 사악하다" 등으로 폄하하며, 나아가 "베다를 독송할 수 없다"든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등의 차별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고전에 여성 폄하·차별내용 가득
당시 풍조 불교에 자연스레 스며

게 반응하여, 자신들의 교설을 확대하고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 남성위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규정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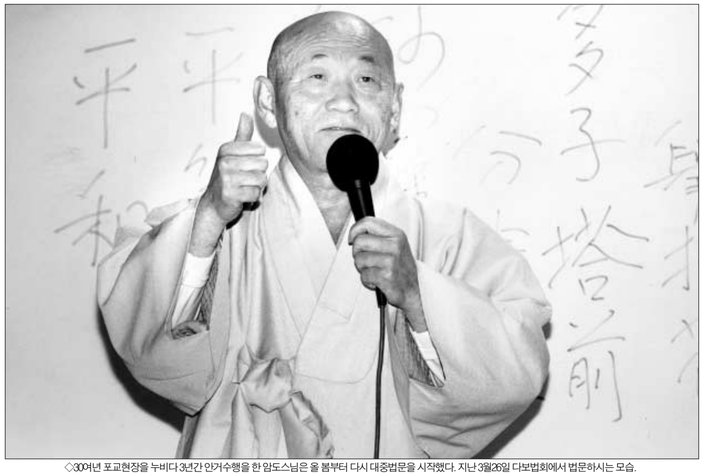
베다시대에는 대부분의 측제나 종교의식이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특히 가정에서의 제사는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집행되지 않았다. 베다 초기에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소녀들은 소년들과 같은 종류의 교육을 받았다. 이 시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것은 신들 중에 여신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더위의 여신인 우샤스, 밤의 여신인 라뜨리, 강의 여신인 사라스와띠, 대지의 여신인 쁘리티위 등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신은 더위의 여신인 우샤스였다. 리그베다 안에서 우샤스를 찬미하는 노래가 20편이나 되며, 이 핵 전편에 걸쳐 3백여회나 이름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리그베다 최고의 여신인 우샤스도 후기베다시대가 되면 등장회수가 드물어진다. 브라흐마나 문헌에서 창조주인 쁘라자빠띠와 그의 딸인 우샤스가 통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부녀상간(父女相姦)의 신화는 이란의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근친결혼의 풍속에 재산의 소유나 유산의 상속 등이 제한되었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법전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한다. 힌두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힌두법전에 이르러 완전히 확정되기에 이른다.

<힌두법전>에서는 여성의 존재 이유에 대해 '조상과 신들에 대한 종교적 의무를 영원토록 계승하기 위해 사내아이를 생산하는 일'이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나라다법전>에서는 "여성은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따라서 이는 바이고, 남편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밭은 씨앗을 지닌 사람에게 반지 않으면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힌두교의 여러 법전들은 임신하기 좋은 시기에 아내와 동침해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렇게 고대 인도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리그베다시대 이후 점차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바로 아리안문화의 정착과 동시에 인도사회에 뿌리내리는 브라만교 내지 힌두교의 남성위주의 문화적 풍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불교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30여년 포교현장을 누비다 3년간 안거수행을 한 암도스님은 올 봄부터 다시 대중법문을 시작했다. 지난 3월26일 다보법회에서 법문하시는 모습.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고민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환하게 꿰뚫은 자리에서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나 말 것이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란 결론을 내리고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다섯 비구들을 찾아갑니다. 녹야원에서 그들을 만나 전법(傳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들기까지 40년 동안 교단을 세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큰 가르침이 팔만 사천의 대장경으로 정리되어 교학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음의 이론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깨달음조차 초월한 절대 진리의 원을 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것이 선불교의 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 수행의 궁극 요체는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궁극 요체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세 번이나 무언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는데 그 삼처전심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갈망하는 목표와 긴밀하게 부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시다

부처님이 대중들을 모아 놓고 설법을 하시는 자리, 영산회상(靈山會上)이라 하는데, 어느 때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대중들을 향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보였는데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섭존자가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왜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을까요? 들고 싶으니까 들었죠(농담을 박장대소). 그건 부처님 자유입니다. 꽃을 들건 돌을 들건 그건 부처님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섭은 왜 빙그레 웃었을까요? 그것도 가섭의 자유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엉엉 울거나 가섭의 자유입니다. 꽃을 든 것은 부처님의 자유요 미소를 지은 것은 가섭의 자유이니 그 두 분의 자유 앞에서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없는 곳에서 말이 없는 것을 전하니 그 뜻을 어떻게 말로 지껄여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꽃을 든 소식도 미소 지은 소식도 중생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말로 헤아려 마음으로 알아야 할 뿐입니다. 나는 그 소식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생명은 절대 자유이니 부처님은 그 소식을 전하고자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자유가 뭔지 누가 말씀해 보세요. 자유스럽게, 자유란 글자를 풀이해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말도 있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자유이기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한 것은 바로 자유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르는 일은 많은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 자주(自主)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행복해 집니다. 스스로 조연이나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옹졸하고 비굴하고 초라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신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무슨 일을 해도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조(自助)적으로 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돕는 것도 자신뿐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실도 없습니다. 또 자립(自立)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성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들 삶의 목표는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탈탈 털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털어냅니까. 바로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자유를 찾기 위해 선가(禪家)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불어 있는 집착의 흔적들을 탈탈 털어내라는 겁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는 가풍으로 추구하는 자유, 이것이야 말로 인류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큰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참자유' 위해 자주·자조·자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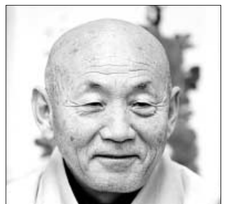
욕심 버리면 '해탈의 꽃' 핍니다



지상 백고좌

암 도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지유 · 명등 · 평화의 궁극을 부처님의 '3처전심'에서 찾으려고 강조하는 암도스님.

자리를 나누어 함께 앉다

부처님이 다자탑 앞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설법을 하는데 지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꽃을 든 소식을 알아 차렸다고 앞에서 얘기한 가섭존자입니다. 늦게 도착하여 어색하게 앉을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가섭을 앞으로 불러 자신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고 하는 행위가 부처님이 마음을 드러낸 두 번 째 사건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방석을 깔고 앉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가섭과 자리를 나눠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고 하는 행위가 부처님이 마음을 드러낸 두 번 째 사건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방석을 깔고 앉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가섭과 자리를 나눠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에

평등원리 몰라 세상 날마다 싸움

그렇게 전국이 좁다 하고 뛰시던 스님은 1999년 장성 백양사로 들어갔다. 칩거였다. 백양사 뒤에 포교사를 배출한 것만은 암도 스님이었으니 가능했던 일이다. 그만큼 포교에 대한 열정이 큰 스님이다.

그렇게 전국이 좁다 하고 뛰시던 스님은 1999년 장성 백양사로 들어갔다. 칩거였다. 백양사 뒤에 포교사를 배출한 것만은 암도 스님이었으니 가능했던 일이다. 그만큼 포교에 대한 열정이 큰 스님이다.

스님 신도들은 "장소를 고촌하의 만남 보다 재미있다"고 평했다. 구수한 옛날 얘기, 요절복통하게 하는 재담, 얼굴이 빨개지는 육담까지 암도 스님의 법문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동원된다.

"아무리 좋은 법문도 맘에 새겨야 법문이지, 법회 때 듣고 잊어버리면 뭐하는가.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잊지 말고 오래 기억하여 사는데 보태 쓰라고 양념삼아 농담을 곁들이는 거야."

30여 년 간 몇 번의 법문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3천 5백여 명의 법사를 품에 토글을 짓고 입을 닫아 버렸으니 암도 스님의 걸쭉한 법문은 녹음테이프가 아니면 만날 길이 없게 됐다. 결제철이 되면 스님은 운문선원에서 젊은 수좌들과 똑같이 정진했다. 코피를 쏟고 핏발이 서는 눈을 어루만지면서 3년간 정진을 한 것. 그리고 올 해부터 청하는 곳이 있으면 법문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스님은 1939년에 출생해 55년에 백양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중앙승단포교사 · 포교원장 · 교육원장을 거치며 포교사 양성에 힘썼고 '변하는 것은 변치 않고 변한다'는 등 저서와 '힘허답 듀뭏 사상연구' 등의 논문을 썼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1972년)해 박사과정까지 수료(1978년)했다.

기자가 3월 26일 다보법회에 법문을 하러 온 스님에게 "중생이 있는 곳을 즐겨 다니며 중생이 부처되는 길을 전하는 것이야 말로 스님의 본분인가 봅니다. 스님께서 법문 하시는 많은 주제들을 다 묶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다.

빙그레 웃으시며 "암도 없다."

두발을 내밀어 보이시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성도 후 40년 동안 길에서만 생활 하시다가, 쿠시나가라 들판의 나무 아래서 육신을 벗으시고 영원한 법신이 되셨습니다. 그 나무를 사라수라 하는데 두 그루가 함께 서 있어 사라쌍수라 합니다. 입적에 드신 부처님 앞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지각생이 있었습니다. 또 가섭존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전법을 하다가 부처님 열반소식을 듣고 급히 왔는데 이미 부처님은 관 속에 모신 뒤였습니다. 가섭이 절을 하고 관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관에서 부처님의 두 발이 쑥 나왔습니다.

합심하여 평화만들기 노력하자

신 부처님 앞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지각생이 있었습니다. 또 가섭존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전법을 하다가 부처님 열반소식을 듣고 급히 왔는데 이미 부처님은 관 속에 모신 뒤였습니다. 가섭이 절을 하고 관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관에서 부처님의 두 발이 쑥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평화의 소식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초월하고 생과 사의 윤회로부터 초월하여 자신과 일체중생이 다 평화의 들판에 노니는 지고한 존재임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평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죽음마저 뛰어 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체중생이 합심을 해야 합니다.

그 합심의 구심점은 바로 꽃을 들어 보인 뜻과 자리를 나눠 앉은 뜻, 그리고 관 측에서 두 발을 내밀어 보인 뜻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전하신 그 진리의 요체를 생각하면서 삶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일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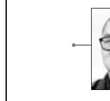
기자가 본 암도 스님

남다른 포교원력…전국 누비며 법문 30년

암도 스님을 찾아가 "계십니까?"하면 "암도(아무도) 없다"고 답하며 편안하게 사람을 맞이한다. 스님이 법문을 하는 곳은 언제나 웃음판이다. 옛날 신도들은 "장소팔 고촌하의 만담 보다 재미있다"고 평했다. 구수한 옛날 얘기, 요절복통하게 하는 재담, 얼굴이 빨개지는 육담까지 암도 스님의 법문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동원된다.

"아무리 좋은 법문도 맘에 새겨야 법문이지, 법회 때 듣고 잊어버리면 뭐하는가.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잊지 말고 오래 기억하여 사는데 보태 쓰라고 양념삼아 농담을 곁들이는 거야."

30여 년 간 몇 번의 법문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3천 5백여 명의 법사를 품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우진스님

조주스님은 도를 묻는 많은 납자들에게 "차나 한잔 하게" 라고 말하곤 했다. 아리송한 진리를 묻는 구도자에서 단순한 안부를 묻는 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던진 차 한잔의 의미는 진정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이 부질없으니 차나 한잔 마시라는 말인지, 아니면 뭐라고 해도 모를 일이니 차나 마시면서 속을 달래라는 것인지, 분별사량으로 헤아리지 못하겠다.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차 공양을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통도사승가대학의 강사 우진 스님이다.

스님 방에는 언제나 스님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큰 절(통도사)에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말사 주지스님을 보는 스님들이나 또반, 그리고 선 후배 스님들이 가장 만만하게 들르는 방이기도 하다. 스님들이 오면 으레 차를 달여 권할 이 내 놓는다. 그리고 그동안의 안부를 서로 묻으면서 걱정과 격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진스님 방



그림 · 문병성

은 큰지는 않지만 '스님들의 사랑방' 이다.

우진 스님의 성격은 원래 깔끔하다. 같은 승복인데도 우진스님이 입은 승복의 모양새는 단정하기 그지 없다. 어디 내 놓아도 어쩔 수 없이 스님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흠가의 길이 잘 어울리는 스님이다. 체구는 장딸라서 살을 찾을 수 없고 무테안경은 수행자의 날카로움을 그대로 담고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려 결론을 내리기까지 기다릴지는 논리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도반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냉정한 이른가'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성정이 메말랐거나 모가 나 있지 않다. 어쩌나 유(柔)한지 스님 전체가 부드러움 그 자체다. 남을 향한 마음에서는 모나고 독단적인 면을 찾을 수가 없다. 만약 조금 이라도 그런 성격을 보였다면 스님 방에 그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는 고집스러운 인내심이 있다. 대학 도반인 나로서는 벌써 2십년을 보아온 셈인데, 우진스님은 백상원(동국대 비구스님 기숙사) 때부터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강원에서도 더러는 쉬어가며 공부하는데, 유독 우진스님 혼자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공부했다. 그 노력과 끈기가 옆에서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어디 가서 더 배운 것 없이 은사인 종범스님(종앙승가대 총장)으로부터 전강을 받기에 이르렀다.

스님은 언제부턴가 사찰의 문화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직접 사진기를 들고 전국 각지의 사찰과 문화유적을 찾아 다니더니 사찰건축과 탑, 불상 등 우리 불교문화의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전문성도 갖추었다. 그렇게 모은 것을 법회나 강의에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것도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공군법사 시절의 추억도 새롭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윈 체구에 잠자리 날개 같은 플랫 깨끼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다. 국악 하는 사람이나 혹은 새 신랑 같은 이미지였다면 어느 정도 상상이 갈 것이다. 그렇게 멋쟁이였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옷만 멋쟁이가 아니라 공군교육사령부 법사시절에는 훈련병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했고, 일반 가요를 법회시간에도 부를 정도로 개

절 방문 스님·도반들에 늘 차공양
개방적인 생각…불교문화 일가견

방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래서 우진 스님은 인기 법사였는데, 사병뿐 아니라 부대의 모든 불자와 관사의 가족들에게까지 깔끔하고 화통한 법사로 기억되고 있다. 내가 우진 스님의 후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서 안 사실이다.

대학 입학과 더불어 만난 우진 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한 때는 영어 회화경을 보면서 한문으로 보는 경전의 묘미도 적지 않지만 영문으로 보니까 이해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는 재미가 있노라고 기뻐하기도 했다. 거기다 강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스님방의 책상에는 항상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지 않았고, 바탕에는 찻상이 스님은 대화를 나눌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학자적인 면에서부터 어느 순간에는 시진기에 역사의 흔적을 담는다고 현장을 바쁘게 움직이는 탐구적인 모습까지 그의 삶에는 낭비가 없다. 십년을 훨씬 넘는 세월을 통도사승가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도반들과 차 한 잔을 놓고 가지는 여유는 멋스러움의 극치다. 언제나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우진 스님을 항상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신입 회원 초대 안내
본회는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조성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돈독한 우애증진을 기본 이념으로 환경보존에 솔선수범하는 산행단체입니다.
함께 가는 길 (김대원)
구불 구불 옮길적마다
길게 누운 구도(求道)의 길
오솔길 따라 어머리
또르륵 똑 연륜의 강
또르륵 똑 뛰어넘어
목탁소리 맞춰 또반들 손잡고
한 걸음 함께 가는 길
두 걸음
◆ 정기산행일
매월 첫째 일요일 - 서울근교 산행
셋째 일요일 - 원거리 산행 또는 성지순례
◆ 회원가입 및 연락처 (홍보부)
02) 730-1080. 02) 2633-5808

제 3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무료교육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교리강좌(주1회)
2. 의식과정(주2회) : 기본과정, 중급과정, 범음범패
■ 모 집 인 원 : 각 반 1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간(肝) 간염 지방간 간경화 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산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기지고 전통제법식 (기비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비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조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참기 97미사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팝속에 묻어든 뒤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복, 법복안내




영험 도량
희미승 예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잘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빼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스펀지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삶을 모델수원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면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환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약간의 찰동이나 개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쁘 상대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운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20세기 한국 고승 20인의 진영이 전통자수로 제작된다. 왼쪽 위부터 만공, 용성, 영호, 만해, 한암, 효봉, 동산, 대륜, 금오, 운허, 청담, 경봉, 묵담, 고암, 구산, 자운, 탄허, 성철, 월산, 경산 스님.

북한 전통 자수로 한땀 한땀 큰스님 20인 다시 우리 곁에

최고기량의 北 만수대창작사 제작

22~28일 불일미술관…탱화도 선보여

'근세 남한 고승들이 북한의 전통자수 예술가들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과 현대불교신문사는, 20세기 한국불교의 고승 20명의 진영을 전통 자수화한 '아! 큰 스님—북한 만수대창작사 作 근세 고승진영 자수전'을 22일부터 28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불교문화기획단·본사 주최 자수展

이번 전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명주실과 비단에 천연염료를 도색한 전통 자수기법에 의해 한땀 한땀 수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전통자수로 만든 '석굴암 부처님 불두'.

실제 예술에서 자수라는 장르는 워낙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 현대사회로 갈수록 명맥만을 간신히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는 분야다. 다만 북한은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조차도 길게 잡아 5년 이내에 손자수 인력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해 이번 작품들은 국보급 수준으로 희소가치가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작품 제작에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는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창립됐으며 조선노동당 중앙당 직속으로 현재 수예창작단을 포함한 20여개의 분야별 창작단과 제작단에 1백여명의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 4천여명이 소속돼있는 최대 규모의 단체. 이번 전시를 위해 4개월전부터 한 작품에 4명씩 조를 맞춰 작품 제작을 해 왔다.

작품전에 등장하는 고승들은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거리는 명실공히 20세기의 대표 선지식들. '만공', '용성', '영호', '만해', '한암', '동산', '효봉', '금오', '운허', '청담', '경봉', '고암', '자운', '탄허', '경산', '구산', '성철', '월산', '묵담', '대륜' 스님이다. 고승진영 작품 외에도 '수월관음도', '지장도', '아미타탱화' 등 고려불화 4점과 석굴암 본존 부처님의 불두,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등도 선보인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은 "이번에 진영 자수가 전시되는 큰 스님들은 질곡의 시대상황속에서 종교계 뿐 아니라 우리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들이다"며 "수행으로 점철된 모습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님들의 지혜와 유훈을 본받고 기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문화원 개관기념 특강

불교TV, 21~27일까지

이어령, 황우석 교수등 초청

봉천동 사옥이전과 함께 불교TV 4층에 새롭게 문을 연 '불교TV 문화원'이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명사들을 초청한 문화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특강은 △21일 이어령(중앙일보 고문)—'오늘을 살아가는 문화코드' △22일 황우석(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불교와 생명과학' △23일 강영숙(예지원 원장)—'사람과 사람사이의 예절' △24일 성우스님(불교TV 회장)—'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25일 선재스님(사찰음식전문가)—'음식이 성격을 만든다' △26일 엄앵란(방송인)—'가정에서 행복찾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02)873-1140



◇정채봉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화 '오세암'에서 주인공 '길손이'가 석등에 올라 앉아 소리 지르는 장면.

애니메이션 영화 '오세암' 25일 개봉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연질감 살려

엄마를 찾아 나서는 애틋한 마음과 해맑은 동심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오세암(제작 마고21, 감독 성백엽)'이 25일 개봉된다.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의 꼬마보살 설화를 그린 故 정채봉 씨의 동화 <오세암>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다섯 살 꼬마 '길손이'가 앞 못보는 누나 감이, 삽살개 바람이와 함께 엄마를 찾아 떠나면서 시작된다. 길을 가다 설정 스님을 만난 길손이는 겨우내 스님의 암자에서 마음의 눈을 뜨는 기도를 하기로 한다. 그러나 길손이는 조용해야할 선방으로 날짐승을 몰고와 소란을 피우고 법회중인 스님들 신발을 모두 나무에 달아 놓기도 하는 등 순식간에 조용한 절을 소란하게 만든다. 결국 암자에 혼자 남겨지지만 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원화만 6만여 장이 들어갈 정도로 대작인 이 작품은 손으로 그린 평면기술(2D)임에도 컴퓨터그래픽을 덧입혀 시냇가의 반짝이는 돌의 빛과 질감까지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살려낸 것이 특징. 특히 눈 덮인 산의 실감나는 장면과 휘몰아치는 눈바람은 세 명의 스탭이 꼬박 3일을 밤새워 작업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한편 제작사 마고21은 16·17일 오후 4시 수원단오극장과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각각 소년소녀가장 900여명을 초청한 '특별 시사회'를 마련한다.

여수령기자

전통국악인 원로서 신예까지 명인명무전 서른번째 무대

15~17일 호암아트홀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살풀이춤 보유자 김묘선씨의 살풀이춤.

전통예술 공연무대인 '한국의 명무명인전' 서른 번째 무대가 15~17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제 30회를 기념하기 위해 전통음악 및 춤 분야의 원로에서 신예에 이르는 예인들이 대거 함께 무대에 선다. 특히 현역 최고령 국악인 심소 김천흥 선생이 93세의 고령에도 불구,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초 스님(인천시 인간문화재)과 자은 스님(하와이 자은사 주지)을 비롯해 승무 이수자 양대승·박종필·노수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강승연, 살풀이춤 이수자 김묘선, 임이조 남원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등이 출연해 진도북춤과 가야금 병창, 피리 독주, 한량무, 승무, 살풀이춤, 춘앵전, 원향살풀이춤 등을 공연한다. 한편 5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는 부산 문예회관 대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김진홍, 엄옥자, 정재만, 안숙선, 정명자 등이 동래한량무, 원향 살풀이춤, 승무, 판소리,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02)585-7318.

김주일기자

심곡암 산사음악회·꽃축제 27일

다도 시연·달마도 선화전도 열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꽃 물결속에 음악과 꽃이 한데 어우러진 북한산 심곡암 '제 4회 산꽃축제와 산사음악회'가 27일 열린다. 진명 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의 사회로 이루어질 이번 축제에는 동요가수 이성원, 대금산조 명인 나동욱, 이명진 무용단 등이 출연해 음악과 춤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공연에 앞서 낮 12시 30분 부터는 심곡암 다도회의 다도시연도 마련된다.

또 5월 8일까지는 송담·석정·일장 스님 등 고승대덕들의 달마도 선화전이 펼쳐진다. (02)914-8860



◇지난해 5월 열린 심곡암 산사축제.

박범훈교수의 불교음악회 '念' 16일

조계사등 9개 사찰 합창단 공연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의 불교음악회 '念'이 16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린다. 그동안 박 교수가 작곡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교성곡 '부모은중송'과 '보현행원송'을 비롯해 '탑돌이', '어화너', '가야지' 등의 찬불가가 연주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조계사, 구룡사, 불광사 등 서울시내 9개 사찰에서 2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불교연합합창단과 국악인 김성녀, 김영임씨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도올 김용옥씨의 특강도 펼쳐진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5:25 경전공부
09:05 찬 한잔의 선율
15:05 음악의 마을
16:45 룸비니 동산
19:20 유쾌한 저녁길
23:25 지혜의 샘터

16일 20:30 무비스님의 법화경 강의
17일 09:05 최완수의 우리문화 바로보기
18일 22:00 퀴즈 야단법석
19일 07:40 야! 부처님이다
20일 15:05 자비의 천수천안
21일 07:40 팡팡 룸비니동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유쾌한 저녁길(18일 18:15): 문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진행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동반자, '유쾌한 저녁길'에서는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행되는 김포 애기봉 점등식 현장을 연결,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불교텔레비전**:무비스님의 법화경강의(16일 20:30):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승삼부경(三部經) 중의 하나로 '경전 중의 꽃'으로 평가받는 <법화경>. '모든 중생은 성불(成佛)한다'는 가르침을 담고있는 <법화경>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강의로 들어본다. 이 시간에는 '서품' 중 '법회의 청중'을 강의한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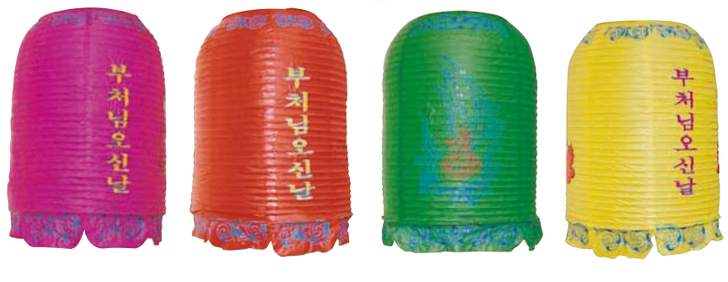
팔모주름등 / 팔모조립등 /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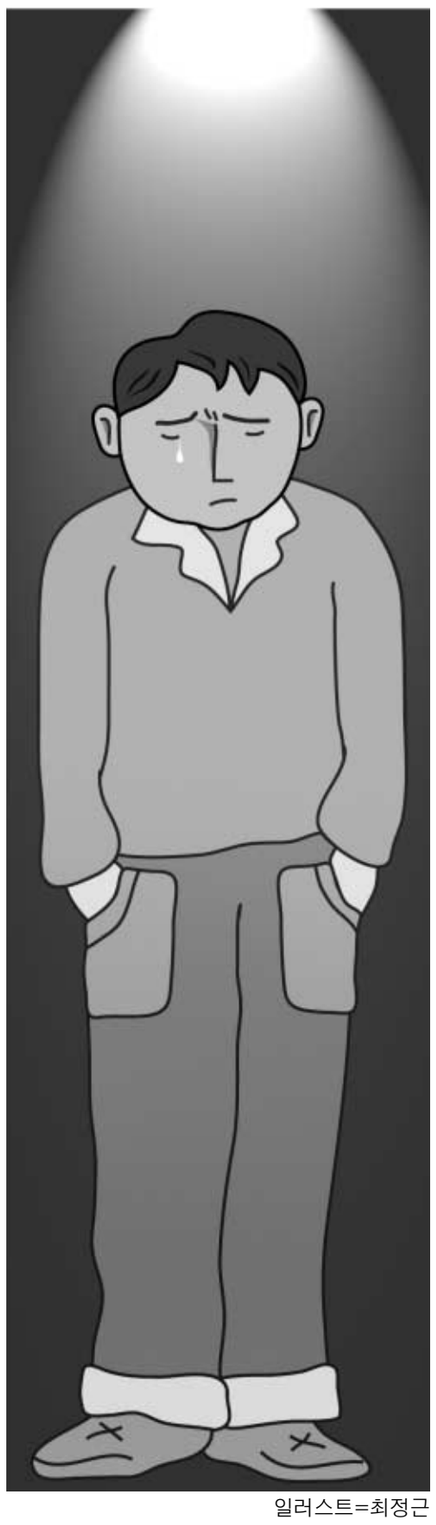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일러스트=최정근

우리 아이가 왕따?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생기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내 아이가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구미장애인복지관장 시용 스님(천태종복지재단 정책실장)에게 들어본다.

사회성 부족·비타협적 성격 고치도록 교육
자녀에 대한 관심, 공감 분위기 조성 중요

▲실태=2002년 7월 실시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전국 92개교, 학생 5687명 대상)에 따르면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고등학생은 9.1%, 중학생은 19.4%, 초등학생은 27.3%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왕따 현상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왕따에 참여할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2002년 11월, 학생 500명 대상, 중복응답) 결과에 따르면 다른 아이를 왕따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장난삼아서(46.2%)와 재미있어서(41.4%)였다. 또한 자기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란 답도 31.4%나 됐다.

▲가정에서의 대처법=최근 들어 아이가 불안·초초해 하거나 짜증을 잘 내고 잠을 설친다든가,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왕따를 의심해 봐야한다. 또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용돈을 자주 요구하는 것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시용 스님은 "사회성 부족이나 비타협적인 성격 때문에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법과 자녀와의 대화 부족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왕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간에도 대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시용 스님은 "항상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당황하거나 가해자의 학부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서 '왜 왕따를 당했는지' '언제부터 따돌렸는지' 등을 파악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학교측에 즉각 알려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사이버왕따상담실(www.cyberwangdda.or.kr)'이나 전문상담기관의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왕따' 극복하기

1.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2. 가해자의 부모를 만날 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전달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3. 자녀가 학교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전학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전학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4.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전문상담원, 의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자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길로 가도록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녀를 야단치거나 면박을 주지 않는다. 자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친구들에게 환대받지 못한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7.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남을 따돌리는 행동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8. 대화의 기술을 가르친다. 감정이 상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말하기, 남의 말에 먼저 귀기울이기 등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할머니와 가출한 손자

오늘은 강화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동생과 함께 강화에 갔다가 시장에 들렀습니다. 봄나물이 났을지도 모르니 시장에 들러보자고 동생이 앞장을 서서 말입니다. 동생이 생각하는 봄나물은 시장에서 흔히 보는 냉이나 달래 쑥 같은 것이 아니고 들에서 캔 나물을 말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저도 동생을 따라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동생은 어린시절 추억을 얘기하다가 "언니, 옛날에 엄마가 끓여주시던 솔고지국을 다시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지? 요즈음이 딱 솔고지가 날 철인데. 전에는 시장에서 가끔씩 봤는데 요즈음은 통 안 보이더라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찾고 있는 봄나물이 솔고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솔고지의 표준말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솔고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에 솔고쟁이라는 말이 없는 걸 보면 그것도 표준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는 어린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솔고지국의 맛을 추억 속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시절에 먹던 음식을 떠올리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간 저는 강화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미를 만끽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앞에서 시장을 돌던 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제가 동생 쪽으로 가자 "언니, 저거 봐"하면서 시장바닥에 펼쳐놓은 나물을 가리켰습니다.

동생이 가리키는 나물을 보고 있는 제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르스름한 포대 위에 솔고쟁이, 질경이, 달래가 소복소복 놓여 있어서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나물을 캐던 봄날의 들판, 캔 나물을 들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보이며 의기양양해 했던 우리들의 모습, 어린 딸들이 캐 온 나물을 들여다보며 대견해 하시던 어머니의 환한 얼굴, 나물을 보며 추억 속에 잠겨있던 저는 솔고쟁이와 질경이를 샀습니다. 저희들이 나물을 받아들고 행복해 하자 할머니는 소쿠리 안에 남겨두었던 질경이를 집어서 덤으로 주었습니다. "가지고 가봐야 먹을 놈도 없는데" 하는 말을 입속으로 하시면서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 얼굴이 너무도 절망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의 비통한 심경을 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서른 조금 넘은 나이에 세 살 된 아들 하나를 남겨 놓고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역시 아들을 남겨놓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죽어서, 며느리는 살아서 집을 떠나가자 할머니가 세 살 된 손자를 맡아서 키웠다고 합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내다 팔기도 하고, 지금처럼 들이나 산에서 나는 나물을 캐다가 팔기도 하면서요. 빈집에 손자를 혼자 둘 수 없었던 할머니는 업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면서 늘 손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손자가 학교에 가게 되어 비로소 하루에 몇 시간씩은 손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애물단지이면서도 살아갈 이유의 전부이기도 한 손자는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할머니는 힘든 줄 모르고 텃밭을 가꾸고 산과 들에서 나물을 캐다 팔면서 손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손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입학식 날 옆집 할머니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은 자신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어떻게 하던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소년이 하루 빨리 돌아오게 해 주세요"



"젊은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때문에 엄마를 찾겠다고 집을 나선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넓은 천지에 엄마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나갔는데 잘못되기라도 하면…."

할머니는 그 다음은 차마 상상할 수 없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검게 탄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꼭 돌아 올 거예요. 꼭 돌아 올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하면서요.

엄마를 찾겠다고 이 거리 저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14 살짜리 소년을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소년이 얼른 할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미나리 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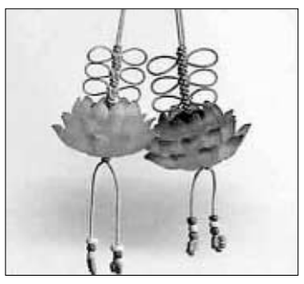
미나리 50g, 느타리버섯 50g, 대추 20개, 초고추장(사과 간 것 1/4개, 고추장 1큰술, 식초 1큰술, 통깨)

1. 미나리는 줄기만 소금물에 데친 후 헹궈놓는다. 느타리버섯은 끓는 소금물에 데쳐놓는다.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제거한다.
2. 느타리버섯 위에 대추를 놓고 미나리 줄기로 감는다.
3. 분량의 재료로 초고추장을 만들어 함께 낸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마불연꽃차걸이 세트



안전운전 기원 부담없는 선물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

특히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마불연꽃무늬차걸이'를 자동차에 걸어보자.

노란색과 빨간색 연꽃이 한 세트로, 꼭 불자가 아니라도 가볍게 선물할 수 있다. 값 7천원.

(02)732-1520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부처님, 걷고 뛰어 다니고 싶어요" (하)

엄범순(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던 스님이 탁발을 다녀오다가 금강경 경전을 풀숲에 떨어뜨렸다. 마침 어느 농부가 몰던 소가 그 금강경을 콧김으로 불어 금강경의 책장이 날렸다. 그 인연으로 그 소는 나중 생에 훌륭한 큰스님이 되었다는 설화를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의 몸은 장애인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설악산 신흥사 부처님이 계신 법당까지 들어와 비록 누워서 예불도 드리고 발원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셨다. 그리고 덧붙여 바로 오늘의 인연 공덕으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몸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은 모두 환희심을 느끼는 듯 했다.

설악산을 관세음보살님의 품으로 삼아 하룻밤을 지낸 우리 학생들은 다음날 이른 아침 동해의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망' 이란 글자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낙산사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 다음 생엔 꼭 건강한 몸 받기를 발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해수관세음보살님과 사진도 찍고, 절에서 점심 공양 하는 즐거움도 누렸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보니 피곤하기도 할텐데 우리 학생들의 얼굴은 온통 희망 뿐인 듯 너무나 밝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기도했으니 틀림없이 건강해 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한사랑 마을로 돌아왔다. 말을 잘하는 은정, 경수, 형석, 지은, 소희가 "선생님 한사랑에 천천히 들어가요!" 하며 졸랐다. 헤어지기가 싫어서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영원히 장애로 있지 않고 다음 생에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듯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며 다음에 선생님 집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달래는 가운데 우리를 실은 버스는 학교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봉사자들을 보내고 짐을 정리하고, 도움을 준 여러 분들에게 감사전화를 드리는 등 마무리를 하다보니 늦게서야 학생들 방에 올라가 보게 되었다. 나를 보더니 윤희, 귀옥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보육교사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 물어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별의 아쉬움을 눈물로 표현을 한것이라 말해 주었다. 헤어지는 것이 또 두려운 모양이다. 인간적인 정이 그리운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도 못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졸업여행을 통해 절에 가서 부처님도 만났고, 부처님께 건강한 몸 발원도 하여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정도 이별의 아픔쯤 이겨내야지…

야탑·명성여고 학생들과 정기적인 만남도
장애학생들, 여행통해 희망과 용기 가져

부천의 부일중학교 양호 교사인 반재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 후원금도 주시고 직접 봉사를 해주시고 비상구급약품을 준비해 주시는 등 너무나 자상하게 도움을 주어 여행 내내 마음이 든든했다. 그리고 초등 교직에 40년 동안 계시다가 퇴임후 포교사 품수를 받고, 환갑을 넘겼는데도 장애학생을 위해 여행에 동참해 주신 류구자 선생님. 평생을 교직에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장애학생들은 처음이라며, 일반학교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선생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며 중증장애학교 선생들의 힘든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너무나 고마웠다. 풍부한 교육 경륜과 해박한 불교교리로 학생 및 봉사학생들에게 훌륭하게 안내를 해 주셨다.

이번 졸업여행에 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힘은 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또 내가 성한 몸을 갖고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남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달라"는 소감을 밝혔다. 분당의 야탑고 학생들은 이번 중증장애 학생들의 졸업여행을 통해 자신들이 남을 도왔다기 보다는 도리어 인간적인 진솔한 사랑과 봉사, 겸손을 많이 배웠다고 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되어 기뻤고, 앞으로 절에 지속적으로 다니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소감을 말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후 명성여고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한사랑마을을 왕래하는 정기적인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기독교 재단이라 그동안 일요일마다 예배만 드려 하나님만을 알고 지내던 우리 학생들이었지만 불교를 알게되고, 믿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 부처님 자비가 우리 중증장애학생들을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졸업여행기간에 결혼 9주년 기념일이 있었다.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미안했지만 가족들이 이해해 준 것이 큰 기쁨이었다.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 장애 극복의지를 심어준 것을 체험하니 역시 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놈들 다음 생엔 꼭 건강한 몸 받고 부잣집에 태어나그래이." (끝)

그림 · 김흥인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6화 라훌라의 탄생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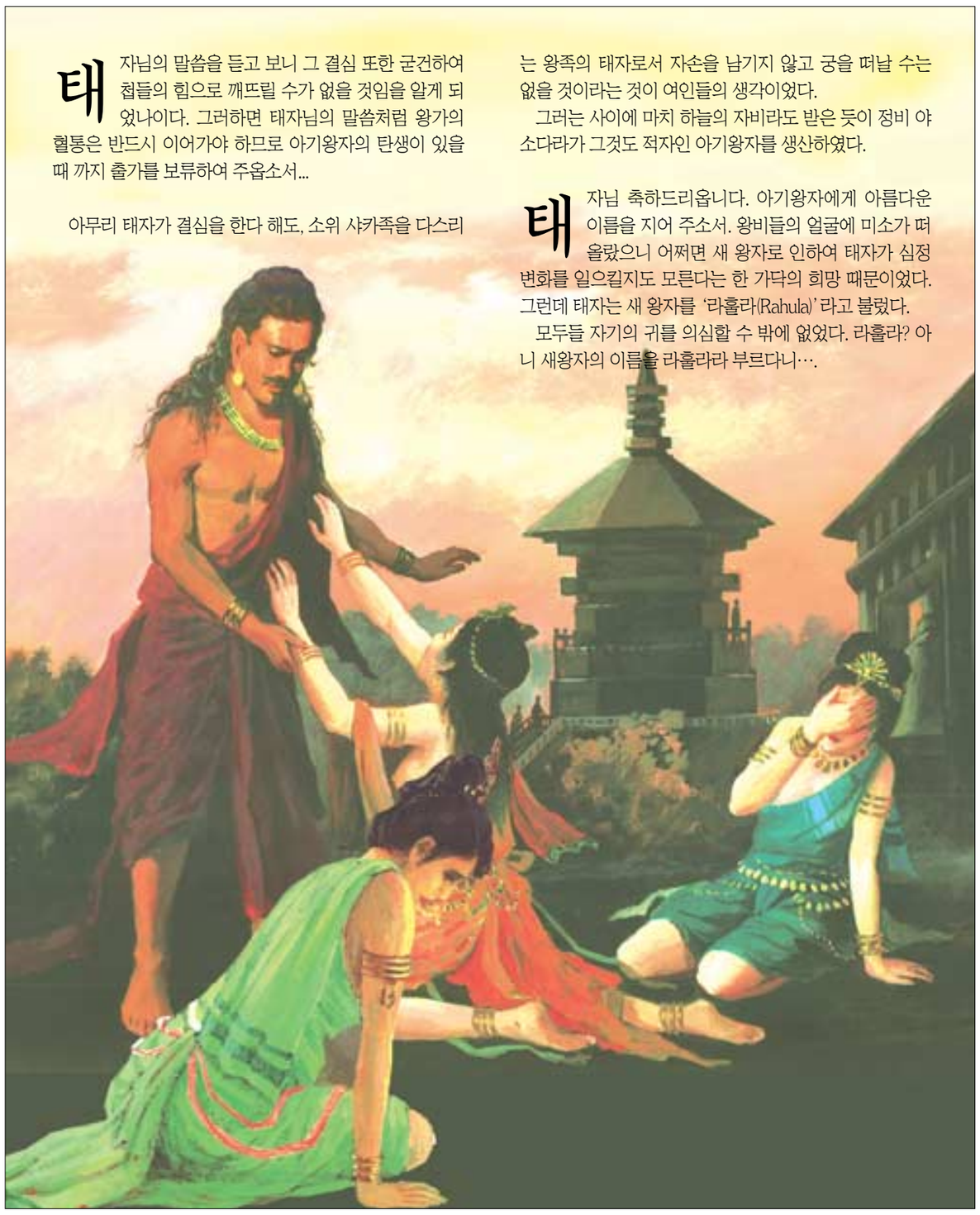
태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결심 또한 굳건하여 첩들의 힘으로 깨뜨릴 수가 없을 것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하면 태자님의 말씀처럼 왕가의 혈통은 반드시 이어가야 하므로 아기왕자의 탄생이 있을 때 까지 출가를 보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태자가 결심을 한다 해도, 소위 샤카족을 다스리는 왕족의 태자로서 자손을 남기지 않고 궁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여인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마치 하늘의 자비라도 받은 듯이 정비 야소다라가 그것도 적자인 아기왕자를 생산하였다.

태자님 축하드리옵니다. 아기왕자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소서. 왕비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으니 어쩌면 새 왕자로 인하여 태자가 심정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희망 때문이었다. 그런데 태자는 새 왕자를 '라훌라(Rahula)'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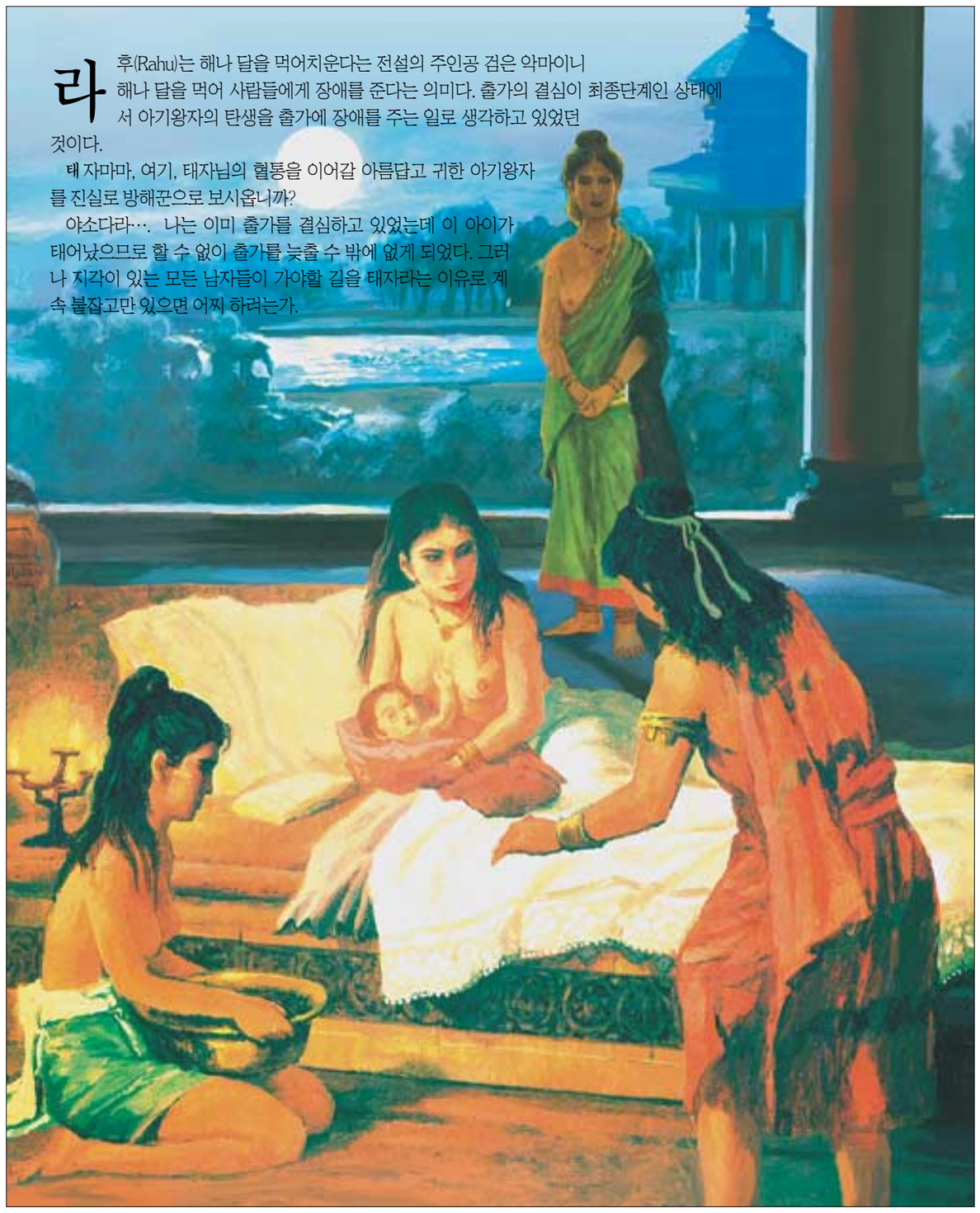
모두들 자기의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라훌라? 아니 새왕자의 이름을 라훌라라 부르다니….



라후(Rahu)는 해나 달을 먹어치운다는 전설의 주인공 검은 악마이니 해나 달을 먹어 사람들에게 장애를 준다는 의미다. 출가의 결심이 최종단계인 상태에서 아기왕자의 탄생을 출가에 장애를 주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자마마, 여기, 태자님의 혈통을 이어갈 아름답고 귀한 아기왕자를 진실로 방해꾼으로 보시옵니까?

야소다라…. 나는 이미 출가를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할 수 없이 출가를 늦출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가야할 길을 태자라는 이유로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어찌 하려는가.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라훌라가 탄생한지 100일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다. 어느날, 태자는 커다란 사자처럼 천천히 걸어서 본궁으로 들어갔다. 마치 샤크라(Sakrodevendra,帝釋)대왕의 아들처럼 마음으로 공경하고 자세를 공손히 하며 그의 부왕앞에 나아가 머리숙여 문안을 여쭙고 다시 한번 죽음의 두려움을 말씀드리며 출가를 허락해 주십사고 간절히 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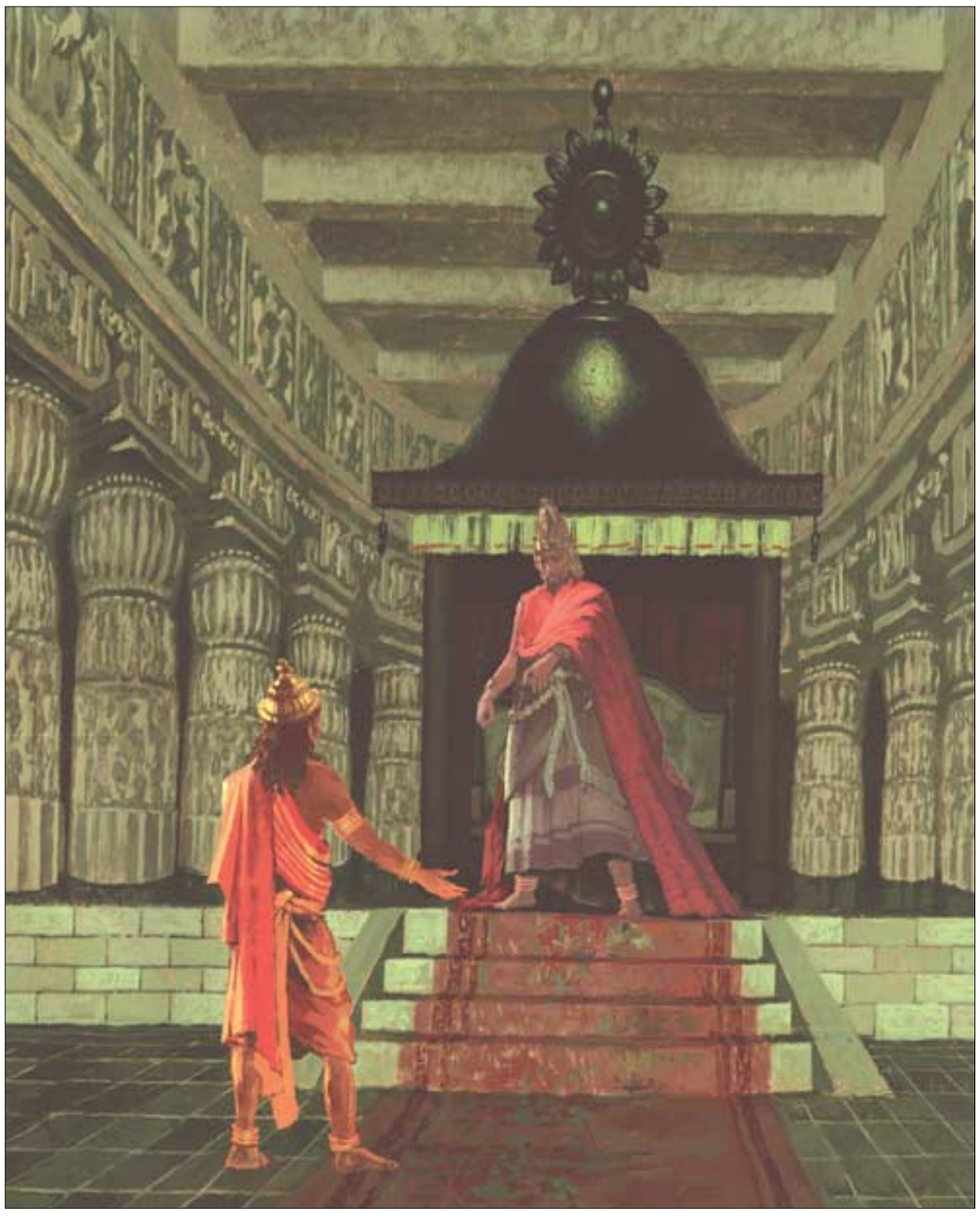
"이 세간(世間)의 모든 것은 한번 만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러므로 원하옵건대 출가(出家)를 허락하시어 진정한 해탈(解脫)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왕은 출가를 요청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져 크게 떨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미친 코끼리가 작은 나무를 흔들어 요동치듯 하였다.

"부왕이시여, 삼계의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사온데 나 한사람만 금과 은과 갖은 보석으로 꾸민 궁전 속에서 오욕의 쾌락을 즐겨본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사옵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이 부싯돌에 번쩍이던 불빛이 이내 그 흔적이 없는 것처럼 빠른 것이요, 햇빛에 증발해 버리는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운명인 것입니다. 꿈결같이 지나온 한세상 되돌아보니 그 쓸쓸하고 덧없음이 산머리에 뜬 구름과 같은데 또다시 그런 삶으로 후회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옵니까?

부왕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아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출가를 허락하소서... 이제는 아버님 대왕의 뒤를 이어줄 손자도 태어났으니 적어도 출가전에 해야 할 의무는 완수한 것이 아니옵니까?"

"부디 그런 말을 삼가하여라. 아직은 법에 귀의할 시기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내가 먼저 출가하게 해달라. 이 아비를 버리고 종묘사직을 끊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로다. 지금은 출가할 마음을 접어두고 이 세간의 법도를 받아들여 안락하고 좋은 명성을 얻은 후 출가를 함이 옳지 않겠는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경계에도 굴하지 않고 녹여나가야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한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시 같은 한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사는 처소가 각자 다르고 모습이 각자 다를지라도 지금 이 모습이 나오기 이전의 근본자리에서 본다면 항시 한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요, 모두가 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어서 다르다고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생사가 따로 없이 늘 한 모습으로써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한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여여한 자유인으로써 진정한 복락을 얻어서 생사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도리를 깨우침으로써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도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 내면을 밝히기 위한 첫 단계로 처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마음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선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첫째 과제는 마음의 용광로에 무조건 일체를 집어넣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 쇠든 새 쇠든 다 집어넣은 용광로에서 쇳물이 벌겋게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경계에도 굴하지 않고 녹여나가겠다는 견고한 신심을 가져야만이 물러남이 없이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듯이, 이 마음공부를 함에 있


그림 · 최주현

어서도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생사를 초월하며, 자기의 몸까지도 다 거기에 놓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요, 되건 안되건 몽땅 그 자리에 일임을 하고, 외통다고 생각이 들 때나, 설령 지금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직 자기 근본 자리를 굳건히 믿고 거기에다 일체를 돌려서 맡겨 놓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경계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끄달리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흘훌 털어버리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영구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참나 생(生)하는 것이요, 참나 멸(滅)하는 것으로서 참나참나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고통다는 생각도 한 참나요, 아무리 즐거운 일이 생겨서 즐겁다고 좋아해도 그 즐거움 또한 한 참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참나의 실체를 안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고, 괴롭다고 거기에 빠져서 헤맬 것도 없고 즐겁다고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안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깁게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체를 몰록 거기에 놓고 그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안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되게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내려놓고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깁을 가다가 자기가 엎어졌다면 '어이로 꽉 찼던 마음 그릇이 다 비어지게 되면서 마침내 빈 것도 없고 담긴 것도 없는 그러한 경지가 되어 바로 참된 '나' 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참나를 발현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기초가 튼튼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히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거기에다 집을 짓는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잘 참구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기둥이고 이것은 서까래고, 또 이것은 벽돌이고, 이것은 대들보이고 하면서 이렇게 집 짓는 재료의 이름은 하나하나 골똘 외우고만 있지 정녕 집을 지을 줄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재료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거나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약 벽돌이 필요하다면 벽돌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필요에 따라 그냥 탁 집어다가 작업을 하는 그 실천이, 그런 믿음과 행이 참으로 우선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듯이 단지 남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저 서까래 가져오너라, 저기 있는 벽돌 가져오너라,' 하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쓰고자 할 때에는 말하기 이전에 한생각 냈다 하면 벌써 서까래도 벽돌도 다 집어다가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쓴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필요한 곳에 쓸 뿐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다면 냉장고 문을 열고 그냥 물을 꺼내서 마실 뿐입니다. 그것이 즉석에서 요리하는 방법이고, 즉석에서 먹는 방법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는 처소 · 모습 서로 달라도 근본자리서 보면 한 자리 · 한 모습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집 짓는데 지붕을 올리게 되었다면 일꾼들이 벌써 서까래를 갖다가 섭치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집은 이렇게 짓는 것처럼 마음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들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둥이 서야 된다든지 거기에 간접적으로 붙어 돌아가는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몸통이 하나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재료가 붙어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공부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에 있어서 어느 재료 하나에만 특별히 집착을 한다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듯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오신통이라는 어느 재료에 집착하거나 묶이지 말고, 거기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재료에 집착하거나 묶이지 않는다 함은 그 재료가 크건 작건 좋건 나쁘건 다 쓸 곳에 쓩등하게 쓴다는 뜻입니다. 크거나 좋다고 택하고 작고 나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아주 쬐그만 재료들까지도 다 모여야만 마침내 대들보가 올라갈 수 있듯이, 또 탑의 마지막 봉우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반침돌이 필요하듯이 바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망상이라고 걸리지 도 마시고, 분별이나 악행이라고 하는 데에도 걸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재료라는 것을 녹이고 그리고 '나' 라는 틀이 무너지는 사이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가 무너진다면 스스로 참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정인 것이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필코 이루어야만 하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막중한 시기에,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영통한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아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돌려서 놓아야 합니다. 망상과 분별 그리고 마음의 악행이 있었기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봉우리, 마음의 대들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런 것을 싫다는 마음으로 피하려고만 하거나 그 모두를 버리려고만 한다면 진정한 해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임을 깊이 알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즉 오무간 지옥이 무너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해결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진짜 해결사한테 일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까 오로지 자기 해결사에게 다 맡겨 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바깥으로만 해결사의 이름을 외우고 부르며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여러분은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데도 일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의 해결사 주인공을 진실히 믿기는커녕 바깥으로 온통 이름을 부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언제 자기 등불이 밝혀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는 참 슬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옴면 저도 옴고 여러분이 웃으면 저도 웃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면 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되고 안되는 양면 다 놓고 굴릴 수 있을 때

첫째 오무간 지옥이 다 무너지고
둘째 억겁전생의 습 모두 녹아 내리고
셋째 번뇌망상 사라지고 참나 발현돼

여러분은 흔히 육근(六根)이다 육경(六境)이다 육식(六識)이다 18계(界)다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라고 일일이 따라 외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우기만 하는 것은 마치 집 짓는 재료의 이름만을 외우고 있는 경우나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기술은 배우지 않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의 이름들만 배우고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육근은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눈이 가는 데에 귀가 가고 귀가 가는 데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집으려고 할 때 다섯 손가락이 다 함께 가서 잡게 되는 것이지 한 손가락만 가서 물건을 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근을 꼭 여섯 가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일심으로 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일심(一心)이요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가 여섯 가지라면 그것은 단지 여섯 가지만이 아니라 일체인 것입니다. 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는 게 여섯 가지라면 그 또한 일체인 것입니다. 육경 육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식으로 한데 뭉쳐서 일심으로 들어고 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분잡하고 고달프게 이름을 따로따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아는 것을 쓰려고도 하지도 말고, 다만 일심(一心)으로 자기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체가 다 나오는 곳도 거기이고 들어가는 곳도 거기입니다. 때문에 가지각색의 모든 것이 각각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둘이 아니요 셋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 즉 보는 것, 듣는 것, 옴죽거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바르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두가 다 둘이 아닙니다. 팔정도도 다 한 마음 속에서 들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선지식들께서 '멈추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끄달리지 않는다, 여여하다,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는 말은 둘로 보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없게 되는 둘로 본다면 벌써 걸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뭡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도 둘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로 보지 않는 도리를 어떻게 하면 잘 행할 수 있는가? 바로 일체가 오로지 한마음에서 나가고 한마음으로 다시 드는 것임을 깊이 알고, 의식적으로라도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림 없이 다 받아들여서 자기 주인공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서, 그것도 또한 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믈질로 구성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 속에 내재된 그 모든 것을 100%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모든 것을 한데 뭉쳐서 한 곳으로 놓아야 됩니다.

팔정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팔정도는 여덟 가지 실천수행을 이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덟 가지 마음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 마음을 내고 팔정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한마음 속에서 옳은 견해를 내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두가 다 둘이 아닙니다. 팔정도도 다 한 마음 속에서 들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속에서 팔정도의 여덟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무심 · 유심이 같이 합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팔정도로만 본다면 여덟 가지다 하고 말을 하겠지만, 그 여덟 가지가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똑바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 이치를 나의 자성불 또는 불바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동일하게 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바깥으로만 찾거나 이론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몸을 올바로 알아서 안으로 잡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바로 심성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리는 결코 생활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이자 참선이요, 참선이 곧 생활이자 참선입니다. 또 육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깨달은 본각심에서 마치 불바퀴와 같이 굴리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음으로나 양으로나 마음 한생각을 내주면 물질 하나 주는 것보다도 한 생각 내주는 그 보시가 참으로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여섯 가지는 바로 한 본각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아니라 하늘 땅 인간 등 전체를 한데 합친 그런 본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습을 무공무진하게 여여하게 돌아가므로 취할 것도 없고 한 취할 것도 없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멱어치우고 응해 주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 주는 것이

☞ 30면으로 계속

☞ 29면에서 계속

바로 보살의 육바라밀 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하나하나 납납이 뜯어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것을 일일이 나눠서 하나하나 배우려고 든다면 어느 천년에 그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이전에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참다운 자유인이 되십시오. 참다운 자유인이 된다면 육바라밀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사찰에서 참선하시는 대중스님들이 쭈욱 벽을 보고 돌아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들어와 쓰윽 한번 돌아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얼굴 참 잘 생겼구먼. 그 얼굴이, 그 사진이 벽에 딱딱 박혀 있구먼. 그러나 사실 그 사진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더니 어디에서 또 사진을 찾는단 말인가?"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진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벽에 무슨 사진이 붙어 있다고 벽을 쳐다보고 있어야 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대중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모두 정곡을 찔러 주시는 말씀이라 마침내 이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올려 모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로 된 주지 스님께서 대중 스님들에게 메밀 씨를 갖다 주면서 심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 스님들은 그 메밀 씨를 모두 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지 스님한테 여쭤 보기를 "이제는 메밀국수나 메밀떡, 메밀장국은 틀림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주지스님께서는 "두고 봐야 알지" 하시는 겁니다. 그 후 또 여러 날이 지나 밭에 메밀 싹이 나와 꽃이 피게 되니까 대중 스님들이 다시 주지스님에게 "이제는 메밀떡을 꼭 먹을 수 있겠죠?" 하니까, "그것도 먹어봐야 알지" 하시는 겁니다. 그 후 다시 메밀꽃이 시들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이제는 틀림없이 다 익었으니까 먹을 수 있겠죠?" 하고 또 여쭈니까 "그것도 먹어 봐야 알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이 이번에는 아예 메밀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메밀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도 못 먹겠습니까?" "그래도 먹어 봐야 알지."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은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진짜 장떡을 만들어 제일 먼저 주지스님 그릇에다 담아 드린 후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래도 못 드시겠습니까?" "먹어 봐야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수 없이 대중 스님들은 전부 모여 발우 공양을 하는데 모두들 한 그릇씩 떠서 각자 앞에다 놓고 일제히 한 숟갈씩 입에다 넣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주지스님께서 크게 호령을 하였습니다.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그 메밀 장떡을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끈뜨끈한 것을 입에다 넣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입 속에서 슬슬 녹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주지스님께서, "그 떡이 그대로 있느냐?"고 물자 "조금 남았습니다" 하는 스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어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주지스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어찌 생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이자 참선이요, 참선이 곧 생활이자 참선입니다. 또 육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깨달은 본각심에서 마치 불바퀴와 같이 굴리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음으로나 양으로나 마음 한생각을 내주면 물질 하나 주는 것보다도 한 생각 내주는 그 보시가 참으로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여섯 가지는 바로 한 본각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아니라 하늘 땅 인간 등 전체를 한데 합친 그런 본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습을 무공무진하게 여여하게 돌아가므로 취할 것도 없고 한 취할 것도 없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멱어치우고 응해 주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 주는 것이

일체가 한마음에서 들고 나는 것 알아 모든 것 한데 뭉쳐서 한 곳으로 놓아야

것이 다 그대로구나." 이렇게 해서 수행하시는 대중 스님들이 다 성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넘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공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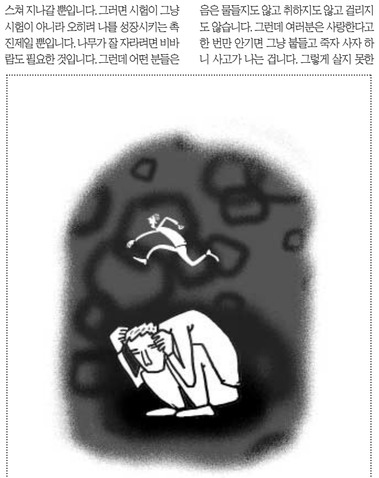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께서 대중 스님들을 쭈욱 앉혀 놓고 차례로 물었습니다. "너는 쌀 아닌 쌀을 아느냐?" 하시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러면 너는 쌀을 씻어서 밥을 하지 않고 밥을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저는 밥 아닌 밥은 아직 잘 모릅니다마는 그저 잡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 너는 그래도 좀 빠다귀라도 얹은 듯하구나. 다른 대중들은 가죽도 얻지 못해서 그렇고…." 하시면서 노스님은 다시 다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먹은 사이 없이 먹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나가더니 수박 한 통을 쪼개 가지고 와서 노스님 앞에 놓고는 삽배를 올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너는 골수를 얻었구나" 하면서 껄껄 웃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서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책을 보게 되면 벌써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책을 몇 구절 읽게 되면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것는 저런 뜻이고…' 하고 뜻으로 나오지 말이나 이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살림에도 끄달리지 마시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닥쳐오는 어떠한 경계에도 속지 않고 문득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저는 진정코 간절하게 믿는데 왜 이리 일이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모두 당신네들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만히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자기 주인공, 자성 부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마음의 정도, 그 한 생각이 자기를 올려놓기도 하고 자기를 구멍이에 빠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부족하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하고자 하는 일도 흔들려서 흐지부지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잘 안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늦게라도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된 사람에게는 안되는 것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참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참자기가 자기를 똑바로 가르치려고 시험을 주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면 안되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안되는 것이 오히려 약이며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일이 안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성숙시키고 지도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알고 믿어서 한생각 크게 내어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한생각 크게 내어 돌릴 줄 아는 공부가 된다면 어떤 구렁텅이에 갔다 놓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진정 믿음이 투철하다면 한생각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모든 것은 다 한생각에서부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한생각이 계속 순일하고 여일하다면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촉진제일 뿐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비바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림 · 최주현

움직이고 뛰며 생활하면서도 항상 삼매에 드는 도리 꼭 알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마음의 본래 자성불을 견고한 마음으로 철저히 믿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 여떠한 것도 아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몸에서 벗어나고 고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고 비가 들이쳐도 오히려 시원한 뿐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치면 오히려 모든 나쁜 공기와 먼지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시켜 주기 때문에 비바람은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 주는 공부의 재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장원급제를 하고 집안을 크게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익 되는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말로 진짜 보시이며, 그렇게 하는 마음의 보시가 진정한 마음의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은 이쪽대로 병들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병들게 하는 그런 마구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짜 보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효대사가 파계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한답시고 다리만 꼬고 들어앉아 있으면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들어다 나르는 것도 아닙니다. 눈 뜨고 뛰면서 폭설 쏟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무척이나 이 마음공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마다 기복적으로 죄를 뗏씩의 주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입니다. 인간이 저 우주 혹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어 마음을 내면, 우리 한생각에 다른 혹성의 모든 보살들이 다 여기에 참나툼나 들고나올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보살이며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깨우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한자리이므로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자기를 믿는 마음을 튼튼하게 해서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마음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옥고도 풀릴 것이고 억겁 전부터 쌓여온 모든 습도 녹아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설사 무엇이 오더라도 하나도 겁내지 말고 거기에 속을 리도 없고 걸릴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텔펴덕 앉아도 걱정이 하나도 없고, 먼지 앉을까봐 걱정도 없고, 때가 묻을까봐 걱정도 없고, 좋지 않은 것이 와서 내 무릎에 안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믈들지도 않고 히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안기면 그냥 붙들고 죽자 사자 하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삶지 못한 데다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편리하고 남을 이익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전에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나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가련하게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늙은 어머니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살면서도 그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스님께서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는 딸이 어지나 극진히 어머니를 모시는지 그 광경을 보고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나 뜻으로 그냥 보시를 듬뿍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부터 그 딸에게 테기가 있어 마침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장원급제를 하고 집안을 크게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익 되는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말로 진짜 보시이며, 그렇게 하는 마음의 보시가 진정한 마음의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은 이쪽대로 병들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병들게 하는 그런 마구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짜 보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효대사가 파계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한답시고 다리만 꼬고 들어앉아 있으면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들어다 나르는 것도 아닙니다. 눈 뜨고 뛰면서 폭설 쏟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무척이나 이 마음공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마다 기복적으로 죄를 뗏씩의 주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입니다. 인간이 저 우주 혹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어 마음을 내면, 우리 한생각에 다른 혹성의 모든 보살들이 다 여기에 참나툼나 들고나올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보살이며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깨우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한자리이므로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자기를 믿는 마음을 튼튼하게 해서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마음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옥고도 풀릴 것이고 억겁 전부터 쌓여온 모든 습도 녹아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설사 무엇이 오더라도 하나도 겁내지 말고 거기에 속을 리도 없고 걸릴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텔펴덕 앉아도 걱정이 하나도 없고, 먼지 앉을까봐 걱정도 없고, 때가 묻을까봐 걱정도 없고, 좋지 않은 것이 와서 내 무릎에 안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믈들지도 않고 히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안기면 그냥 붙들고 죽자 사자 하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삶지 못한 데다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편리하고 남을 이익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전에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나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가련하게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늙은 어머니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살면서도 그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스님께서

웹카드로 봉축 기쁨 함께해요



인터넷으로 상대방에 전달 많은 사람과 공유

플래시 애니메이션, 찬불가 등 꾸준한 인기

많은 불자들이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 연하장 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부처님 오신날에는 왜 봉축 카드를 보내지 않을까 아쉬워했던 정민호(충남 부여 거주 · 31)씨. 그는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 항상 가족, 이웃, 도반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봉축 웹카드를 보낸다. 돈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봉축의 기쁨을 나누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계 홈페이지 또는 웹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봉축 캐릭터, 단청문양, 부처님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불교 소재의 봉축 카드를 선보여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플래시 기술을 응용한 짧은 애니메이션과 찬불가가 동시에 흘러나오는 플래시 카드는 봉축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청소년 불자를 중심으로 비불자 청소년들에게까지 꾸준히 보내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본지가 운영하는 부다피아(buddhapia.com)에서는 '부다피아 카드나라' 코너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연꽃일러스트, 동자카드, 법당 단청이미지 모음,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법구모음 등 총 10개종 60개의 웹카드를 서비스 하고 있다. 방문자수를 체크하는 각종 랭킹사이드에서 불교부분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다피아는 사진이나 기타 전통적인 불교소재가 아닌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웹카드를 선보이고 있어 네트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석촌동 불광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bulkwang.org)도 월간불광 인터넷카드 코너에서도 15종 184장에 이르는 다양한 봉축 웹 카드를 보낼 수 있다. 고려시대 불화카드, 금속공예품 카드, 일장스님 그림카드, 어린이들이 그린 부처님 그림카드 등 주로 사진 위주의 카드가 중심이지만 찬불가를 첨부할 수 있고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많아 불자들이 즐겨 찾고 있다.

무료카드 서비스업체인 샌드투유(send2u.co.kr)에서 제공되는 웹카드는 모두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는 플래시카드. '어두운 세상, 자비의 손을' 등 총 15개의 불교관련 플래시카드는 저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한나무(hannamu.com), 불교정보센터(budgate.net), 성철넷(songchol.net) 등 불교계 홈페이지와 카드코리아(cardkorea.com), 레또(lettee.com), 포스트넛(postnut.com)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불교소재 웹카드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붓다 뉴스' 세계가 본다

일일 방문자 30% 이상이 해외서 접속

일간 불교뉴스(buddhanews.com) 사이트 붓다뉴스가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본지가 국내 유수의 사이트 분석 전문 업체인 로거사(logger.co.kr)에 의뢰해 방문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로그 분석을 해본 결과 일일 방문자의 30% 이상이 해외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4월 9일 하루동안 붓다뉴스를 방문한 접속자 IP는 한국 55.94%, 영국 32.67%, 미국 2.48%, 인도 0.99%, 독일과 캐나다가 각각 0.5%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3월 30일에서 4월 5일까지 일주일간을 분석해 본 결과도 한국 72.21%, 미국 12.47%, 독일 2.03%, 영국 1.17%, 호주 0.82%, 중국 0.76% 기타 싱카포르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붓다뉴스는 한글 서비스 중심이지만 해외에서의 접속률이 30%대를 유지하는 것은 국내불교 소식을 궁금해 하는 해외 교민 불자들에게 붓다뉴스가 주요 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판 엿보기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방송을 듣는데 기독교인이 단군문화유적을 훼손한 것에 대해 진행자가 "이것은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하더군요. 남의 문화재를 훼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TV에서 틱낫한 스님의 강연을 방송하더군요. 거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란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아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개념이 3차원 세상인 현상세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kim, 피안으로 가는 문

스님의 얼굴이 그리운 것은 아마도 부처님이 그리운 거겠죠. 병원에 오셔서 병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낫게 하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그대로 전 이미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불교도 교회처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마음속엔 있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유현 광덕스님홈 방명록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티베트 여성회 친구(http://www.fotwa.org)



'회화클럽' '후원자 기부' 등 메뉴 개설

중국 티베트 점령 항거 위해 결성

티베트 여성회 친구(http://www.fotwa.org/index.html)는 각지로 추방된 티벳인들을 돕고 피난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단체이다. 티베트 여성회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티벳어린이들의 회화클럽' '티벳인과 미국청년의 예술과 생각' '사진 수필' '티베트 여성회 친구의 임무와 정보' '후원자와 기부' 등의 메뉴가 개설되어 있다.

여성회는 1959년 4월 12일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무력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티베트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수모를 겪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베트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 · 지회를 두고 있다.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진각종 밀각 심인당 (www.milgak.or.kr)

법문 서비스 통해 밀교 궁금증 해소

다도, 신앙 · 인생상담 코너 마련 예정

1947년 회당 대종사가 이 땅의 풍토성과 혈지성에 맞는 전통 종교인 불교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도록 새롭게 창종한 밀교종단 진각종.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위치한 밀각 심인당은 진각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1952년 설립되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현대 정보사회에 발맞추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이버 포교에 앞장서고 있어서다. 진각종은 사찰을 자기속에 내재하고 있는 심인을 자각하고 밝힌다는 의미에서 심인당이라고 부른다.

1999년 개설한 밀각 심인당 홈페이지(www.milgak.or.kr)는 당시 많은 불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3년전만 해도 하드웨어 등 정보 기반이 지금처럼 잘 갖추어지지 않아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이 어려웠으나 밀각 심인당은 네티즌 불자들을 위해 주교 회정 정사의 법문을 캠코더로 녹화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했기 때문. 많은 네티즌 불자들이 동영상 법문을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버가 다운되는 등 인기를 누렸다. 또한 당시만 해도 불교계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로 없어 불교, 특히 밀교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불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 자유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을 하는 등 사이버 법당의 역할도 수행했다.

하지만 신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0~50대 보살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고 전산 담당 종무원이 퇴사해 그동안 홈페이지가 다소 침체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장년층에까지 컴퓨터 사용자가 늘자 신도카드(교도명부)에 E-mail을 기재하게 해 심인당 행사, 신도들의 생일, 기타 공지사항 등을 일반 엽서와 함께 E-mail을 소지한 신도들에게는 메일로 공지하고 있다. 메일을 받은 신도들은 심인당에 더 자주 나오고 활동도 열심이라고 밀각심인당 주교 회정정사는 전한다. 더불어 홈페이지도 심인당과 신도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올 6월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 개편될 홈페이지에는 진각종 소개, 동영상 법문을 비롯해 현재 심인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각다도 교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업데이트 하고 익명으로 신도들이 신앙 및 인생상담을 할수 있는 코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산 담당 종무원도 채용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밀각 심인당 주교 회정 정사가 사이버상에서 불교복지정보를 찾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제9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 · 목아불교박물관 · 화성 신흥사 주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축제의 날.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서해바다 갯벌탐사 및 사찰체험 가족캠프에 참가해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 채워 보세요.



참가방법 : 하나, 5월 5일 그림그리기 대회 당일 행사 참가
둘, 5월 4일~5일 가족캠프 참가 후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셋, 작품(우편) 공모 참가

참가부문 : 크레파스와 부문 - 유치원 · 초등 1,2학년
수채화 부문 - 초등 3,4학년
판화 부문 - 초등 5,6학년

일 시 : 2003년 5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경기도 화성 신흥사
대 상 : 전국의 어린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교 1~6학년)
참가비 :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 4,000원, 작품 우편 응모시 작품과 5,000원 우표 동봉)
15,000원 (가족캠프 참가자, 1박 3식 제공, 단체 자체차량 이용시 12,000원)
무료(복시시설, 재활원 등 단체 참가어린이, 시설 자체 차량이용)
준비물 : 도시락, 화판, 참가부문 미술도구(크레파스, 물감, 조각도), 돗자리, 모자착용
특 전 : 참가자 전원 기념 T셔츠 등 선물 증정
시 상 : 우뚝으뜸상 (1명, 상장 및 상품) 각 학년별 으뜸상 (7명, 상장 및 부상)
각 학년별 버금상 (7명, 상장 및 부상) 보람상 (500명, 상장 및 상품)
한마음상 (3곳, 상장 및 상품)

올해의 놀이마당 "우리 가족 레포츠를 즐겨요!"
골프, 암벽등반, 볼링, 농구, 다트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책 12선' 중 한권을 드립니다.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대회 선정, 가교, 대원사, 동쪽나라, 문학동네, 북 뱅크, 북엔피플, 윤주사, 좋은, 한림출판사, 행복한 세상, 현암사, 황금가지 협찬)

www.bulkwang.org /grim.html 참가신청 및 문의 : 월간 「불광」 02) 420-3200 목아박물관 031) 885-9952~4 신흥사 031) 357-2695 선재이벤트 0302) 317-2555

후원 :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학교법인 동국학원, (재)보덕학회, 불광사 불광법회, 신흥인쇄, 불교방송, 대한불교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 「금강」, 월간 「불교」, 협찬 : 롯데월드, 삼천리 우리외주, 생활한복 황야, 거위바위보 /방, 태일유업 '연요', 다우데이터시스템, 금강어패럴, 대림지류유통, 광일문화사, 신우, 건지불교

인도그림기행 1

무명의 터널을 지나며

뭄바이의 밤과 인도문

그림·글 이호신

밤하늘을 날아간다.
문명의 혜택으로 날개를 달고 어둠속을 비행한다.
꿈만 같은 이 순간, 기억속의 상념들이 떠올라 파닥이다가 사그라져 간다.
모든 것이 찰나에서 영겁으로 끊어지고 점철된다.
내려보니 아득한 지상의 불빛, 우러러 보는 은하의 별빛 속에 기내의 불빛으로
여행자의 존재를 확인한다.



◇인도문(15×20cm).

대합실 간디 모습에서 인도의 훈향 느껴
검은대지 여명과 함께 1500만 인구 부산
인도문, 식민지 과거 잔재 · 유물로 남아



◇무명(無明)—뭄바이의 새벽(75×113cm).

새벽바람 속에서 여행은 시작되고…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고, "세상에서 가장 멀고 어려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길인데 팔십 평생이 넘도록 아직 온전히 가슴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어느 성직자의 겸허한 고백이 이순간 간단없이 가슴에 물결쳐 온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받아 영혼의 귀를 지닌다는 것이 어찌 귀하지 않을까. 끝없이 '열린문과 흐르는 길'의 도정에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산고의 깨침을 얻으리라. 그 깨달음은 곧 진리를 발견하는 눈이다. 우리는 무명(無明)의 터널 속에서 그 빛을 찾아, 진리의 숲을 향해 떠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 길은 새로운 경험이다. 놀라움과 경외, 갈등과 고독을 자초하며 또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현상을 넘어선 본질 탐구다. 지구촌 인류애의 이웃으로, 오늘을 있게 한 과거의 역사와 종교, 예술과 삶의 나이테를 헤아리는 추체험의 재발견이다.

따라서 '인도로 가는 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행자 자신의 지난 나날의 가감 없는 반추. 그 두려움 속,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연 눈을 감는다. 그런데 왠 일인지 가슴 속 밑바닥 희미한 곳에서 아련한 불빛이 치밀어 오른다. 알 수 없는 감회와 눈물이 끝내 북받친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다.

엊저녁 인천공항을 떠나 밤새 타이뻬이, 하노이, 다카, 콜카터를 경유 인도땅 뭄바이에 내린 시간이 새벽 2시 25분(한국 시간은 5시 50분). 옛 수도승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오천축국(五天竺國)으로 명명한 인도를 몇 달에 걸쳐 걸어왔건만 아홉 시간이 채 못 되어 날아왔으니 이 무슨 신통력의 세상인가.

대합실에 걸린 간디의 모습에서 인도의 훈향이 느껴진다. 일행을 맞는 현지인이 꽃 목걸이를 걸어준다. 정다운 인사가 긴장을 풀어주며 싸늘한 대기속에 꽃내음이 감미롭다.

첫 경험은 늘 새로운 자극으로 고단함을 이겨낸다. 새벽 별이 떠 있는 뭄바이 시내 풍광이 한 눈에 들어와 화첩을 낀 손이 벌써 마려워 오고…

낡은 건물, 무너진 담장, 무질서한 간판이 희뿌옇게 드러나며 야자수와 뾰족한 첨탑 건물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얼비친다. 아니 어느 풍경은 성지가 되어 은하의 불빛아래 새벽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눈여겨 살펴보면 마치 연극무대 세트같이 황량하고 뒷골목처럼 음영이 깊다.

차가운 길거리에 널브러진 수많은 사람들. 꾸부리고, 껴앉고, 서로 기대고, 아예 자리를 깔고 누운 이들이 차창밖에 연이어 드러난다. 보따리와 이부자리를 챙겨 터를 잡은 곳에 천막도 눈에 띄니 저들의 삶은 곤고한 저 자리에서 어제도 오늘도 숨쉬고 있었으리라.

비행시간 내내 어둠의 터널을 빠져 나오려 애쓴 여행자의 소회가 다시 또 도리끼질 한다. 무명(無明)이다.

시차에 잘 적응치 못하는 탓에 새벽잠을 털고 숙소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뭄바이의 첫 인상은 음울한 감상속에 비껴 가는 끈끈한 바람결이다. 그러나 그 바람속에서도 검은 대지위로 여명은 밝아오고 동녘이 터져왔다.

델리에서 18시간 기차를 타고 달려왔다는 라전 싱(RAJAN SINGH, 26)은 델리대학을 졸업한 청년으로 이번 인도여정의 길라잡이다. 첫 인상이 준수한 외모와 순박함을 갖춘 탓에 더듬거리는 한국말에도 금방 친근감이 간다.

아침길, 인구 1500만 명이 모여산다는 뭄바이는 매우 부산하다. 거리에 잦은 영화간판은 헐리우드 못지 않게 영화 제작 열이 높다는 반증인데 즐비한 오토릭사, 소형택시는 하나 같이 검은색에 노란 지붕을 하고 있다.

백베이 해안을 끼고 소위 목걸이처럼 생겼다는 머린 드라이브 코스는 야자가로수와 함께 낭만적이고 반대편 광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퍼레이드 준비에 열을 맞추고 있다. 독립기념일(1월26일)을 위해 한달 전부터 연습중이란다. 한국의 LG간판, 현대자동차가 반가운데 차는 버킹검궁전 같은 빅토리야역을 거쳐 시내를 경유, 타지마할 호텔 앞 광장 인도문에 이른다.

뭄바이란 포르투칼어로 '좋은 항구'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사연은 남의 땅을 함부로 여긴 지배자의 논리가 깔려있다. 즉 서구세력이 맨 처음 인도에 진출했던 포르투칼 공주가 영국왕실로 시집가면서 결혼선물로 넘겨준 항구였다니 말이다. 이로써 뭄바이는 영국동인도회사가 관할하게 된 이래 서해안 제1의 무역항 역할을 했다. 여기에 상징적이고도 기념적인 유물이 소위 '인도문(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이다. 이같은 비유는 백베이 해안마저 '공주의 목걸이'로 이야기되며 오늘날 관광 상품으로 회자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아라비아해를 향해 선 인도문은 영국왕(조지 5세)의 인도 방문을 기념해 1911년 건축한 것으로 식민지 시대에 잉태된 쓰라린 과거의 잔재요,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실크로드여행사 · 안성 도피안사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 특집사보 발간

불교설법전서 (1~8권)



기념책자 견본
· 봉축법요식순
· 부처님은 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
· 부처님의 성도와 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불을 밝히나?

규격 신국판 | 분량 28쪽(표지포함)



특집사보 견본
· 봉축발원문
· 부처님의 탄생과 그 의미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
· 재미있는 교리공부
· 불교환경운동과 수행
· 불교와의 인연이야기
· 불교상식 등

규격 4 x 6배판(16절) | 분량 36쪽(표지포함)

단위 : 원

기념책자	100부	300부	500부	1,000부	2,000부	3,000부
	65,000	195,000	312,500	600,000	1,000,000	1,200,000
특집사보	100부	200부	300부	400부	500부	1,000부
	156,000	234,000	351,000	455,000	559,000	94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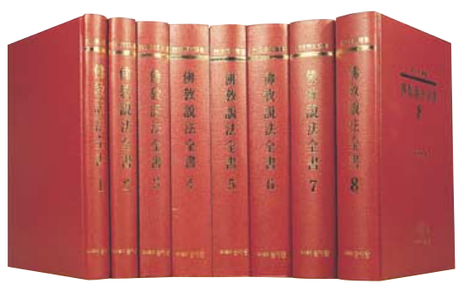
* 특집사보와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소식, 초파일 행사 식순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를 만들어 행사용 팜플렛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책자는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보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설법' 지에 초파일 특집 지면을 할애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사보 겸 초파일 행사용 책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환희로운 부처님 오신 날!
설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초파일 특집사보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펍시다.

"초파일 기간 특별 할인 실시"

행사 · 교리 · 불사 · 비유설화 · 시사 등의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 합본 제작하여 발간된 책.
<불교설법전서>는 스님과 법사님의 필독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권(500쪽) 3만원 5권(720쪽) 4만원
2권(596쪽) 4만원 6권(816쪽) 5만원
3권(612쪽) 4만원 7권(894쪽) 5만원
4권(798쪽) 4만원 8권(790쪽) 5만원

■도서출판 솔바람의 책들
· 불교설법전서 — 설법연구원 편 | 각 권 30,000~50,000원
· 참회정진 — 도법 편저 | 3,000원
·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 반영규 지음 | 7,000원
· 천수경 — 윤오연 편저 | 6,000원
·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 임근동 지음 | 10,000원
· 불사 및 기도안내문 모음집 — 설법연구원 편 | 10,000원
· 불교사경집 — 설법연구원 편 — 예불 · 반야심경 3,000원, 지장경 5,000원
· 불교지도자론 I — 설법연구원 편 | 20,000원
· 뜻으로 읽는 금강경 — 송찬우 역저 | 12,000원
· 실험처럼 살아라 — 페마 최된 지음 · 진우기 옮김(곧 발간예정)
·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 김장열 · 방경일 공저 (곧 발간예정)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